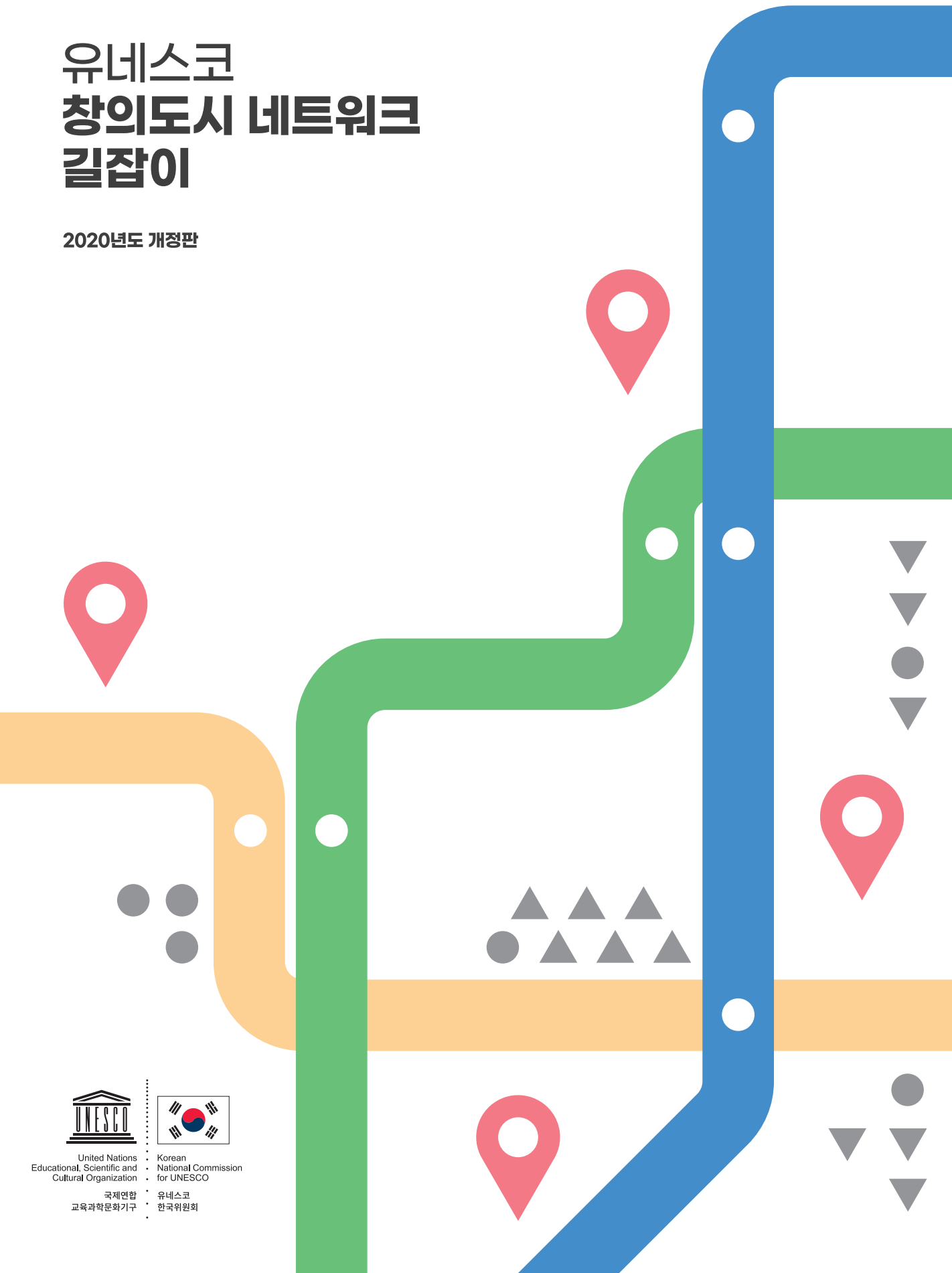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2020년도 개정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2020년도 개정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2020년도 개정판)

연구자

기본편: 전진성, 신소애
심화편: 박경립, 박세훈, 한건수

교열·윤문: 김보람, 송영철, 차영우
디자인: 박장호

펴낸날: 2020년 12월 28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사무총장 김광호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388
팩스: 02-6958-4252
홈페이지: www.unesco.or.kr

ISBN 979-11-90615-14-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CL-2020-RR-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발간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발전 계획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도시들의 모임입니다. 전세계 빈곤의 종식과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1번 목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의 달성을 위한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며, 창의도시들은 교류를 통해 각 도시의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에 대한 모범사례를 나누며 11번 목표의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004년 출범 이래, 2020년 현재 전 세계 85개 회원국 246개 도시가 가입한 네트워크로 성장했으며, 한국은 2010년 서울(디자인)과 이천(공예와 민속예술)이 처음으로 가입한 이후 전주(음식), 광주(미디어아트), 부산(영화), 통영(음악), 대구(음악), 부천(문학), 원주(문학), 진주(공예와 민속예술)까지 총 10개 도시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85개 국 중 7개 창의분야(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문학, 미디어아트 영화, 음식, 음악)에 가입한 도시가 모두 속해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렇듯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국내 도시들이 증가하고 여러 도시들이 창의도시 가입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창의도시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을 지원하고, 이미 가입한 도시들의 향후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2020년 개정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편에서는 창의도시 가입을 준비하는 도시들을 위하여 창의도시 사업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가입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심화편에서는 ‘창의산업과 창의도시 장소 가꾸기’, ‘도시발전전략으로서의 창의도시’, ‘도시의 운영체계 및 인력육성’ 등 창의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개정되어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관련 정책 문서들을 번역하여 부록에 수록해 두었습니다. 관심있는 도시들에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 개정판이 국내 도시들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 지원은 물론 창의도시 사업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창의도시 사업을 알리고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와 창의성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본편

- ① **창의도시에 관한 이론적 배경** 7
 1. 창의도시 관련 이론
 2. '창의산업'의 정의
 3. 유사한 형태의 사업

- ②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19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란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 현황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 소개

- ③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안내**..... 77
 1. 가입 신청 절차
 2. 신청서 작성 가이드

- ④ **한국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 소개** 87
 1.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현황
 2.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별 활동
 - 서울 디자인, 2010년 지정
 - 이천 공예와 민속예술, 2010년 지정
 - 전주 음식, 2012년 지정
 - 광주 미디어아트, 2014년 지정
 - 부산 영화, 2014년 지정
 - 통영 음악, 2015년 지정
 - 대구 음악, 2017년 지정
 - 부천 문학, 2017년 지정
 - 원주 문학, 2019년 지정
 -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 2019년 지정

심화편

- ① **창의산업과 창의도시 장소 가꾸기** 121
저자: 박경립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장

- ② **도시발전전략으로서의 창의도시: 151**
정책적 고려사항들
저자: 박세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

- ③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거버넌스와 163**
담당자 역량강화
저자: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

부록

1. 사명선언문
2. 201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안내서
3. 2019 가입신청서
4. 2017 지정절차
5. 자주 묻는 질문
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 구축”에 관한 전략적 운영체계
7. 유네스코 창의도시 프로그램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에 관한 지침
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개최도시 선정 기준
9. 2015 제9차 연례회의 결과
10. 2016 제10차 연례회의 결과
11. 2016 제10차 오스터순드 선언
12. 2017 제11차 연례회의 결과
13. 2017 제11차 연례회의 시장단선언
14. 2018 제12차 연례회의 결과
15. 2018 제12차 연례회의 시장단선언
16. 2019 제13차 연례회의 결과
17.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운영지침

창의도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창의도시 관련 이론
2. '창의산업'의 정의
3. 유사한 형태의 사업

1 창의도시(Creative City)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창의도시 관련 이론

20세기 들어 서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문화를 도시 혁신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켰다. 유럽의 문화정책은 도시가 처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전해 왔다. 문화정책의 목표와 지향점 또한 각국이 처한 여건과 정책결정자의 관심사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도시의 이미지 제고, 환경 개선, 혹은 관광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도 했고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잘 정돈된 도시 환경이 외적 공간미는 물론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믿었던 1890년대의 ‘도시 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 이러한 노력이 지나치게 도시의 외형적 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발전과 사회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1960년대의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문제 제기, 그리고 도시 발전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에 관한 담론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창의도시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이처럼 유럽이 문화정책 분야에서 획득한 경험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하나의 새로운 도시정책의 비전으로 발전해 왔다. 아직까지 창의도시라는 용어에 대한 보편적이고 체계화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의도시에 관한 주요 이론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도시의 이미지 개선, 공간의 효율적 활용, 쾌적한 생활환경 및 문화 활동 공간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여기에는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을 세우거나, 지역별 기능을 고려한 도시 설계, 노후화된 공장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하여 구성원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는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창의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이 모델에는 연관 산업 분야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증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강화, 차별화된 중소규모의 산업 분야 지원을 통한 도시산업의 특성화,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산업발전 지원 노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창의적 인적자원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으로서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한편, 이들의 원천인 창의적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주목하는 모델이다. 여기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력양성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이들이 가진 창의적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포함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여러 도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창의도시’(Creative City)라는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의미에 대한 해석이 어떠한 간에 ‘창의도시’라는 용어는 대체로 창의성의 중요도 및 창의적 역량 발현에 필요한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가 떠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도시 만들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도시에 관한 이론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1.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미국의 언론인이자 도시이론가인 제인 제이콥스는 1961년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불도저식 도시개발로 대표되는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국가주도형 도시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이콥스는 도시단위의 발전과 기능 원리에 주목하면서, 다양성과 역동성, 시민참여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건설 원리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다양성’이란 산업분야와 기업의 다양성을 의미하는데 반해, 제이콥스가 말하는 ‘다양성’이란 도시의 성장과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구성원 전체의 다양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의 도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과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자연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와 보행자 중심의 도시

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이콥스는 1984년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 『도시와 국가의 부』(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에서 처음으로 ‘창의도시’(creative cit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도시가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끊임없이 발현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도시의 자체적 조절, 혁신, 발전 능력에 주목하면서 국가 단위의 발전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1. 제인 제이콥스, 서은영 역, 2004, 『도시와 국가의 부』, 자유기업원, 나남출판, p. 6.

그녀는 국가 중심 경제정책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국가 중심의 통화제도, 군수산업, 빈민지역 보조금, 투자, 국제원조, 심지어 국가 단위 경제개발계획조차 오히려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쇠퇴의 거래’로 규정하는 한편, 도시 단위 산업개발 및 도시 간 무역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고정된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중장기 산업 전략이나 경제개발계획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직성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유연하고 개방적인 도시 운영 시스템을 통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

1.2.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2. 찰스 랜드리, 임상오 역, 2005, 『창조도시』, 해남, p. 10.

영국의 도시계획가이자 문화계획 컨설팅 조직인 코메디아(Comedia)의 설립자인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창의도시 이론을 한 단계 도약시킨 인물이다. 그는 2000년 발간된 저서 『창의도시』(Creative City)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유럽 각 지역의 전통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의 부가가치가 제조업보다는 제품이나 공정,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지식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통해 창출되는 것을 지켜본 랜드리(Charles Landry)는 도시의 규모나 지리적 여건에 관계 없이 상호 협력과 존중, 호혜의 정신이 전제된다면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과 그러한 아이디어의 성공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²

랜드리(Charles Landry)는 세계 곳곳의 창의도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창의도시(creative city)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이 응용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도시 구성원이 각자의 기량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들은 그 정체성을 대변하는 건축물과 효율적 에너지 활용 시스템,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오락과 학습의 기능을 겸비한 상가, 도시의 활기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공간, 그리고 비밀상성과 창의

3. 찰스 랜드리, 임상오 역, 2005, 『창조도시』, 해남, p. 8.

4. 찰스 랜드리, 임상오 역, 2005, 『창조도시』, 해남, pp. 251-254.

5. R.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Washington Monthly Online, May 2002.

성을 근간으로 하는 축제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³

랜드리 는 무엇보다도 도시의 독특한 문화적 개성이 도시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원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세계 어디에서나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문화적 개성이야말로 도시의 부가가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화는 창의적 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그 자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는 또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융합을 가능케 함으로써 서로 다른 영역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랜드리 는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의 개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개발 및 다양한 영역의 자유로운 교류와 혁신적 시도를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강조했다.⁴

1.3.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는 2002년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 『창의적 계급의 등장』(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을 통해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제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창의적 경제시대의 주역으로서 ‘창의 계급’(Creative Class)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플로리다에 따르면 창의 계급이란 새로운 형태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로서 과학자, 엔지니어, 건축가, 대학교수, 소설가, 시인, 예술가, 배우, 디자이너, 오피니언 리더 등과 같은 ‘핵심적 창의그룹’(Super Creative Core)과 하이테크 분야와 비즈니스관리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창의적 전문가’(Creative Professional) 등을 아우른다.⁵

그는 이러한 창의 계급을 잘 흡수하여 활용하는 도시들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도시들이 창의 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혜택, 주택건설,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쾌적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게이와 레즈비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 등 높은 개방성과 관용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플로리다는 특히 창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 계급이 선호하는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을 흡수하고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시의 경제 성장은 단지 이러한 창의적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들의 창의적 재능을 참신하고 새로운 경제성으로 전환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1.4. 프랑코 비안치니(Franco Bianchini)

유럽의 문화 정책 전문가인 프랑코 비안치니는 창의도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보여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창의도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유흥문화 지역이 확산되거나 도시 안팎에 개성 없는 새로운 건축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도시가 비이상적으로 팽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과잉 생산되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소수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안전지향주의 사회 분위기로 인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노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안치니는 도시의 창의성과 고유한 특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 전략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인 도시 전략이란 먼저 도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과 이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새롭고 실험적인 활동을 널리 지원함으로써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발현되도록 이끌어 내야 하는 것 또한 창의적 도시 발전 전략이 안고 있는 과제였다. 특히, 그는 이와 같은 전략이 혁신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획되어야 하며, 도시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직업군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거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3년에 발간된 저서 『문화정책과 도시 재생』(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에서 비안치니는 도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외된 계층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장애인, 여성운동가, 환경운동가 등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그룹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시의 문화정책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비안치니는 또한 도시문화정책 및 교육, 연구, 개발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니는 것과 도시 재생 및 삶의 질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화 기획의 관점에서 정책 입안자 교육은 물론, 지방정부 간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창의도시는 그 강조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들이 주장하는 창의도시의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이들이 말하는 창의도시는 그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도시다. 그리고 도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교류

하고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다. 또한 이를 통해 발현된 창의성을 도시의 제 문제 해결은 물론 창의산업과 같은 경제적 활동의 동력으로 잘 활용하는 도시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창의산업의 정의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은 종종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⁶과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용어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예술, 문화, 사업, 기술 등 지적 재산의 재화나 서비스를 창조하고 제조하며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이 용어는 민속예술, 축제, 음악, 도서, 회화 및 조각, 공연 등과 같은 문화적 전통에 기반을 둔 분야와 영화, 게임, 방송,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기술집약적 분야, 그리고 광고나 홍보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창의산업 분야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 육성될 수 있다는 점과 높은 부가가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6. 유네스코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따르면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은 문화적 특성을 지닌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생산 및 보급을 포괄하며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는 산업 분야로 정의된다. 종종 '창의산업'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문화산업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 외에도 문화적 자산, 사회적 자산과 같은 가치의 증진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창의산업의 정의와 구분되기도 한다.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는 창의산업을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 분야의 아홉 가지 산업군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유산 분야에서는 예술공예, 축제와 같은 전통 문화적 표현 양식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역사적 기념물, 박물관, 도서관, 기록원 등과 같은 문화적 장소를 또 하나의 산업군으로 묶고 있다. 두 번째 예술 분야는 음악공연, 연극, 무용, 오페라, 서커스 등을 포함하는 공연예술 산업군과 회화, 조각, 사진 및 고미술품을 포함하는 시각예술 산업군으로 나뉜다. 세 번째 미디어 분야는 영화, TV, 라디오, 기타 방송 영역을 포괄하는 시청각 산업군과 도서, 신문, 출판물, 출판인쇄미디어 산업군,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디지털 창작 콘텐츠 등이 포함된 뉴미디어 산업군 등의 세 가지 산업군으로 나뉜다. 끝으로 기능적 창작물 분야는 인테리어, 그래픽, 패션, 보석, 완구 등의 디자인 산업군과 광고, 건축, 창의적 R&D,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문화서비스 산업군으로 나뉜다.⁷

7. UN, 4 July 2004, Sao Paulo, "Creative Industries and Development" (TD(XI)/BP/13),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pp. 4-5.

한편, 90년대 후반부터 창의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는 1998년에 도시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창의산업 전략보고서」(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를 발간했다. 최초로 '창의산업'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이 보고서에서 '창의산업'은 "개인의 창의성, 기술 및 재능에 근거한 산업으

창의산업							
유산		예술		미디어		기능적 창작물	
전통 문화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공예 • 축제 • 기념 	시각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 • 조각 • 고미술품 • 사진 	출판 인쇄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 신문 • 기타 출판물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테리어 • 그래픽 • 패션 • 보석/장신구 • 완구
	문화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기념물 • 박물관 • 도서관 • 기록원 		공연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공연 • 연극 • 무용 • 오페라 • 인형극 • 서커스
			뉴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창작 콘텐츠 • 소프트웨어 • 비디오 게임 • 만화 			

8. DCMS (1998), London, UK,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1998,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p. 3.

로서 지적재산권을 통해 고용 및 부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는 산업⁸으로 정의되어 있다. 영국 정부가 정의한 창의산업의 범주에는 영화, TV, 라디오, 음악, 출판, 소프트웨어, 컴퓨터게임, 공예, 건축, 공연예술, 디자인, 패션, 광고, 예술품, 골동품 등이 망라되어 있다.

9. Ernst & Young (2015), UK, Cultural times - The first global map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E&Y

2015년 12월 유네스코가 세계적 컨설팅 업체 어네스트영(Ernst & Young)과 함께 펴낸 보고서 「문화시대: 문화 및 창의산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현황지도」(Cultural times: the first global map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는 문화 및 창의산업분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분야라는 평가를 내리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명이 문화 및 창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산업분야가 만들어내는 수입이 약 2조2천5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⁹ 문화 및 창의산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보면 TV방송분야가 가장 큰 수입을 창출하는 분야로 분류되었고 가장 많은 인력고용이 이뤄지는 분야로는 미술 및 디자인분야 산업이 포함되었다. 이 밖에 주요 산업분야로는 뉴스와 매거진, 광고, 건축설계, 출판, 공연예술, 게임, 영화, 음악, 라디오 등을 포함했다.

3. 유사한 형태의 사업

전 세계적으로 창의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의도시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려는 노력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가나 국제적 수준에서 주로 네트워킹 형식을 통해 진행되기도 하고, 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분야에서 특화된 문화도시 지정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자칫하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사업과 이 사업들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3.1. 유럽 문화 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유럽문화수도사업은 지난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멜리나 메르쿠리가 유럽사회 내의 문화 분야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문화에 대한 국가 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다. 이 사업은 1985년 여름, 아테네에서 유럽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99년에 유럽문화수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

매년 유럽의 새 문화수도를 선정하는 이 사업은 유럽 내 도시들이 제각기 간직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문화 발전의 양상을 홍보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몇몇 도시들은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당 도시의 문화적 기반과 시설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러한 노력을 통해 유럽문화수도 지정을 자도시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독창적 유산들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시행 첫 두 해 동안은 도시가 계승해 온 문화의 역사, 문화 관련 행사들의 수준과 다양성, 문화 관련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2004년 유럽문화위원회(the European Culture Commission)는 연구를 통해 유럽문화수도 지정이 해당 도시의 문화 발전은 물론 도시의 재생과 활성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문화위원회는 이후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도시가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됨으로써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이득과 그 파급효과의 정도도 고려하고 있다. 1985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2020년 현재까지 62개 도시가 참여해 왔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럽문화수도 지정도시 및 지정연도

1985년	그리스	아테네
1986년	이탈리아	플로렌스
198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988년	독일	서베를린
1989년	프랑스	파리
1990년	영국	글래스고
1991년	영국	더블린
1992년	스페인	마드리드
1993년	벨기에	앤트워프
1994년	포르투갈	리스본
1995년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996년	덴마크	코펜하겐
1997년	그리스	테살로니카
1998년	스웨덴	스톡홀름
1999년	독일	바이마르
2000년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드 폴란드 체코 아이슬란드 스페인	아비뇽 베르겐 볼로냐 브뤼셀 헬싱키 크라쿠프 프라하 레이카비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2001년	포르투갈 네덜란드	포르투 로테르담
2002년	벨기에 스페인	브뤼주 살라망카
2003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2004년	이탈리아 프랑스	제노바 릴
2005년	아일랜드	코크

2006년	그리스	파트라스
2007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시뷰 룩셈부르크
2008년	영국 노르웨이	리버풀 스타방게르
2009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빌뉴스 린츠
2010년	독일 터키 헝가리	에센 이스탄불 페치
2011년	핀란드 에스토니아	튀르쿠 탈린
2012년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	기마랑이스 마리보르
2013년	프랑스 슬로바키아	마르세유 코시체
2014년	라트비아 스웨덴	리가 우메오
2015년	벨기에 체코	몽스 플젠
2016년	스페인 폴란드	산세바스티안 바르샤바
2017년	덴마크 사이프러스	오르후스 파포스
2018년	네덜란드 몰타	레이와르덴 발레타
2019년	이탈리아 불가리아	마테라 플로브디프
2020년	유고슬라비아 아일랜드	리예카 갈웨이

10. <https://web.archive.org/web/20090306115204/http://creativecities.britishecouncil.org/>

3.2. 영국의 창의도시 프로젝트(Creative Cities Project)¹⁰

‘창의도시 프로젝트’는 영국문화원에서 기획하고 주관했던 국제적인 사업으로, 도시를 보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창의성, 기업가 정신, 혁신성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공유를 목표로 운영되었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지식, 기술, 경험 교류는 물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공공장소 활용, 예술 및 사회활동, 도시발전 등에 있어 창의산업 육성, 문화정책의 역할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다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 **미래도시 게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도시 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한데 모여 도시가 직면하게 될 장기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이들간의 행사로, 이 자리에서는 도시 전체, 혹은 도시 내 특정 지역의 삶의 개선에 관련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했다.
- **도시 아이디어 제조:** 도시의 정책입안자, 분야별 국제전문가, 해당지역 전문가, 해당 지역의 젊은 사회개혁가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공공건물 활용, 창의 클러스터 구축, 문화정책 및 사업, 여가 공간, 환경, 사회 통합, 의료, 범죄예방 등과 같이 해당 도시가 떠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2-3일간 집중적인 논의의 기회를 제공했다.
- **도시 포럼:** 북부 및 중부 유럽 15개국 도시에서 진행한 사회 혁신 및 창의 사업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 「약진하는 도시」(Breakthrough Cities)를 발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와 이의 해결에 관한 도시의 경험과 지식 공유를 도모했다.

영국의 창의도시 프로젝트는 영국문화원의 주도로 영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15개국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으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진행된 사업의 운영 방식과 실질적 해법 도출 과정 등은 창의도시 운영을 희망하는 도시 관계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란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 현황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 소개

②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 육성 및 도시들 간 비경쟁적 협력과 발전의 경험 공유를 장려한다. 이를 통해 회원 도시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발전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의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 문화산업의 국제시장 진입 또한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현대 미술, 패션, 공예,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 및 유엔해비타트의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이행을 위한 노력에의 동참을 강조하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들이 인간 중심의 도시,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도시, 환경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있는 도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국제사회의 목표에 동의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장기적 실천 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최종 목표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점에서 창의도시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는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트워크 도시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이를 도시 발전에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창의도시는 가입신청서에 담았던 약속과 계획의 실천 여부를 매 4년마다 유네스코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한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될 경우 회원도시가 얻게 되는 혜택으로는 공식적인 유네스코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유네스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는 물론 가입 도시의 이름을 국제무대에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비롯하여 다른 도시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거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는 별도의 정해진 기한 없이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탈퇴를 희망할 경우 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밝힐 수 있다.

2. 가입도시 현황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학, 영화, 음악,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예술 및 미식 등 7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 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환경, 선호에 따라 이들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14년부터 가입 도시 수가 급격히 늘었으며 2020년 11월 현재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는 총 85개국 246개로 분야별 가입 도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예와 민속예술 도시 37개국 49개 도시

연도	도시명	국가명
2005	아스완	이집트
2005	산타페	미국
2009	가나자와	일본
2010	이천	대한민국
2012	항저우	중국
2013	파브리아노	이탈리아
2013	파두카	미국
2014	자크멜	아이티
2014	징더전	중국
2014	나소	바하마
2014	빠칼롱안	인도네시아
2014	쑤저우	중국
2015	알 아사	사우디아라비아
2015	바미안	아프가니스탄
2015	두란	에콰도르
2015	이스파한	이란
2015	자이푸르	인도
2015	루분바시	콩고민주공화국
2015	산크리스토발데라스카사스	멕시코
2015	탄바사사야마	일본

연도	도시명	국가명
2017	바기오 시티	필리핀
2017	바르셀로스	포르투갈
2017	카이로	이집트
2017	카라라	이탈리아
2017	치앙마이	태국
2017	초르델레그	에콰도르
2017	가브로보	불가리아
2017	주앙페소아	브라질
2017	퀴타히아	터키
2017	리모주	프랑스
2017	마다바	요르단
2017	와가두구	부르키나파소
2017	포르토노보	베냉
2017	세키	아제르바이잔
2017	소코데	토고
2017	테투안	모로코
2017	튀니스	튀니지
2019	아레구아	파라과이
2019	아야쿠초	페루
2019	벨러렛	호주
2019	반다르아바스	이란
2019	비엘라	이탈리아
2019	칼다스다라인하	포르투갈
2019	진주	대한민국
2019	카르고폴	러시아
2019	사르자	아랍에미리트
2019	수코타이	태국
2019	트리니다드	쿠바
2019	빌란디	에스토니아

② 음악 도시

36개국 47개 도시

연도	도시명	국가명
2006	볼로냐	이탈리아
2006	세비야	스페인
2008	글래스고	영국
2009	겐트	벨기에
2012	보고타	콜롬비아
2013	브라자빌	콩고
2014	하마마츠	일본

연도	도시명	국가명
2014	하노버	독일
2014	만하임	독일
2015	애들레이드	호주
2015	이다냐 아 노바	포르투갈
2015	카토비체	폴란드
2015	킹스톤	자메이카
2015	킨샤사	콩고민주공화국
2015	리버풀	영국
2015	메데인	콜롬비아
2015	사우바도르	브라질
2015	통영	대한민국
2015	바라나시	인도
2017	알마티	카자흐스탄
2017	아마란테	포르투갈
2017	오클랜드	뉴질랜드
2017	브르노	체코
2017	첸나이	인도
2017	대구	대한민국
2017	프루티야르	칠레
2017	캔자스시티	미국
2017	모렐리아	멕시코
2017	노르셰핑	스웨덴
2017	페사로	이탈리아
2017	프라이아	카보베르데
2019	얌본	인도네시아
2019	에사우이라	모로코
2019	하바나	쿠바
2019	카잔	러시아
2019	키르세히르	터키
2019	레이리아	포르투갈
2019	이리아	스페인
2019	메츠	프랑스
2019	포트오브스페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2019	라말라	팔레스타인
2019	사난다즈	이란
2019	산토도밍고	도미니카공화국
2019	에두파르	콜롬비아
2019	발파라이소	칠레
2019	베스프렘	헝가리
2019	브라네	세르비아

3 디자인 도시

31개국 40개 도시

연도	도시명	국가명
2005	베를린	독일
2005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06	몬트리올	캐나다
2008	고베	일본
2008	나고야	일본
2008	선전	중국
2010	생테티엔	프랑스
2010	서울	대한민국
2010	상하이	중국
2011	그라츠	오스트리아
2012	베이징	중국
2014	빌바오	스페인
2014	쿠리티바	브라질
2014	던디	영국
2014	헬싱키	핀란드
2014	튜린	이탈리아
2015	반둥	인도네시아
2015	부다페스트	헝가리
2015	디트로이트	미국
2015	카우나스	리투아니아
2015	푸에블라	멕시코
2015	싱가포르	싱가포르
2017	브라질리아	브라질
2017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2017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7	질롱	호주
2017	이스탄불	터키
2017	콜딩	덴마크
2017	코르트레이크	벨기에
2017	멕시코시티	멕시코
2017	우한	중국
2019	아시카와	일본
2019	바쿠	아제르바이잔
2019	방콕	태국
2019	세부	필리핀
2019	포르탈레자	브라질
2019	하노이	베트남
2019	무하라크	바레인
2019	케레타로	멕시코
2019	산호세	코스타리카

4 문학 도시
27개국 39개 도시

연도	도시명	국가명
2004	에든버러	영국
2008	아이오와시티	미국
2008	멜버른	호주
2011	더블린	아일랜드
2011	레이카비크	아일랜드
2012	노리치	영국
2013	크라쿠프	폴란드
2014	더니든	뉴질랜드
2014	그라나다	스페인
2014	하이델베르크	독일
2014	프라하	체코
2015	바그다드	이라크
2015	바르셀로나	스페인
2015	류블라나	슬로베니아
2015	리비우	우크라이나
2015	몬테비데오	우르과이
2015	노팅엄	영국
2015	오비도스	포르투갈
2015	타르투	에스토니아
2015	울리야노프스크	러시아
2017	부천	대한민국
2017	더반	남아프리카공화국
2017	릴레함메르	노르웨이
2017	맨체스터	영국
2017	밀라노	이탈리아
2017	퀘벡시티	캐나다
2017	시애틀	미국
2017	위트레흐트	네덜란드
2019	앙굴렘	프랑스
2019	베이루트	레바논
2019	엑세터	영국
2019	쿠모	핀란드
2019	라호르	파키스탄
2019	레이우아르던	네덜란드
2019	난징	중국
2019	오데사	우크라이나
2019	슬리마니	이라크
2019	원주	대한민국
2019	브로츠와프	폴란드

5 음식 도시

23개국 36개 도시

연도	도시명	국가명
2005	포파얀	콜롬비아
2010	청두	중국
2010	오스터순드	스웨덴
2012	전주	대한민국
2013	자홀레	레바논
2014	플로리아노폴리스	브라질
2014	순더	중국
2014	쓰루오카	일본
2015	벨렝	브라질
2015	베르겐	노르웨이
2015	부르고스	스페인
2015	데니아	스페인
2015	엔세나다	멕시코
2015	가지안테프	터키
2015	파르마	이탈리아
2015	푸켓	태국
2015	라슈트	이란
2015	투스온	미국
2017	알바	이탈리아
2017	부에나벤투라	콜롬비아
2017	코차밤바	볼리비아
2017	하타이	터키
2017	마카오(중국특별행정구)	중화민국
2017	파나마시티	파나마
2017	파라티	브라질
2017	샌안토니오	미국
2019	아피온카라히사르	터키
2019	아레키파	페루
2019	벨루오리존치	브라질
2019	벤디고	호주
2019	베르가모	이탈리아
2019	하이데라바드	인도
2019	메리다	멕시코
2019	허마너스	남아프리카공화국
2019	포르토비에호	에콰도르
2019	양저우	중국

6 미디어아트 도시
16개국 17개 도시

연도	도시명	국가명
2008	리옹	프랑스
2013	앵갱레뱅	프랑스
2013	삿포로	일본
2014	다카	세네갈
2014	광주	대한민국
2014	린츠	오스트리아
2014	텔아비브야파	이스라엘
2014	요크	영국
2015	오스틴	미국
2017	브라카	포르투갈
2017	창사	중국
2017	과달라하라	멕시코
2017	코시체	슬로바키아
2017	토론토	캐나다
2019	카를스루에	독일
2019	산티아고 데 칼리	콜롬비아
2019	비보르	덴마크

7 영화 도시
16개국 18개 도시

연도	도시명	국가명
2009	브래드포드	영국
2010	시드니	호주
2014	부산	대한민국
2014	골웨이	아일랜드
2014	소피아	불가리아
2015	비톨라	북마케도니아
2015	로마	이탈리아
2015	산토스	브라질
2017	브리스톨	영국
2017	우치	폴란드
2017	칭따오	중국
2017	테라사	스페인
2017	야마가타	일본
2019	뭄바이	인도
2019	포츠담	독일
2019	사라예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19	바야돌리드	스페인
2019	웰링턴	뉴질랜드

3. 가입도시 소개



①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미국 산타페 Santa Fe

지정연도: 2005 홈페이지: www.santafe.org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산타페는 미국 남서부의 해발 2,100미터에 위치한 도시로 뉴멕시코 주의 주도다. 오래 전부터 인디언과 멕시코 원주민들의 물품 교환이 이루어지던 지역이었고 이후 스페인과 멕시코 식민 시기에는 엘카미노레알(El Camino Real) 무역로의 거점이었다. 1822년 독립 이후에는 산타페 통로(Santa Fe Trail)라 불리는 미국 중앙부에서 서부를 잇는 통상의 중심지가 되었다. 직조, 도자기, 보석, 춤을 포함한 미국 원주민의 전통은 여전히 원주민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도시 곳곳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산타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디언 특유의 흙 건축양식인 아도비(Adobe) 스타일의 건축물들은 산타페만의 독특한 도시 분위기를 연출한다. 산타페의 경우 직업인 10명 중 한 명이 예술 및 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노동 인구 중 작가의 비율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유서깊은 교류의 장으로서 다문화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산타페는 ‘산타페 디자인위크’(Santa Fe’s Design Week), ‘국제민속예술시장’(International Folk Art Market)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예술가, 사업가, 관광객들이 영감을 얻으며 풍부하고 독특한 미적 전통을 경험하고 있다. 산타페는 인구

7만 명 수준의 작은 도시지만 인구 당 문화 사업체 수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며,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건축가, 작가, 예술가들의 밀집도가 높다. 창의산업 분야는 연간 11억 달러(한화 1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250개가 넘는 갤러리와 8개의 박물관, 국제 수준의 예술기관, 급성장하는 미디어·영화·디자인 산업을 자랑하며 미국에서 뉴욕 다음가는 규모의 예술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산타페 시는 예술가 고용, 관광객 유치, 예술 공동체의 번창을 돕기 위해 산타페 호텔세의 1퍼센트를 지역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 건물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퍼센트를 특정 지역의 공공 예술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산타페 민속예술의 전통은 아메리칸 인디언 시기부터 16세기 후반 스페인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자기, 직물, 바구니, 구슬, 보석, 목공예 등으로 특화되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일상 생활 속에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산타페의 공예는 특별한 문화 자산으로 발전해 왔다. 산타페에서는 산타페 국제 민속 예술 시장, 스페인 전통 식민지 시장, 인도 시장 등 매년 3개의 주요 예술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1953년 개관한 국제민속예술박물관(Museum of International Folk Art)은 6개 대륙, 100여개 국가에서 수집된 13만여 점의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인디언박물관, 인디언 문화예술박물관, 스페인 식민지 예술박물관, 뉴멕시코 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박물관들이 있다.

8일 동안 열리는 산타페 디자인위크(Santa Fe Design Week)는 산타페의 풍부하고 독특한 민속예술을 통해 디자인 분야를 발전시키고, 디자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 관련 종사자들에게 미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한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주제로 하며 물 보존, 재생 에너지, 영속농업 분야의 선구자들을 초청해 열리는 그린 디자인 산타페(Green Design Santa Fe)도 주목받고 있다.





이집트 아스완 Aswan

지정연도: 2005 홈페이지: en.unesco.org/creative-cities/aswan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아스완은 나일강 동쪽에 위치한 인구 110만 명의 도시로 이집트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 거점이다. 나일강의 물을 이용하여 사막을 농경지로 만들기 위해 축조된 아스완 댐, 그리고 일명 토스카 프로젝트(Toshka Project)로 불리는 이집트 남서부 사막 개발 사업으로도 알려져 있다. 과거 파라오가 성과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선택한 땅이었던 아스완은 누비아 예술(Nubia Art)이라고 일컫는 독특한 전통 관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관광, 공업, 농경, 어업 등의 활동이 어우러지는 도시지만 최근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점토, 카펫, 구슬 수공예 등 민속 예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아스완 시는 수공예 인력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발전기금(Social Development Fund)은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수공예 분야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활성화함으로써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6개 지역에서 수공예 생산을 통한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여러 부족들이 각자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아스완에서는 특히 누비아 문화라고 불리는 아스완의 독창적인 전통 문화가 유명하여 각 부



족들이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숙박업, 식당, 수공예 상점 등을 운영한다. 관광업에서는 고대 건축물 관광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중심 생태관광(Ecotourism)의 요소로서 아스완의 전통 마을이 주목받고 있다. 생태관광은 자연 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관광으로, 2005년 아스완 시는 관광산업 컨퍼런스를 통해서 생태관광을 강조하는 ‘아스완 선언’(Aswan Declaration as Community-Based Exotourism City)을 채택한 바 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전통 마을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시범 지역으로 선택된 세헬(Sehel) 마을의 공예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목걸이, 팔찌, 가방 등을 장식하는 구슬 공예, 파라오 시대 스타일의 장식으로 이루어진 여러 생산품과 쓰고 남은 천 조각으로 만든 전통 카펫, 점토를 이용한 도기 등이 있다. 생태관광은 이러한 전통 문화의 보존을 넘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애초 아스완 댐 기술자의 거주지였다가 1912년 박물관으로 탈바꿈한 아스완 박물관(Aswan Museum), 이집트 정부가 아스완 하이 댐 건설로 수몰되는 누비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하여 개관한 누비아 박물관(The Nubia Museum)은 아스완을 대표하는 박물관들이다. 아스완에서 가장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축제는 아부심벨 축제(The Miracle of the sun at Abu Simbel)로, 고대의 문화 행사를 발전시킨 이 축제는 이집트를 강력하게 지배했던 람세스 2세와 누비아 문화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밤에는 신전 밖에서 축제를 즐기고, 아침에는 신전 내부 가장 깊숙한 곳까지 햇살이 비춰지는 신비로운 장면을 구경한다. 국제조각심포지엄 역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가나자와 Kanazawa

지정연도: 2009 홈페이지: www4.city.kanazawa.lg.jp/11001/souzoutoshi/english/index.html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가나자와는 45만 명이 거주하는 일본의 전통 민속공예 도시다. 1583년에 건축된 가나자와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은 물론 대규모 지진 피해도 입지 않은 평화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덕분에 가나자와만의 독특한 사무라이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으며 다양한 민속 공예도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었다. 이곳은 금박공예, 염색기법(카가유젠), 칠기, 도자기 등 22가지 전통 공예의 산실로서 인구대비 전통 예술 및 공예 부문 무형문화재의 수가 일본에서 제일 많다. 이들 공예품은 초기에는 교토 지방의 앞선 디자인 및 기술과 결합된 형태였지만 이후 가나자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어 지금은 교토보다도 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평가받는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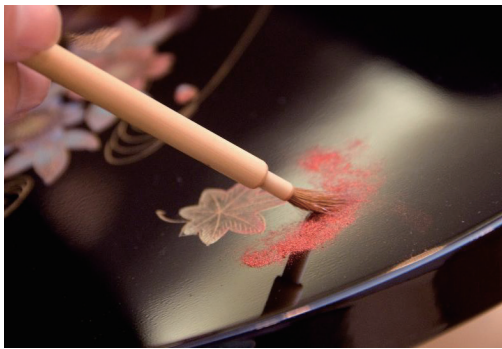
가나자와는 ‘혁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전통은 전통으로서 남아있을 뿐’이라는 신념으로 전통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발생시켜 또 다른 연구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창의 경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런 맥락에서 문화와 산업이 잘 연계되어 있다. 공예품에 대한 가나자와 시민들의 높은 수준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의 투자 덕분에 만들어진 탄력적인 소비 시장은 가나자와의 창의 경제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체계적인 칠기, 염색, 도자기 공예 관련 교육을 위해 1946년 가나자와 예술 대학이 설립되었고, 지역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학 교육이 세계적인 공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89년에 설립된 가나자와 우다츠야마 공예공방(Kanazawa Utatsuyama Craft Workshop)은 교육생들에게 도기, 칠기, 염색에 대한 기술을 3년 정규 과정으로 제공하며, 교육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작업을 위한 스튜디오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졸업생들을 꾸준히 지원한다. 2004년에 문을 연 가나자와의 21세기 현대미술관(The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은 가나자와 민속예술과 현대미술을 융합하려는 시도로 탄생했으며, 1980년부터 생산된 작품을 전시하는 한편 저명한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공개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다.

가나자와 시는 다양한 공예 기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전통 기술과 예술 교육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교육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전문시험을 통과한 교육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카가유젠 염색, 쿠타니 자기, 가나자와 칠기 전문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89년에는 공예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가나자와 공예대회를 구상해 1999년에 가나자와 세계 공예대회(Kanazawa Crafts Competition)로 그 규모를 키웠으며, 2003년부터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가나자와 공예를 새롭게 조망하기 위한 세계 공예 포럼도 개최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기술 혁신 및 제품과 디자인 발전에 기여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가나자와 라이프&패션 위크(Kanazawa Life & Fashion Week)도 기획하고 있다.





에콰도르 초르델렉 Chordeleg

지정연도: 2017 홈페이지: chordeleg.gob.ec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초르델렉은 인구 14,500여 명이 거주하는 에콰도르 남부의 작은 소도시로 귀 금속 세공, 도자기, 신발제조, 토킬라 밀짚공예 등으로 유명하다. 시 경제활동 인구 중 66%가 이들 네 개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장인 중 58%가 여성일 만큼 여성 장인의 비중이 큰 도시이기도 하다. 초르델렉의 공예 지식은 주로 가족과 커뮤니티 안에서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으나, 시 정부는 장인들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지식 전승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칸동가 축제는 초르델렉 공예를 홍보하고 장인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초르델렉 시는 전통공예방식에 관한 지식 전승과 장인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미주 공예 및 대중예술센터(Inter-American Centre for Crafts and Popular Arts)와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장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제작 및 혁신에 관한 기술적 지원과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 당국은 토킬라의 전통적인 직조 전통을 보호하기 위한 에콰도르 정부의 계획을 이행하고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 보호계획은 커뮤니케이션과 홍보활동을 통해 공예 분야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행 과정에서 토킬라 공예장인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공예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한 사업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및 지식센터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으며, 창작과 생산 및 유통 지원을 통해 전통 공예의 디자인 패턴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② 음악 창의도시

이탈리아 볼로냐 Bologna

지정연도: 2006 홈페이지: <http://cittadellamusica.comune.bologna.it/en/>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주도인 볼로냐는 역사와 전통, 문화가 풍부한 도시로 약 3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내에는 유럽 최초로 설립된 볼로냐대학교(Università di Bologna)가 자리하고 있고 대학 내 위치한 역사센터는 유럽에서 역사적 자료가 가장 잘 보존된 곳 중 하나이다. 또한 시립 필름 보관소인 씨네테카(Cineteca)와 볼로냐 현대미술관 ‘맘보(MAMbo: Museum of Modern Art in Bologna)’로 유명하다. 현재 볼로냐 시의회에 등록된 문화 협회만 500여 곳이 넘고, 그 중 122개 협회가 음악 협회이다. 볼로냐에서는 이들 협회를 중심으로 음악에 대한 연구, 교육, 제작, 판매, 행사기획, 공간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음악 산업은 볼로냐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정 음악 축제 및 행사와 연결된 관광 산업 뿐만 아니라 볼로냐 내의 다양한 협회와 사기업들도 이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볼로냐는 안드레아 보첼리(Andrea Bocelli), 파올로 콘테(Paolo Conte) 등 유명 음악가의 녹음실, 매지니먼트 사무소 등을 유치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이탈리아 정부는 복권 수익을 통해 FUS라고 불리는 공연업계만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공연과 연관된 문화적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볼로냐 대학은 최초로 대학 내 예술, 음악 전시 학과 (Department for Art·Music and Show)를 개설했고, 지금까지 약 7,000명의 학생이 이곳에서 수학했다. 특히 볼로냐의 뛰어난 음악적 전통은 음악 학교 아카데미아 필라르모니카(Academia Filarmonica, 1666년), 시립 공연장 테아트로 코뮤날레(Teatro Communale, 1763년), 지비 마르티니 음악원(Giovan Battista Martini Conservatory, 1804년) 등을 중심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모차르트, 로시니, 도니체티, 베르디, 바그너, 레스피기 등의 거장들이 볼로냐에서 활동했다. 볼로냐는 베르디와 바그너를 볼로냐 명예시민으로 위촉, 20세기에 들어서는 명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Riccardo Muti)와 클라우디오 아바도(Claudio Abbado) 등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했다. 또한 볼로냐에는 오늘날에도 전설적인 싱어송 라이터 프란체스코 구치니(Francesco Guccini), 루치오 달라(Lucio Dalla), 세계적인 재즈 연주자 스티브 그로스먼(Steve Grossman), 파올로 프레수(Paolo Fresu)와 같은 음악가들이 거주하고 있다.

볼로냐에서는 음악이 삶이 일부로서 극장, 콘서트홀, 넓은 야외 테라스, 공원 등 도시 곳곳의 공공장소에서 음악회가 펼쳐지곤 한다. 볼로냐의 음악 축제로는 전 세계 각국의 전통 음악인을 초청하는 국제문화축제 (Sunoni dal Mondo, Sounds of the World), 볼로냐 스타일의 락 음악을 선보이는 스칸데렐라 축제 (Scanderella Festival), 클래식 음악 축제인 볼로냐음악제(Bologna Music Festival), 유럽 재즈 축제(European Jazz Festival)이 대표적이다. 1980년 볼로냐 센트럴 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된 국제 작곡 대회 (2 Agosto)도 매년 개최된다.

또한 볼로냐가 소장하고 있는 음악에 관한 방대한 자료도 눈여겨볼만하다. 음악문헌 박물관(Bibliographical City Museum for Music)에는 16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음악 자료들이 보관 되어 있고, 2004년 개관한 국제 음악 박물관 및 도서관 역시 음악과 관련한 그림, 도서, 악기 등 다양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아르키진나시오(Archiginnasio) 도서관은 특히 로시니, 도니체티와 연관된 고서들로 잘 알려져 있다.

플래시뮤지카(Flashmusica)는 21세기의 트렌드에 맞게 시의회가 구상한 웹사이트로 최근 음악계 동향과 젊은 음악가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아마추어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가는 젊은 음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페라라, 레지오 에밀리아, 모데나와 같은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음악 중심 도시와 공동으로 프로젝트(La via Emilia Della musica)를 진행한다. 최고의 음악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도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다.





스페인 세비아 Seville

지정연도: 2006 홈페이지: icas.sevilla.org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세비아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행정 수도로, 7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고대부터 세비아는 음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이었고 유럽 음악의 발상지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플라멩코의 본고장인 세비아는 많은 음악가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이 도시를 모태로 하는 오페라, 교향곡, 그리고 파소 도블레와 판당고와 같은 춤곡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1960년대에는 축제 기간에 주로 연주되는 레 세비야나스(les sevillanas)라는 장르가 로스 에르마노스 토롱호(Los Hermanos Toronjo), 로스 에르마노스 레예스(Los Hermanos Reyes) 등 연주자들의 활약에 힘입어 스페인 전역에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플라멩코와 유사한 팝록(Pop-rock) 장르도 1970년부터 발전했으며 트리아나(Triana), 알라메다(Alameda) 등의 밴드는 스페인의 민주화 이행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많은 인기를 누렸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세비야는 악기 제작과 판매의 중심지다. 널리 알려진 스페인 기타는 세비야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는 악기이며 이 밖에도 지터, 트럼펫, 플룻, 루트 등 다양한 악기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세비야에는 약 33개의 악기상과 16개의 음반제작사가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비야 플라멩코 비엔날레(La Bienal de Flamenco)에는 세계 최고의 플라멩코 음악가와 무용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플라멩코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도 축제를 펼치고 있으며, 캐나다, 러시아, 일본, 중국 등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명한 오페라인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돈 지오반니’, ‘카르멘’ 등이 세비야를 무대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도시로서 시 전체의 거리, 공장, 강변 등이 모두 관광지로 가치가 크다. 에르네스토 할프터(Ernesto Halffter), 호아퀸 투리나(Joaquin Turina), 마누엘 카스티요(Manuel Castillo), 후안 로드리게스 로메로(Juan Rodriguez Romero), 알베르토 알바레즈 카레로(Alberto Alvarez Carrero) 등 세비야 출신이거나 세비야에서 활동했던 클래식 음악가도 많으며, 최근에는 연극이나 영화와 연계한 실내악단과 교향악단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세비야에는 4개의 극장, 5개의 오케스트라, 3개의 대학, 6개의 음악학교가 있다. 음악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은 콘세르바토리오(Conservatorio)라고 불리는 음악학교에서 주관한다. 1933년에 설립된 세비야 국립음악학교(Conservatorio de Sevilla Centro Estatal)가 유명하며, 세비야 고급음악학교(Conservatorio Superior de Musica de Sevilla)는 세비야 출신 유명 작곡가인 마누엘 카스티요의 이름을 따서 콘세르바토리오 수삐리오르 데 무시카 마누엘 가스띠요(Conservatorio Superior de Musica Manuel Castillo)로 개칭된 바 있다.



1980년대부터 세비야는 음악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기관과 극장 간 연계를 통해 음악가 및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극장이나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마련해 세비야의 문화 진흥과 어린이 음악 교육 서비스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창립자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었다. 세비야대학은 교육학과를 개설하여 젊은 관객들과 소통하는 전략을 가르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대상 음악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음악 전문가들이 학교 내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장을 열었다.

세비야의 대표적인 교향악단인 레알 오르케스트라 시포니카 데 세비야(The Real Orquesta Sinfonica de Sevilla)는 스페인 전국 투어 및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서 전 세계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현악과 실내악, 고전음악과 더불어 현대음악, 재즈, 월드뮤직, 팝록, 플라멩코, 오페라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축제도 매년 열리고 있다. 한편, 2004년에 설립돼 세비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바렌보임-사이드 재단(La Fundación Barenboim-Said)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음악 교류를 통해 분쟁 해소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영국 글래스고 Glasgow

지정연도: 2008 홈페이지: www.glasgowcityofmusic.com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글래스고는 음악 교육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음악의 중심지로 음악 고등교육기관이 밀집한 지역이자 스코틀랜드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다. 음악 산업을 이끌어 가는 스코틀랜드의 6개 대기업 중 5개 기업이 글래스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영국 전체의 음악 산업 종사자 중에서 반 이상이 글래스고에서 일한다. 매주 약 130여 개의 음악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음악은 글래스고 시민의 정체성과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활기찬 음악 산업과 더불어 글래스고는 수많은 유명 음악가와 관련 전문가들을 배출해 왔다. 글래스고 시의회도 2016-2023년 글래스고 경제전략에서 음악산업을 새로운 관광 전략의 6개 핵심 주제 중 하나로 강조한 바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글래스고에서 연중 열리는 음악 관련 행사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켈틱 커넥션즈(Celtic Connections)는 겨울철 음악 축제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포크 및 월드 뮤직 부문의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참여해 열리는 3주간의 행사 기간 동안에는 약 10만 명이 글래스고를 찾는다. 주목받는 신인 밴드와 싱어송 라이터 등이 무대를 꾸미는 힌터랜드 축제(Hinterland Festival)도 유명하다.



지하철에서 카니발, 라이브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하철 축제(SPT Subway Festival)라는 독특한 축제도 있으며, 재즈와 블루스, 포크, 소울뮤직,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경험할 수 있는 글래스고 국제 재즈 축제(Glasgow International Jazz Festival)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파이프 연주자들이 모여드는 클랜스 음악 축제(Piping Live! Music of Clans), 1948년부터 개최된 국제 파이프 밴드 경연(World Pipe Band Championships) 등 스코틀랜드 전통 음악과 춤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 축제도 있다.

지난 30년 동안 글래스고 시의회와 시민, 기업체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한 덕분에 글래스고 곳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악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공연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1,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ABC는 팝이나 록 공연뿐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나이트클럽으로 활용되며, 아치(The Arches)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찾는 이들에게 아담한 공간을 제공한다. 기존 무도회장을 개조해 만든 배로우랜즈(Barrowlands)에서는 R.E.M, INXS, 저스틴 팀버레이크, U2 등 세계적인 팝과 록 음악가들이 공연했다. 영국관을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킨 오투 아카데미(O2 Academy)에서는 슈가베이비스, 매시브 어택, 화이트 스트라이프 등이 공연했으며, 이외에도 시청, 구 과일시장, 로얄 콘서트홀, 햄튼 공원, 파빌리온 극장, 로얄 극장 등이 유명한 공연 장소다. 언제나 공연이 펼쳐지는 도시 곳곳의 작은 펍과 클럽도 빼놓을 수 없다.



콜롬비아 보고타 Bogota

지정연도: 2012 홈페이지: www.culturarecreacionydeporte.gov.co/index.php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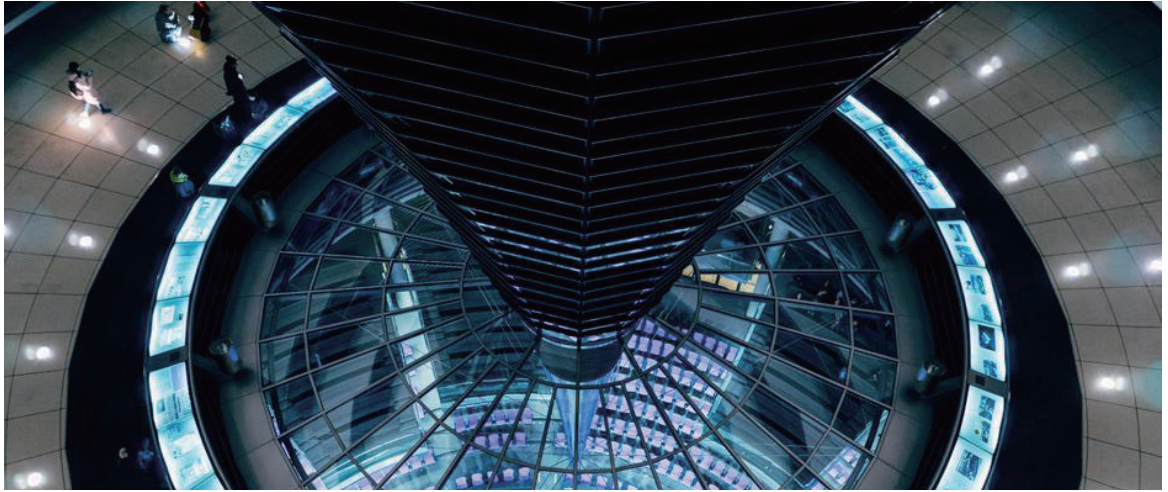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음악 제작 및 활동의 중심지로 인정받는 보고타는 음악 분야에서 역동적이며 빠른 성장을 자랑하는 도시로, 음악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전음악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연예술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문화공간이 풍부하다는 점, 축제부터 음악계 전문가의 국제 비즈니스 회의까지 다양한 행사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보고타는 고전음악부터 록과 힙합 등 현대적 장르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음악의 결이 숨쉬는 도시다. 콜롬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인 보고타 교향악단(The Bogotá Philharmonic)은 매년 100명이 넘는 음악가들과 함께 약 140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다. 보고타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극장은 1892년 건설된 크리스토팔 콜론 극장(The Cristobal Colon Theater)으로, 이 극장은 콜롬비아 국립 심포니 협회의 주 활동지로 다양한 음악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1995년부터 보고타에서 매년 개최되는 ‘공원에서의 록’(Rock at the Park) 행사는 도시의 음악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요소다. 매년 32만 명 이상의 팬들이 모여 3일간 약 60개의 밴드 공연을 무료로 즐기는 이 행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야외 록 행사로 손꼽힌다. 이 행사의 성공에 힘입어 보고타시는 ‘공원에서의 힙합’ 등과 같은 다수의 음악 관련 축제들을 기획·개최했으며, 이외에도 시민들이 음악을 보다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음악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데 필요한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3 디자인 창의도시

독일 베를린 Berlin

지정연도: 2005 홈페이지: www.creative-city-berlin.de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베를린은 디자인 분야에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이룩한 도시다. 역동적인 역사의 현장으로서 이곳의 디자인 전통과 현대의 창의성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고, 디자인 산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베를린은 각종 디자인 정책과 교육 과정, 네트워킹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디자인 도시인 베를린에서는 현재 19만 5,000명 이상이 창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베를린 전체 근로자의 10%에 해당한다. 창의산업 분야에 속한 3만여 개 회사들은 연간 180억 유로를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¹¹ 베를린은 세계적인 훈련 기관과 혁신적인 박람회 및 축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 등 창의적인 기업과 디자인 회사들에 우수한 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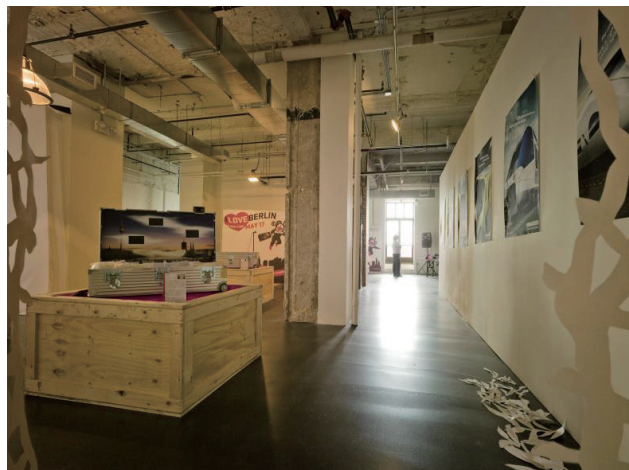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베를린에는 다섯 개의 예술대학을 비롯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수많은 민간교육기관들이 있으며, 이들은 세계 각국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교환프로그램 및 공동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를린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5천 명이 넘는 학생 중 상당수는 학업을 마친 뒤에도 베를린에 계속 남아 잠재력을 펼친다.

11. Tanja Muhlans, 2016,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 Monitoring Report 2008-2016, Berlin, Senate for Economics Technology and Research, p.4

베를린에서는 1,500여 개의 문화 행사가 열린다. 개방적인 분위기는 국제적인 수준의 행사를 개최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디자인 분야와 마케팅에 대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행사는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 축제, 타이포 베를린 컨퍼런스(Typo Berlin Conference), 디자인마이 컨퍼런스(DesignMai Conference) 등을 비롯해 수많은 학술 행사와 패션 위크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크리에이트 베를린 네트워크(Create Berlin Network), 디자인마이 청년 네트워크(Design Mai Youngsters Network), 국제 디자인 센터 베를린(International Design Center Berlin) 등을 중심으로 디자인 및 패션 분야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잘 구축돼 있다.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베어크분트아치베(Werkbundarchive), 바우하우스 아치베(the Bauhaus Archive), 브로한 무제움(Brohan Museum) 등 여러 전시관과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인테리어, 패션 디자인 상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시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지원을 통해 베를린 전체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베를린 투자 은행을 중심으로 한 소액 용자와 창업가들 및 젊은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용자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

지정연도: 2005 홈페이지: www.buenosaires.gob.ar/cmd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다문화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도시로, 현재 1,300만 명 이상의 인구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디자인 분야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특유의 다문화 인구를 바탕으로 창출되는 혁신적인 디자인은 역내 다른 어떤 도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활력 넘치는 문화 에너지 덕분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창의성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창의산업 분야는 2004년과 2012년 사이에 89.1% 성장했고, 오늘날 도시 GDP의 8.6%, 도시 노동력의 9.1%를 차지하며 거의 15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제개발부는 지역 개발 정책을 통해 창의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 내 창의산업 설립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교통 및 기반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시민들의 여가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도시의 디자인 산업과 서비스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디자인 집약적인 제조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2014년에 디자인 지구를 조성했다. 광역시디자인센터는 디자인 지구 중심부에 설치된 디자인 산업 관련 기관으로 민간 및 공공부문 디자인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창의산업 부문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라틴아메리카의 디자인 메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센터는 국제 디자인 축제 개최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패션, 건축, 산업, 인테리어, 도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함으로써 디자인 분야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오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과 팔레르모대학, 벨그라노대학 등에는 디자인 정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에는 6개 디자인 관련 학과(산업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의상디자인, 이미지와 사운드 디자인, 조경디자인, 건축)에서 3만 5천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도시 내의 건축박물관, 라틴아메리카예술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는 바프위크(Bafweek), 모다바(Modaba), 까사 FOA(Casa FOA), 뵤레미오 인노바르(Premio Innovar) 등 디자인 관련 전시회가 연중 개최된다. 페어 뿌로 디세뇨(Fair Puro Diseño)에는 300여 개 부스에 8만 명이 방문한 바 있으며, 에스빠시오 엘 도레고(Espacio El Dorrego)에서는 350여 명의 디자이너가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04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도시 디자인을 위한 전국적인 콘테스트가 개최된 바 있는데, 시는 여기서 당선된 작품을 바탕으로 도시를 새롭

게 디자인했다. 푸에르토 마데로(Puerto Madero) 지역의 건축물은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며, 이어서 도시의 남쪽에 위치한 파르케 파트리시오스(Parque Patricios) 기술 지구와 바라카스(Barracas) 디자인 지구에서도 디자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또한 팔레르모(Palermo), 리콜레타(Recoleta), 산 텔모(San Telmo) 지역은 디자인 지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 Montreal

지정연도: 2006 홈페이지: <http://mtlunescodesign.com/en/>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인종이 다양하고 언어 유산이 풍부한 몬트리올은 문화적·경제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몬트리올은 일찌감치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뿐 아니라 북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시 정부 수준의 디자인 담당 부서 및 담당관을 두고 디자인 발전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012년 기준 몬트리올 창의산업분야의 경제적 영향력은 약 8.6억 캐나다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몬트리올 지역 GDP의 4.9%에 해당한다. 창의산업분야는 약 9만 1,500개의 직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약 3만 6천 개의 직업 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¹² 한편, 디자인 분야는 문화 산업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퀘벡 주 디자이너의 약 65%가 몬트리올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2. Marie-Josée Lacroix, 2016, 2012-2015 Report / Montreal UNESCO City of Design, Montreal, Bureau of Design, Appendix5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퀘벡 주 정부를 비롯한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의 협력하에 ‘상업 디자인 몬트리올’(Commerce Design Montréal)이라는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며 이를 통해 퀘벡 내 20개 디자인 및 건축 담당 서비스 사업체들을 선정,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몬트리올 패션 위크(Montréal Fashion Week)는 퀘벡의 디자이너들이 바이어 및 홍보담당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패션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디자인 몬트리올 오픈 하우스’(Design Montréal Open House)를 매년 개최, 디자인과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관련 분야 국제대회 수상 경력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몬트리올 시는 2005년에 ‘디자인도시’ 액션플랜을 수립했는데, 이는 디자인 혁신에 대한 개념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고 그에 따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며, 나아가 몬트리올의 디자인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확대시키려는 계획이다.

몬트리올에는 20여 개가 넘는 대학 수준의 저명한 교육기관, 4개의 대학, 30여 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다. 이들 중 디자인 전공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은 콩코디아대학의 디자인 예술학과, 산업 디자인학교, 몬트리올대학의 건축과 디자인학교, 맥길대학의 도시개발전공학과 등이다. 2005년부터 국제디자인연맹(International Design Alliance)의 본부가 몬트리올로 자리를 옮긴 것도 몬트리올이 세계 디자인 업계에서 갖는 위치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 선전 Shenzhen

지정연도: 2008 홈페이지: www.designcities.net/city/shenzhen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지도자인 덩샤오핑이 구상한 도시로 중국 남부에 홍콩과 인접해 있다. 인구 30만 명의 도시였던 선전은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고, 2017년 기준으로 인구가 2,500만 명에 달한다. 선전은 개혁·개방의 선도 도시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모델로 수출 중심 경제를 발전시켰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최고의 효율성을 지속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선전에는 6천 개 이상의 디자인 회사가 있으며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약 110억 위안(15억 4천만 달러)에 달

한다. 선전의 디자이너들은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인테리어와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완구디자인, 보석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선전은 중국 최대의 여성복 생산 거점이기도 하며 3만 명 이상의 디자이너들이 800개 이상의 중국 패션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혁신 역량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선전은 첨단 산업을 위한 중국의 종합 거점 중 하나이자 지적재산권 개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곳의 기업들은 매년 약 4만 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혁신적인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선전 인구의 대부분은 다른 지방에서 유입되었다. 시민 평균 연령은 약 30세이며 중국 박사학위 인력의 1/6 정도가 선전에 있다.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구조가 갖추어져 있고,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이 많아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실패에도 너그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동서양 문화, 전통과 현대 문화, 내륙과 해안 지방의 문화가 교차하는 장소로서 선전은 문화적 개방성, 관용, 창의성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잠재력이 있다.

2003년에는 문화기반도시(Culture-based city) 전략의 일환으로 선전을 문화적 생태적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문화 경제의 원칙을 수립했다. 디자인 역시 시민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지역 주민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창의 12월’(Creative December)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디자인 경연을 시행한다. 1980년 이후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선전의 기업들은 제품의 질과 디자인 기술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현대 디자인 철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외국의 세련된 디자인을 제품에 적용하여 디자인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고, 선전 디자이너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기도 했다. 중국의 현대 디자인이 선전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선전 시 디자인진흥협회는 전 세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에서 디자인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도시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35세 미만의 디자이너를 발굴, 이들에게 ‘선전 젊은 디자이너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은 다양한 국가의 젊은 인재들 간의 교류를 장려하고 창의도시들 간 협력을 촉진하며, 창의산업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험과 아이디어 공유를 장려한다. 이 밖에도 선전시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래픽 디자인 행사 중 하나인 중국 그래픽 디자인 비엔날레를 매년 개최한다.



4
문학
 창의도시

영국 에든버러 Edinburgh

지정연도: 2004 홈페이지: www.cityofliterature.com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는 약 50만 명이 거주하는 활력 있는 도시다. 코난 도일(셜록 홈즈), 월터 스콧(아이반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보물섬, 지킬 박사 와 하이드) 등 문학사에 획을 그은 역작을 남긴 작가들의 고향이며, 오늘날에는 이언 란킨, 어빙 월쉬, 그리고 해리포터의 작가인 J.K.롤링이 에든버러를 주 무대로 삼아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015년에 실시된 에든버러 축제의 영향력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에든버러 축제가 여전히 스코틀랜드의 대표적 문화 브랜드로 평가되었으며 45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 모으면서 월드컵과 함께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행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에든버러는 에든버러 국제 도서 축제를 포함하여 에든버러 축제의 성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10개년 전략을 수립했으며, 에든버러의 문학 관련 조직을 대표하는 ‘문학도시 신탁’에 참여하면서 ‘에든버러 2020 관광전략’을 수립하고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2020년까지 에든버러 방문객 수를 연간 327만 명에서 439만 명으로 약 30퍼센트 늘리고, 2020년까지 연간 4억8천5백만 파운드의 수입을 추가로 거둬들이고, 10월부터 3월까지 방문객 수를 50퍼센트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이다.¹³

13. Ali Bowden, 2017,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Monitoring Report - Edinburgh UNESCO City of Literature, Edinburgh, Edinburgh UNESCO City of Literature Trust, p25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소설, 시, 평론 등 다채로운 문학 장르를 대표하는 작가 중 40명 이상이 에든버러 출신일 만큼 이 도시는 문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미 문학을 빛내는 간판급 작가들과의 인연을 통해 문학적인 유산이 꾸준히 축적되었으며, 이는 1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문학 관련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1508년 스코틀랜드 지역 최초의 책이 인쇄되었던 도시로서 에든버러는 출판산업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억을 제공하는 도시다. 캐닝게이트 등 50여 개의 출판사를 중심으로 발달한 출판산업은 에든버러의 소중한 자산을 계승하는 동력으로서 탄탄한 매출과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문학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에든버러 국제도서축제(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 스코틀랜드 국제 스토리텔링 축제(Scotland International Storytelling Festival), 맨 부커 국제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서 에든버러는 문학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도서축제는 저자와의 만남, 패널 토론, 책 사인회 등을 포함한 수백여 개의 다채로운 이벤트를 제공하며 세계 제일의 도서 축제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스코틀랜드 최초의 출판사와 도서관 등이 자리 잡은 구 시가지, 세계에서 12번째로 규모가 큰 스코틀랜드 국립 도서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최초로 발간되었던 에든버러대학 도서관이 있는 문학 구역(Literature Quarter) 등도 문학 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호주 멜버른 Melbourne

지정연도: 2008 홈페이지: cityofliterature.com.au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멜버른은 남동부 빅토리아 주의 주도이자 상업 중심지이며, 호주의 문화적인 수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다양하고 활발한 문학 창작 활동의 중심지이며, 견고한 출판 환경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활동은 멜버른의 문학가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토착 및 이주문화 역시 멜버른이 호주의 문화 및 문학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멜버른에 있는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출판사들 중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은 가장 규모가 크고 상업적 성공을 이룩한 출판사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텍스트 퍼블리싱(Text Publishing), 블랭크(Blank Inc) 등의 출판사들이 멜버른의 문학적 정체성을 풍성하게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호주 전체 서점의 1/3이 빅토리아 주에 있으며, 호주의 도서 판매상의 41%는 멜버른을 터전으로 삼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호주 전체의 문학 작가 중 1/3에 해당하는 약 1,300여 명이 멜버른에 거주하며, 글쓰기를 취미로 즐기는 시민이 무려 97,600여 명에 이른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독서동호회 중 멜버른의 아이반호 독서클럽(Ivanhoe Reading Circle)은 192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 온 호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독서클럽이다. 멜버른에 위치한 주립 도서관은 연간 250만 명이 5천만 권의 도서를 대여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도서관 내에 있는 호주 최초의 도서, 저술 및 아이디어 센터는 작가와 소규모 문학 기관, 독립 출판사, 저널리스트에게 거처를 제공한다. 2009년 9월부터는 매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축제, 세계적인 명사들의 강연 등으로 구성된 공공 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를 대표하는 19세기 소설가인 토머스 브라운과 마커스 클라크는 멜버른에서 거주하며 활동했다. 멜버른 출신의 가장 유명한 초기 시인은 CJ 데니스이나, 가장 널리 알려진 작가는 두 번이나 부커상을 수상한 피터 카레이일 것이다. 멜버른 태생으로 줄곧 멜버른에서 활동한 카레이일은 빅토리아 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썼다.

매년 8월부터 열흘간 개최되는 멜버른 작가 축제(Melbourne Writers' Festival)는 4만 명의 관객이 몰려드는 멜버른의 대표적 문학 축제로 세계 각지에서 온 작가와 독자들이 모여 포럼과 책 출간 행사, 토론회 등에 참가한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신진 작가 축제(Emerging Writers' Festival)는 전도유망한 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작가, 편집자, 출판사, 독자 및 기타 관계자들을 초대한다. 오버로드 운문 축제(Overload Poetry Festival)는 전 세계 각 지역 출신의 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마련하며, 2007년에는 호주 운문 센터(Australian Poetry Center)도 개관했다.



미국 아이오와시티 Iowa City

지정연도: 2008 홈페이지: cityofliteratureusa.org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약 6만 1천 명이 거주하는 아이오와 시티는 아이오와 주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로 ‘중서부의 아테네’라 불릴 정도로 미국 문학계와 지성 사회에서 문학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다. 1955년부터 아이오와대학(University of Iowa)은 25명의 풀리처 문학부문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아이오와 시티와 인연이 있는 작가로는 로버트 로웰, 플래너리 오코너, 존 어빙 등이 있으며, 아이오와대학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문학 교육 과정은 높은 명성을 자랑한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아이오와 시티의 중심지인 존슨 카운티는 전체 근로자 중 30%가 창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만큼 창의산업 비중이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가 탄탄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이오와 시티의 창의산업 분야 근로자들은 매년 169억 달러(한화 약 19조 원)를 벌어들이고 그 중 86억 달러(한화 9조 5천억 원)를 아이오와 시티 내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지출하여 도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아이오와대학은 세계 최초로 문예창작 분야에 예술학 석사(MFA, Master of Fine Arts) 과정을 개설했다. 이 과정은 미국 및 전 세계 300여 개의 대학으로 퍼져나감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와 창작에 있어서 큰 공헌을 했다. 아이오와대



학은 창작 글쓰기 외에도 번역, 희곡, 논픽션 글쓰기 워크숍, 하계 글쓰기 축제, 젊은 작가들의 모임,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과정을 제공한다. 120 개 국가에서 온 1,200여 명의 작가들이 아이오와대학 국제 글쓰기 프로그램 (International Writing Program)을 거쳐 갔으며, 베시 헤드, 베이 다오, 존 밴빌, 루이자 발렌주엘라, 노벨상 수상자인 오르한 파묵 등도 미 국무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11개 출판사들은 번역서, 어학, 온·오프라인 잡지, 문학 블로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극찬받고 있는 책을 위한 센터’(Center for the Book)는 지속적으로 출판 기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오와대학의 연구 도서관은 미국에서 18번째로 큰 규모로 특별 문학 전집과 수십만 권의 희귀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학 관련 전시회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문학 기관들이 연간 180여 개의 행사를 후원하며, 세계적인 문학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픽션 나우 회의(Nonfiction Now Conference)가 아이오와대학의 논픽션 글쓰기 프로그램(UI Nonfiction Writing Program)의 일환으로 2년마다 열린다.



아일랜드 더블린Dublin

지정연도: 2010 홈페이지: www.dublincityofliterature.ie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더블린은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수도로서 창의성과 재능 있는 작가들을 수없이 배출한 도시다. 제임스 조이스, 조나단 스위프트, 오스카 와일드뿐 아니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 사무엘 베케트, 윌리엄 예이츠, 셰이머스 히니가 더블린 태생이다. 더블린의 오랜 문학적 전통과 창의성은 매켄 칼럼, 로디 도일, 세바스천 베리 등 현대의 쟁쟁한 작가들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의 뛰어난 작품으로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문화 관광 산업은 더블린 경제의 핵심이다.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더블린의 힘은 바로 문학 그 자체에서 나온다. 더블린 시는 다양한 도서 행사를 통해 더블린에서 출판된 도서들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도서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출판업 및 도서 수출 산업도 활발하여 더블린의 출판사 및 서점은 아일랜드 전체 출판업 인원의 96% 수준인 약 57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업계 전체 매출의 82%(8천 7백만 파운드, 한화 1500억 원)를 차지한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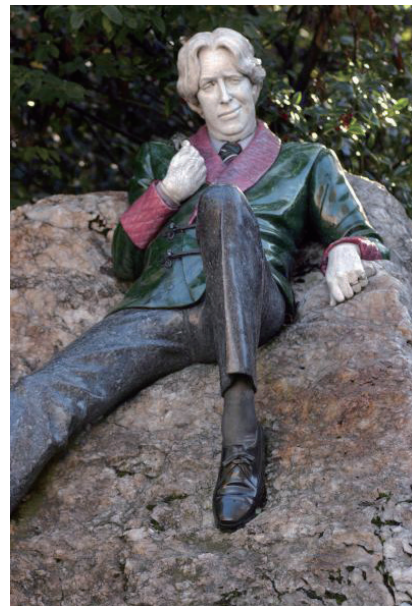
오랜 문학적 전통과 유명한 작가들과의 인연은 더블린의 가장 큰 문화 자산이다. 문호들을 기념하기 위해 더블린은 1991년 유럽 최초의 작가박물관을 건립했다. 이외에도 더블린에는 아일랜드 국립도서관, 체스터 비티 도서관(예술 도서관), 마쉬 도서관(가장 오래된 공립도서관), 더블린 작가 박물관, 제임스 조이스 박물관, 트리니티 대학에 비치된 켈스의 저서(The Book of Kells) 등 문학 관련 관광지가 즐비하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너선 스위프트가 사제로 재직했던 성당, 유명 작가들이 차를 마시곤 했던 카페, 극작가 손 오캐시가 세례를 받았고 맥주회사 기네스의 창립자인 아서 기네스가 결혼했던 성 패트릭 성당(현재는 레스토랑)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각종 축제, 여름학교, 독서 프로그램, 걷기 등 행사가 연중 끊이지 않고 마련되어 과거의 영광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매년 더블린 작가 축제(Dublin Writers' Festival)와 더블린 도서 축제(Dublin Book Festival)가 열리고, 시민 전체가 한 권의 책을 읽는 '원 시티, 원 북'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함께 작품 속 더블린의 이야기를 축제로 풀어낸다. 이 밖에도 블룸즈데이(Bloomsday,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의 배경이 되는 날을 기념), 아일랜드 문학 축제(Irish language literature festival) 등 다양한 행사들이 더블린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더블린이 주최하는 국제 임팩 더블린 문학상(International IMPAC Dublin Literary Award)은 한 작품에 주어지는 상금이 가장 많은 문학상으로 유명하다.

문학 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더블린은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도시다. 헨델의 메시아가 1742년 초연된 장소도 더블린이었으며, 더블린의 게이트 극장(Gate Theatre)은 영화배우 오손 웰즈와 제임스 메이슨이 활동을 시작한 곳이다. 1907년 당시 큰 화제가 되었던 존 말링턴 씽의 작품 '서쪽나라에서 온 플레이보이'(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 역시 더블

린에서 초연됐다.(International IMPAC Dublin Literary Award)은 한 작품에 주어지는 상금이 가장 많은 문학상으로 유명하다.

문학 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더블린은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도시이다. 헨델의 메시아가 1742년 더블린에서 초연되었던 장소도 바로 더블린이었으며, 영화배우 오손 웰즈와 제임스 메이슨이 활동을 시작한 곳이 더블린의 게이트 극장(Gate Theatre)이다. 1907년 당시 큰 화제가 되었던 존 말링턴 씽의 작품 '서쪽나라에서 온 플레이보이(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 역시 더블린에서 초연되기도 했다.





5
음식
창의도시

콜롬비아 포파얀 Popayán

지정연도: 2005 홈페이지: www.popayan.gov.co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콜롬비아 카우카 주의 주도인 포파얀은 여러 세기에 걸쳐 미식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도시로서 독창적인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수많은 세대를 거쳐 구전된 포파얀의 유서깊은 음식 문화는 최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책으로 출간됐다. 포파얀과 그 주변 지역은 지형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혜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 야채, 옥수수, 감자, 사탕수수 등의 풍성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전통 요리가 발달했다. 유럽에서 전해진 양파, 브로콜리, 박하, 시금치, 양배추 등도 생산된다. 전통적인 대학도시로서 포파얀의 일반 가정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식품관련업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식업의 전통이 150년에 이른다. 포파얀의 산업은 요식관련업체, 가구 및 식기 제작, 요리책 출간 등 식문화와 연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포파얀 음식 박람회 개최 이후 콜롬비아 남서부의 가장 대표적인 미식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포파얀의 다양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수백 년간의 요리 전통이 이어지면서 스프, 빵, 소스, 파이, 토르티야, 디저트, 음료수, 샐러드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요리가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요리로는 야생 사탕수수 줄기 속으로 만든 출킨네스, 토르티야 스프, 옥수수빵, 부침개류 등을 꼽을 수 있다.

포파얀에서는 어디에서나 카우카(Cauca) 주의 대표적인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전문 식당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가정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정식 요리도 경험할 수 있다. 포파얀에 있는 4개의 큰 시장(블리바르, 라 에스메랄다, 라 트레세, 라스 팔라스)이 다양한 식재료 및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포파얀에는 다양한 요리 전통을 알리는 도서관, 자료실, 협회, 연구 센터 등이 있으며, 국립교육청은 요리 기술자와 식당 종업원 양성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카우카대학은 포파얀 음식문화협회와 공동으로 인류학대에 음식문화유산에 관한 연구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전공자들에게 필요한 연구 방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포파얀 미식협회(Gastronomic Corporation of Popayan)는 포파얀 전국 미식회의를 주관하는 한편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3년 창설된 포파얀 음식문화협회는 매년 요리, 미식, 언론, 역사,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파얀 음식 박람회를 연다. 이 박람회는 페루, 베네수엘라, 멕시코, 아르헨티나도 대표단을 파견하는 권위 있는 식문화 행사로 자리잡아 학술적인 면에서도 수준 높은 행사로 인정받고 있다. 포파얀 음식문화협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음식 관련 분야와 요식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지역 식당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포파얀, 푸에블라, 리마로 구성된 라틴아메리카 음식문화네트워크(the Gastronomic Cities Network of Latin-America)는 라틴 아메리카 음식문화전통을 함께 연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화전통을 함께 연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중국 청두 Chengdu

지정연도: 2010 홈페이지: creativegastronomy.com/ccn/project/chengdu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쓰촨 지방의 수도인 청두는 중국 남동쪽 지방의 과학기술, 무역,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약 1,100만 명이 거주한다. 중국에서 2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시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유지해 온 유일한 도시로, 중국 8대 요리 중 하나로 꼽히는 쓰촨요리(사천요리)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풍요의 땅이자 미식의 도시’로도 불리는 청두의 식음료업계는 매우 개방되어 있어서 쓰촨요리 이외에 광저우, 산둥, 화이양 등 다양한 종류의 중화요리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태국 등지의 요리를 선보이는 업체들도 많다. 청두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식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각 지역 음식의 특징을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식과 관련한 창의성과 혁신의 역사도 깊다. 수해와 가뭄을 방지하는 최초의 관개 시스템이었던 두장옌 수리 시설을 비롯하여 중국 최초의 전문 요리사, 최초의 양조공장, 최초의 요리 박물관 등이 청두의 혁신적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청두에서는 6만 개 이상의 식당과 2,300명 이상의 요리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케이터링업은 청두의 서비스 사업분야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약 6만 2,500개의 케이터링 업체에서 약 25만 명 가량이 활동하고 있다. 요식업을 중심으로 한 청두의 서비스 부문은 2017년 상반기에 약 500억 달러(3359억 위안)의 매출을 올려 청두 GDP의 55%를 차지한 바 있다. 제13차 서비스산업 5개년 계획(2016-2020)에 따르면, 청두 시는 2020년까지 이 숫자를 1조 위안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¹⁴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쓰촨성 지역은 식자재가 매우 풍부하다. 덕분에 5가지 맛을 기본으로 다양한 종류의 풍미를 선보이는 6천여 종의 쓰촨요리가 만들어졌다. 중국 무형문화유산축제 개최 도시이기도 한 청두에서는 춘절부터 시작하여 일 년 내내 도심 및 교외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와 음식 경연 및 전통요리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2004년부터 시작된 중국 국제요리&관광 축제(China International (Chengdu) Cuisine & Tour Festival)는 수십 개국의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중요한 행사로, 청두의 풍부한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청두 쓰촨요리박물관(Chengdu Sichuan Cuisine Museum)은 중국 최초로 설립된 지역 요리 박물관으로, 1만 2천 평방미터 규모의 박물관에서는 전국시대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3천여 점이 넘는 전시 물품 및 쓰촨 요리와 관련된 그릇과 책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쓰촨요리 산업본부는 가공 및 유통, 서비스 교육, 체인점 본부 등으로 특화되어 있다. 요리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중국 내 유일한 정규 대학 과정인 쓰촨 요리학교에서는 7천여 명의 중국 학생과 유학생들이 쓰촨 요리의 발전과 연구, 정체성 등을 공부하고 있다.





스웨덴 오스터순드 Östersund

지정연도: 2010 홈페이지: www.ostersund.se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스웨덴 잠프란드(Jämtland) 주의 주도인 오스터순드는 1786년에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어진 도시로 현재 5만 9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발틱해의 스톡홀름과 대서양의 트론헤임(노르웨이) 등 해양 도시들 틈에 스토르시윈 호수(Lake Storsjön)를 끼고 자리잡은 이 도시는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 등의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음식 전통에 반영해 오고 있다. 잠프란드 지역은 전통적인 방식의 소규모 생산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어 스웨덴 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관련 기업체 수가 많다. ‘스마크리켓 잠프란드’는 지역의 질 좋은 식료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식당과 상점에 고품질의 식재료와 요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잠프란드 지역의 요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오스터순드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예로부터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신선한 유기농 원재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은 순록과 무스로부터 얻은 육류, 야생에서 채집한 산딸기와 버섯, 염소와 젖소의 우유로 만든 치즈로 생계를 유지했고, 이렇게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얻어진 갖가지 재료를 바탕으로 고유한 미식 문화를 발전시켰다.

오스터순드에는 스웨덴 국립 영세 식품 가공 장인 센터(Eldrimner), 미식 관광 홍보 기관(Jämtland/Härjedalen Turism), 지역 요리, 생산자, 농업 종사자, 식당, 학생들을 지원하는 잼트란드 요리 아카데미(The Food academy of Jämtland) 등 다양한 기관이 있으며, 소규모 음식 생산에 초점을 맞춘 연례포럼(Særimner)도 개최되고 있다.

2011년 스웨덴의 요리 수도로 채택된 이후 오스터순드는 식재료 생산, 식당 운영, 관광 등 분야별로 미식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질 좋고 깨끗하며 체계적인 식품 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잼트란드 슬로우 푸드’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천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오스터순드의 겨울 시장에서도 지역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이 시장은 스웨덴에서 열리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며 매년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불러 모은다. 스웨덴의 가장 큰 길거리 음악 축제 또한 오스터순드에서 열린다.

오스터순드 시는 잼트란드 지역의 발전과 미식 관광 도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요리 장인들을 위한 워크숍, 연구/조사, 상품 개발, 교환 프로그램 등 미식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 정부는 사업 안내, 지원 및 교육, 품질향상 등 다방면으로 요식사업자들과 농업종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 파르마 Parma

지정연도: 2015 홈페이지: www.parmacityofgastronomy.it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인구 19만 명의 파르마는 ‘이탈리아 푸드 벨리’의 중심지로 노동 인구의 30.5%가 농식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식품 산업 부문은 파르마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자 도시 역사의 중요한 축이며, 파르마의 식재료 생산과 요식업에 대한 비전은 본질적으로 지역 생산과 도시-농촌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파르마 시 농업 기업가들이 운영하는 시장인 ‘더 코트’(The Court)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직거래와 간소화된 유통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파르마 시의 식품생산 및 요식업 관련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르마 시는 계절상품과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 상품이 생물다양성은 물론 환경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파르마는 지난 20년간 국제 농식품 분야 기업 관계자, 연구자, 요식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식품박람회(International Food Fair Cibus)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 관련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외에도 식품 생산 공정의 지속가능성, 효율성 및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식품산업을 위한 신기술을 선보이는 다양한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파르마 시는 식품과학 및 관련 연구활동을 통해 음식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식량생산과 요식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주도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창의산업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정부는 미식도시로서의 브랜딩을 위한 홍보 마케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곳을 이탈리아 예술과 음악을 미식 경험과 연계하여 하나의 종합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Tasting Parma





6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프랑스 리옹 Lyon

지정연도: 2008 홈페이지: www.fetedeslumieres.lyon.fr/EN_1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리옹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도시이자 론-알프스주의 주도로, 영화의 발상지이며 영상 산업과 영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 디지털 분야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리옹은 비디오 게임, 음악, 그래픽 아트,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디어아트는 책, 음반,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 현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대중매체를 예술에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예술 분야로서 리옹이 추구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장르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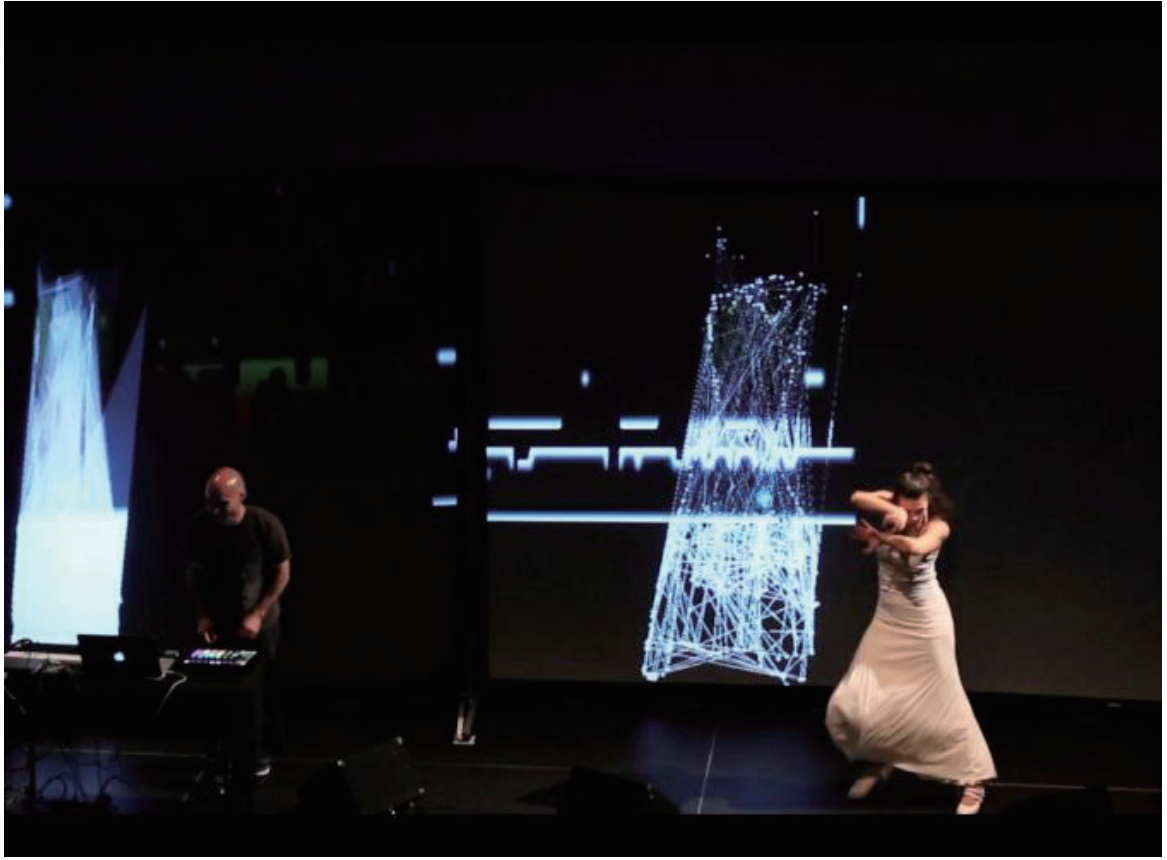
리옹 시는 전체 문화 분야 지출의 20%를 미디어아트 분야에 사용하고 있으며, 풍부한 지원을 바탕으로 미디어아트 및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리옹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미디어아트 행사로는 ‘뉘 소노르 전자음악 축제’(Nuits Sonores electronic music festival)와 ‘빛의 축제’(Festival of Lights)가 있다. 이들 축제가 국제적인 유명세를 얻으면서 디지털 장치와 기술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미적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기술도 하나의 새로운 산업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리옹 산술 센터(The Numeric Center of Lyon) 산하에는 2천여 개의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비디오 게임 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는 약 3만 명을 고용한다. ‘디지털 대중화’라는 주제 아래 2001년 리옹에서 시작된 ‘정보 사회를 위한 리옹 프로그램’(Lyon Programme for an Information Society, PLSI)은 대중의 인터넷 접근과 전자정부, 디지털 교육 및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해 오고 있으며, 리옹에 기반을 둔 단체인 ‘세계 디지털 연대’(World Digital Solidarity Agency, DSA)는 기술 전문가들에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오스틴 Austin

지정연도: 2015 홈페이지: www.austintexas.gov/department/austin-city-media-arts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미 텍사스 주의 주도이자 인구 9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인 오스틴에서는 미디어아트를 중심으로 한 창의산업분야가 지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오스틴은 예술, 음악, 디지털기술분야에서 세계적 트렌드를 주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오스틴의 창의산업분야는 지난 10년간 40% 성장했으며, 연간 4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기여와 함께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게임, 디지털 미디어, 영화 분야는 오스틴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로서, 연중 활발히 열리는 음악, 영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미술, 축제 등의 다양한 영리 목적 활동들이 오스틴 창의산업분야의 지속적인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개인 예술가와 창작자들부터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창의 인재들이 오스틴의 다양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텍사스대학을 비롯한 우수한 고등교육 기관과 함께 오스틴은 지식·정보에 기반을 둔 진보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매년 많은 수의 창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노래, 영화, 예술작품, 비디오게임,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통해 오스틴 시의 명성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매년 봄마다 평균 50개국 2만여 명의 관계자들과 2천여 팀의 뮤지션이 참여하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 SXSW) 음악축제는 창의적이고 디지털적인 미디어 기술의 경연장으로, 영화와 음악, 디지털 게임 분야의 세계적 리더들을 오스틴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오스틴 시티 리밋 음악축제(Austin City Limits Music Festival), 판타스틱 페스트(Fantastic Fest) 같은 행사들이 도시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7
영화
창의도시

영국 브래드포드 Bradford

지정연도: 2009 홈페이지: www.bradford-city-of-film.com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고전 영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브래드포드는 유네스코 영화 도시로 지정된 최초의 도시로 세계 영화계의 초기 개척자들이 활동했던 곳이다. 영화에 관한 브래드포드의 역사는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4년 브래드포드 시청 앞 광장에서 키네토스코프 영사기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한 이래 브래드포드는 19세기 후반 영사기술의 발전을 주도한 도시 중 하나였다. 거의 6천 개에 이르는 브래드포드 내 건축물과 주변 도시 및 황무지를 배경으로 거짓말쟁이 빌리(Billy Liar), 기차길 옆 아이들(The Railway Children), 꼭대기 방(Room at the Top), 레드 라이딩(Red Riding Trilogy) 등 수많은 작품이 탄생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지로서의 명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 50만 명으로 영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특별자치구인 브래드포드는 전통적으로 양모산업과 양모교역이 발달해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남아시아지역 출신 이민자가 도시 전체 인구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색채의 영화가 제작된 것은 물론 도시 구성원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영화의 역할도 적지 않았으며, 이제는 영화가 지역의 문화적, 상업적 정체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약 5천여 명이 브래드포드 내의 약 1,500여 개 창의산업 분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작업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탄탄한 신생 회사를 비롯해

영화, TV, 뉴 미디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영국 요크셔 지방의 디지털 및 창의산업의 또다른 강점은 게임으로, 두 업계는 최근 영화와 게임을 결합한 합작품을 만드는 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빅토리아 시대의 산업마을인 솔테어 공업촌(Victorian Village of Saltaire)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983년 국립 사진·영화·텔레비전 박물관으로 문을 연 국립 미디어 박물관은 영화산업 초기 단계부터 최신 디지털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사기 컬렉션을 포함하여 약 1만 3천여 개의 영화 관련 물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곳은 런던 지역의 박물관들 다음으로 많은 매년 7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한편, 전시 및 각종 행사와 축제 장소로도 쓰이고 있다.

영화 제작자들이 주를 이루는 브래드포드 국제 영화제(Bradford International Film Festival)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제도 이곳에서 연중 개최된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영화를 상영하는 바이트 더 망고(Bite the Mango)와 영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 브래드포드 애니메이션 축제(Bradford Animation Festival)도 유명하며, 호러와 판타지 및 SF 장르에 초점을 맞춘 판타스틱 영화와 함께하는 주말 행사나 청소년 제작자 협동 영화제 등도 있다.

브래드포드대학에 설립된 전산학, 정보학, 미디어대학은 1991년부터 디지털 미디어의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며 향후 디지털 산업을 주도할 차세대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비정규 교육 과정부터 전문가 육성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것도 브래드포드 영화 산업의 강점이다. 예를 들어 와우 아카데미(Wow Academy), 브래드포드 포이어(Bradford Foyer)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나 영화 관련 과정을 공부할 수 있으며, 브래드포드 시민이라면 누구나 브래드포드 영화 네트워크나 지역 또는 대학 단위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호주 시드니 Sydney

지정연도: 2010 홈페이지: www.screen.nsw.gov.au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자리잡은 시드니는 호주 인구의 1/4이 몰려있는 호주 최대의 도시이자, 무성 흑백영화 시대인 1896년부터 영화를 제작해 온 영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명실공히 호주의 영화 및 TV 제작 중심지로 자리잡은 시드니는 호주 전체 제작물 중 절반 이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동영상 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케이트 블란쳇, 니콜 키드먼, 휴 잭맨, 조지 밀러, 멜 깁슨, 바즈 루어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감독, 제작자들이 시드니 출신이다. 꼬마돼지 베이브(Babe), 해피 피트(Happy Feet),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뮌리엘의 웨딩(Muriel's Wedding), 프리실라(Priscilla), 매드 맥스(Mad Max) 같은 영화계의 고전적인 작품도 시드니에서 탄생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세계적인 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시드니에는 창의적이고 뛰어난 기술 인력이 많다. 호주 내 영화 제작 산업 종사자의 약 60%, 호주 전체 생산 및 유통 사업의 절반 이상이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2016~17년에는 1,700만 호주달러를 영화 제작에 투자하여 약 3억 1천만 호주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9천 개 이상의 숙련직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으며,¹⁵ 주 정부의 투자로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수백억 달러의 영화 제작 투자를

15. Grainne Brunson, 2017, UNESCO Creative Cities Membership Monitoring Report, Sydney, Create NSW Department of Planning and Environment, p8

유치함으로써 더 큰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자랑한다. 한편, 같은 기간 호주 전체에서 드라마 제작에 투입된 예산인 13억 호주달러 중 4억 6천만 호주달러가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서 지출되었고, 이 중 약 3억 1천만 호주달러가 Screen NSW와 Create NSW를 통해 드라마 제작비로 활용되면서 부가적으로 약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¹⁶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시드니는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적인 소재, 유능한 배우, 적당한 촬영 장소, 촬영 시설과 자금, 영화 배급사, 영화관, 풍부한 영화 관객 층 등을 두루 갖춘 도시다. 양질의 훈련 기관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추고 있는 시드니에는 피터 위어, 브루스 베레스포드, 케이트 블란쳇, 휴고 위빙, 토니 콜렛 등 저명한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 인력도 풍부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은 해안, 시골, 건조지역, 산, 열대성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고, 시드니에서는 유서 깊은 건물들과 현대의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와 영화 기금 조성 단체들은 40여 개의 협의회를 구성해 영화 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드니는 영화 완성을 위해 필요한 스튜디오와 편집실, 특수효과 작업 역량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스타워즈나 매트릭스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이 가능할 정도의 대형 무대를 8개나 갖추고 있는 폭스사의 영화 스튜디오가 있으며, 애니멀 로직(Animal Logic), 사운드 필름(Sound film) 사(社)와 같은 제작 및 편집 지원 기업들도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아이콘(Icon), 홉스카치(Hopscotch) 등 시드니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배급사를 비롯해 멜버른의 덴디 필름즈(Dendy Films), 빌리지 로드쇼(Village Roadshow)와 같은 배급사들도 시드니에서 활동하고 있다.

DVD나 온라인 다운로드를 통해 쉽게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시드니에서는 최신 영화 관람에 적합한 3D와 IMAX 상영관뿐만 아니라 영화를 관람하며 식사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예술 영화관, 시드니의 멋진 날씨 속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영화관도 찾아볼 수 있다. 시드니에서 매달 두세 개씩 열리는 필름 축제 역시 이곳의 영화산업과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유명한 시드니 필름축제는 1954년부터 시작하여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화제로, 행사 기간에는 호주 영화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비상업 영화를 시드니 시내 곳곳 상영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안내

1. 가입신청절차
2. 신청서 작성 가이드

③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안내

1. 가입신청 절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신청 절차 개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국제 네트워크)의 회원도시 가입 절차는 매 홀수 연도에 진행된다.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심사과정을 거쳐 '가입추천도시'에 선정되어야 한다. 국내 심사는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의 예비회원도시로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도시의 기준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시'로 분류되는 지자체로서, 행정구역상 '도', '군', '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운영지침'에 따라 국내 심사절차는 매 짝수 연도에 진행된다.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희망하는 예비회원도시들은 매 짝수 연도 5월 말까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신청서(국문)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연도 7~8월 중,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도시를 대상으로 가입추천도시 선정 심사를 진행해 추천 대상 도시를 선정하게 된다.

참고로 유네스코 본부 지침에 따르면, 매 2년(홀수 연도)마다 국별 최대 4개 도시까지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중 최대 2개 도시(신청 분야의 중복이 없어야 함)까지 가입을 승인받을 수 있다. 단, 가입에 실패한 도시의 경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야 재도전할 수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리 도시의 가입 실패율을 줄이고, 준비가 잘된 도시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심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최대 2개 도시를 추천해오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 심사를 통과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신청서(영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해당 도시는 작성한 신청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제공한 추천서를 이듬해(홀수 연도) 6월 말까지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유네스코 본부는 접수한 신청서들을 대상으

로 해당 연도 7~9월 중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통상 10월경 유네스코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국내 심사절차	
짜수 연도 5월 말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공모 및 신청서 접수(국문)
짜수 연도 7~8월	심사위원단의 가입추천도시 선정 심사
짜수 연도 9월~홀수 연도 6월	추천도시의 영문가입신청서 작성 자문 및 검토
홀수 연도 6월 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신청서 제출

국제 심사절차	
홀수 연도 6월 말	유네스코 본부 신청서 접수 마감
홀수 연도 7~9월	유네스코 본부의 신청서 심사
홀수 연도 10월 말	선정 도시 발표(본부 웹 사이트 공시)

※ 자세한 국제 심사절차 및 유의사항은 부록의 '2017 지정 절차' 참고

국내 심사절차 유의사항

- 창의 분야 가운데 2개 이상의 분야에 이중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 지원 시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도시의 수나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입신청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미 제출한 신청서는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음.
- 선발이 되지 않은 지원 도시의 경우, 향후 재지원 시 어떠한 우선권도 부여하지 않음.
- 선발이 된 도시의 경우에도 영문 가입신청서 작성·보완 등의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최종 추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영문 가입신청서 작성 진행 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 필수

가입을 위한 도시의 준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중장기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상정하고 가입신청 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가입신청서를 꼼꼼하게 정독하고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제안하는 '가입신청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시 정부(시장)가 창의도시 가입신청 준비를 결정한다.

②

관리팀을 구성하고 연락 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도시 내, 지역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가입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한다.

④

모든 분야의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한다.

⑤

관련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도시의 창의자산을 파악한다.

⑥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를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중기(4년) 전략과 사업계획 초안을 마련한다.

⑦

창의도시 지정 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관리부서(management unit)를
구성할 계획을 수립한다.

⑧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고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⑨

가입신청을 공표하는 시장의 공식 서한을 작성한다.

⑩

국내 전문단체의 공식 지지 서한을 확보한다.

⑪

해당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공식 지지·승인서를 확보한다.

⑫

기한까지 필수 제출 문서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① 시 정부(시장)가 창의도시 가입신청 준비를 결정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서는 시 정부(시장)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201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안내서’(부록 참고)에 따르면, 시 정부가 가입신청의 준비 및 실행을 주도하되, 이 과정에 청년을 포함한 시민사회,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관련 이해관계자와 파트너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팀을 구성하고 연락 담당자를 지정한다.

가입신청을 준비하는 도시는 준비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연락 담당자(focal point)는 네트워크 가입신청 준비 시는 물론, 가입 이후에도 유네스코 본부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연락을 주고받는 주체가 된다. 구성된 팀과 담당자는 창의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일 먼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명선언문’(UCCN Mission Statement), ‘가입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정 절차’(Designation Procedure) 등의 문서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관련 문서들은 이 책자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도시 내, 지역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가입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한다.

가입신청을 준비하는 도시 내에서, 그리고 해당 도시가 포함돼 있는 지역적(한국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 및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가입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한다.

④ 모든 분야의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한다.

창의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청년·시민사회,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 도시 내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파트너를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한다. 가입신청을 하는 해당 창의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창의도시 가입은 물론 가입 이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자문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가입신청 준비 단계부터 도시 내 이해관계자들을 빠짐없이 확인해 자문단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

⑤ 관련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도시의 창의자산을 파악한다.

우리 도시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국제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창의적 자산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우리 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창의성을 활용할 것인지, 지역의 문화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폭넓게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도시가 선택한 창의 분야의 문화기관 및 기반시설은 물론 예술교육, 전문훈련, 역량강화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들, 그리고 사회 빈곤계층 혹은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참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창의분야와 관련한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창의도시 네트워크 내 다른 회원도시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우리 도시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창의적 자산에 대해 두루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부록에 수록된 ‘201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안내서’ 중 4p의 ‘(3) 후보도시가 동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비교자산’ 참고).

⑥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를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중기(4년) 전략과 사업계획 초안을 마련한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후 도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에 맞게 세워져야 하며, 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적(한국의 경우 아태지역) 차원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이 담겨야 한다.

⑦ 창의도시 지정 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관리부서(management unit)를 구성할 계획을 수립한다.

우리 도시가 창의도시로 지정되고 난 이후, 도시 내 창의도시 사업을 담당할 관리부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⑧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고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창의도시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한다.

⑨ 가입신청을 공표하는 시장의 공식 서한을 작성한다.

가입신청을 위한 시장의 공식 서한을 작성한다.

⑩ 국내 전문단체의 공식 지지 서한을 확보한다.

우리 도시가 신청하는 창의분야의 국내 전문단체/기관(예: 문학 분야의 경우 한국문인협회 등)의 공식 지지 서한을 받는다.

⑪ 해당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공식 지지·승인서를 확보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공식 지지 서한을 받는다.

⑫ 기한까지 필수 제출 문서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지한 기한까지 필수 제출 문서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신청서 작성 가이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신청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양식이 변경되어 왔으며, 현재는 2015년 연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양식을 사용 중이다 (매회 조금씩 수정되지만 큰 틀은 유지되고 있음).

가입신청서 주요 문항

5. 도시의 기본사항 소개

도시의 주요 지리적 특성, 인구 구성, 문화적 특징, 경제적 특성을 서술; 도시의 운영 제도(거버넌스), 주요 문화시설 및 기반시설, 국제적 교류·경험 등을 기재한다(1,500자 이내).

도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소개하는 문항으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 도시가 가입하고자 하는 창의분야와 연관된 특징과 경험들을 소개한다.

6. 도시의 창의성과 관련된 주요 발전 기회와 창의성을 활용한 당면 과제

모든 도시는 특별하며 도시별 맥락과 우선순위에 따른 목적을 추구한다. 문화와 창의성을 중심으로, 특히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후보도시의 기회와 당면 과제를 서술한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에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한다 (1,200자 이내).

우리 도시의 당면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계획에 도시가 선택한 창의 분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서술한다.

7. 글로벌 발전 전략 및 정책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같은 국제 발전 의제를 이행할 수 있는 후보도시의 주요 글로벌 발전 전략과 정책을 기술한다(1,000자 이내).

우리 도시의 발전 전략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서술한다.

8. 창의도시 지정과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미칠 영향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신청 동기를 서술한다. 창의도시 지정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적 영향, 특히 지정 후 4년간의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1,200자 이내).

우리 도시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서술한다. 또한 창의도시 지정이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서술한다.

9. 가입신청 준비 과정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즉 창작자, 전문가, 실무자와 더불어 공공분야, 민간분야, 학술분야와 시민사회는 도시가 제출할 가입신청서의 기획 및 준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위에 기재된 각각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가입신청 준비과정에서 얼마나 논의에 참여하였는지 서술한다. 그리고 창의도시 지정과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각각의 이해관계자 그룹에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서술한다(1,000자 이내).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서술한다. 또한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함께 서술해야 한다. 준비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에는,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예: ‘문학’의 경우(이하 동일) 작가, 시인 등]은 물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예: 출판업계 관계자 등), 학계 전문가들(예: 대학 국문과의 교수진, 연구기관 관계자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예: 도시 내 시인연합회 등), 지자체 관련 부서 실무자 및 책임자 등이 포함된다. 준비 과정에 가능한 모든 영역의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입신청 도시의 비교자산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의 주요 문화자산, 특히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에 관련된 문화자산에 대해 서술한다: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필수 동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며, 위의 문화자산을 단순 나열식보다 도시의 문화자산과 창의자산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포함시켜 간결하게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하위문항당 1,000자 이내).

10번 문항에는 총 20개의 하위문항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우리 도시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기여할 수 있는 관련 자산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 현황에 대한 통계가 필요한 문항, 3~5년간 관련 사업 실적을 서술해야 하는 문항 등이 있기 때문에, 창의도시 사업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할 때 10번 문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해당 문항을 작성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11.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 기여 방안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는 적절한 중기(4년) 사업계획에 대해 기술한다: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전을 이행할 수 있는 동력으로 창의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다.

도시의 이니셔티브는 반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와 활동 분야에 부합해야 한다. 본 항목을 기재하기 전, 해당 사명선언문을 먼저 숙지하길 바란다. 도시의 사업계획과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2030 의제에 맞춰, 현실적이고 일관되며 타당해야 한다. 해당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용을 이론적 수준에서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의미와 맥락에 따라 서술할 것을 권장한다. 창의도시 지정 시, 후보도시의 본

항목에 기재한 사업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4년마다 그 결과가 담긴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Membership Monitoring Report)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2019년 모집 공고를 통해 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첫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를 2023년에 제출하게 된다).

11번 문항에는 총 5개의 하위문항이 있으며, 각 문항당 우리 도시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후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할 사업과 계획에 대해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도시의 사업계획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타당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본 문항에 적힌 계획들은 창의도시 지정 이후 실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창의도시 지정 4년 후에 제출할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가입추천도시를 선정하는 국내 심사에서는 국제 네트워크 가입에 사용되는 영문신청서를 번역한 국문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된다(이때 추후 국문신청서 내용의 원활한 영문 번역을 위해 국문신청서의 문항당 글자 수를 영문신청서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있음).

가입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가입신청서 작성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 도시가 왜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하는지’, ‘창의도시 지정을 통해 우리 도시가 이루려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떤 것인지’, ‘우리 도시가 신청하는 창의분야와 관련한 우리 도시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 도시가 지정되면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우리 도시가 네트워크 가입 이후 추진할 사업과 정책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서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입신청 도시가 창의도시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며, 위에 기재된 내용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어야 가입신청서 문항 작성 시 간결하면서도 일관된 논조를 유지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10번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입신청 도시의 비교자산’과 11번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 기여 방안’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입신청을 준비하는 도시는 반드시 준비 과정의 첫 단계에서 가입신청서를 정독하고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10번 문항은 3~5년간의 관련 실적이 있어야 작성이 가능한 하위문항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의 현황을 파악해 문항별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가입신청서에는 이미지, 차트, 다이어그램 등을 삽입할 수 없으며, 가입신청을 한 창의분야 등과 관련된 최대 3개의 웹 사이트 링크[가입신청서 15.3번 문항(15번 문항의 3번 하위문항) 해당]를 통해서만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이에 가입신청을 준비하는 도시는 가급적 가입신청서 15.3번 문항에 기재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사전에 제작할 것을 권장한다.

국제 네트워크에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가입신청서는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영문신청서 제출 전, 가입추천도시에서 작성한 영문신청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가입신청서는 반드시 유네스코 본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가입신청서 문항마다 지정돼 있는 글자 수를 반드시 지켜 기재해야 한다.

가입신청서(2019년도 가입신청 공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으로 수록된 ‘2019 가입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 소개

1.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현황
2.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별 활동

4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 소개

1.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현황

한국은 2010년 서울(디자인)과 이천(공예와 민속예술)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최초로 가입한 이후 전주(음식), 광주(미디어아트), 부산(영화), 통영(음악), 대구(음악), 부천(문학), 원주(문학), 진주(공예와 민속예술)가 차례로 합류해 2020년 현재 국내 10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국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한국의 도시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가입도시 간 협력을 증진하고 창의도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2018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가 조직되었다. 한국 네트워크에는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정회원도시)와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예비회원도시)가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2020년 12월 기준) 앞서 소개한 10개의 정회원도시와 7개 예비회원도시(경주, 김해, 안산, 안동, 순천, 울산, 청주)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들은 연간 한 차례 이상의 정기 워크숍을 통해 각 도시에서 진행되는 창의도시 사업을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함께 나누며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 워크숍에서는 창의도시 간 협력사업은 물론 국내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들의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또한 예비회원도시들을 대상으로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신청 준비를 위한 자문 활동 및 관련 워크숍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 네트워크’에 예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도시는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예비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 직인을 날인한 뒤 직접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공문으로 접수해야 한다. 가입신청서 접수 절차가 무사히 완료된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가입을 승인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예비회원 가입신청서 양식은 부록에 수록된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운영지침’의 별지 2호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 현황(2020년 12월 기준)

회원구분	도시	지정년도	창의분야
정회원도시	서울	2010	디자인
	이천	2010	공예와 민속예술
	전주	2012	음식
	광주	2014	미디어아트
	부산	2014	영화
	통영	2015	음악
	대구	2017	음악
	부천	2017	문학
	원주	2019	문학
	진주	2019	공예와 민속예술
예비회원도시	경주		공예와 민속예술 준비
	김해		공예와 민속예술 준비
	안산		음식 준비
	안동		공예와 민속예술 준비
	순천		문학 준비
	울산		음악 준비
	청주		공예와 민속예술 준비



서울

디자인, 2010년 지정



서울은 이천과 함께 2010년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서울은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지난 세기 고도성장의 명암이 있던 곳을 디자인의 가치가 흐르는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목표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에 가입한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새활용플라자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등의 도심 속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서울 시민들의 디자인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추진 사업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는 장으로써 본 네트워크를 활용해왔으며, 해외 디자인 창의도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도시재생, 업사이클 등의 주제로 각종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중 하나인 프랑스 생테티엔(Saint-Étienne)의 국제디자인비엔날레, 일본 나고야(名古屋)의 국제디자인포럼에 참여하는 등 창의도시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모든 시민들이 인간소의 현상, 물질주의적 폐해,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디자인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 ‘휴먼시티 디자인 서울’을 선언한 서울시는 2019년 세계 최초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DDP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은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복합적인 도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더욱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도시 형성에 기여한 디자이너 또는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의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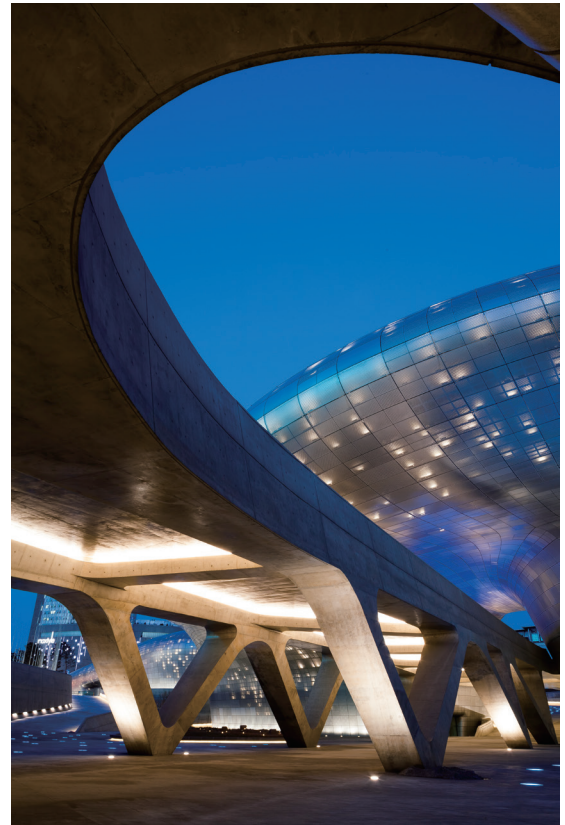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는 근대 스포츠경기장을 탈근대 디자인복합공간으로 바꾸었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환유의 공간’으로 세계 최대의 3차원 비정형 건축을 실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2014년 3월 개관 이래로 시민과 함께 꿈꾸고(dream) 만들고(design) 나누는(play) 다양한 전시와 강연, 컨퍼런스, 행사와 축제, 신제품 및 브랜드 발표회 등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권역시장인 ‘동대문시장’ 안에 있는 DDP는 디자인을 런칭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전파시키고 문화를 환류시키면서 아시아를 세계로, 세계를 아시아로 전하는 ‘세계 디자인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소: (04566)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홈페이지: <https://www.ddp.or.kr/>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업사이클)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이다. 서울시의 「자원순환도시 서울시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9월5일 개관한 새활용플라자는 자원 재활용과 재활용에 대한 환경과 사회, 경제 측면의 인식을 넓히고, 업사이클링에 기반을 둔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산·유통·소비의 가치 있는 건강한 순환이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새활용플라자는 다양한 교육과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도록 돕는다.

주소: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49
홈페이지: <http://www.seoulup.or.kr/>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역량있는 차세대 청년 디자이너들의 활발한 스타트업 환경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조성·운영하는 ‘청년 디자인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이다. 지난 6월 개관 이후 디자인 창업에 특화된 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는 다양한 청년 창업자들이 입주해 있다.

주소: (045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길 19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의 대표 행사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목적은 "디자인이 어떻게 사람다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함께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상이다.

도시 공공의 문제를 지역주민, 민간, 공공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디자인으로 삶의 행복에 기여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상으로 의미가 크다.

2018년 21개 도시에서 참가한 디자인전문가들과 함께 선언한 “휴먼시티디자인서울”에서 출발한 이 어워드는 2019년 처음으로 제정되어 매년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humancitydesignaward.or.kr/>

서울라이트

서울라이트는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고품격 야간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빛축제 명소로서 동대문 상권 활성화와 관광명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시작되었다.

작년 12월 처음으로 열렸으며,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레픽 아나돌이 참여하여 인공지능과 DDP외장 벽면을 활용한 세계 최장 규모(220m)의 영상쇼를 보름 동안 상영했다. 올해는 2차례 영상쇼가 예정되었지만 COVID19로 인해 10월에는 다양한 작가와 시민들의 참여로 3개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선보였고, 12월 예정이었던 전시는 내년 2월로 연기 진행 예정이다.

서울라이트는 동대문과 서울의 경험과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축제로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디자인 축제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ddp.or.kr/main>

DDP디자인페어

DDP디자인페어는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이다. DDP의 이웃동네이면서 한때 탱크도 만든다고 했지만 제조산업의 노후화로 쇠락하는 을지로 및 동대문 일대의 제조력과 장인력을 재생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제품개발 노하우’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결합한다. DDP가 주선하는 콜라보를 통해 가구·조명·생활리빙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런칭해 소상공인에게는 제품양산 및 프로모션의 활로를, 디자이너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과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http://ddpdesignfair.or.kr/>





이천

공예와 민속예술, 2010년 지정



이천은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도자기의 고향으로 한국 전통공예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현대 공예산업의 개발과 육성에 앞장서 왔다. 이천의 도자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개발도상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인정받아 2010년 7월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이천은 풍부한 자원과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자 예술의 전통이 숨 쉬는 아시아의 대표 도자도시이다. 청자, 백자 그리고 분청 등 한국 고유의 도자제작 방식을 계승하는 도자명장을 필두로 전통과 현대 기법을 아우르는 400여 도예공방이 활발한 창작 활동을 지속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도자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이천의 우수한 도자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도자

외 다양한 분야의 공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천도자예술마을 에스파크’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도자·공예마을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이천도자기축제’와 매년 8월에 열리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비롯해 연중 상시 열리는 크고 작은 축제, 마켓 등 다양한 도자·공예·문화 행사와 만날 수 있는 이천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수공예 제품을 구매하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부하다. 이렇듯 창의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작가들에게는 창작열을 북돋고 시민들에게는 문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창의도시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고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천의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

이천도자예술마을-에스파크

에스파크는 12만 3000평 규모의 대지에 조성된 국내 최대의 예술촌이자 국내 최고의 공예예술마을이다. 이곳에는 도자를 비롯한 조각, 칠기, 유리공예 등 각종 공예는 물론 음악, 사진을 다루는 300여 개의 공방이 가득하며, 도자공예 외에도 목공예와 섬유, 비즈, 종이공예 등을 다루는 다양한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모여 전통문화예술과 다양한 현대예술의 조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도자기 구입은 물론 도자공예, 목공예, 가죽공예 유리공예, 종이공예 등 다양한 공예 분야의 체험도 가능하며, 에스파크 내 별마을, 회랑마을, 가마마을 등에서는 플리마켓과 마을축제를 개최해 방문객에게 풍부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5번길 109
홈페이지: www.facebook.com/yesparkkorea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

이천시 사음동과 신둔면 일대에 조성돼 있는 사기막골 도예촌은 이천을 대표하는 도예업체가 밀집된 곳이다. 사기막골 도예촌 전체에 걸쳐 도예가들의 크고 작은 도자기 상점들이 있으며, 이곳에 모인 도예가들을 통해 천년의 도자기 예술이 이어지고 있다.

주소: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993번길 12(사음동)
홈페이지: www.sagimakgol.com

이천 세라피아(한국도자재단)

이천 설봉 세라피아의 메인 콘텐츠인 이천세계도자센터(이천세라피아)는 세계 도자예술의 흐름과 경향을 볼 수 있는 도자전문 미술관을 비롯해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 레지던시와 공작소, 체험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특별전

을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현대 도자의 예술적, 문화적 현상들을 수용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세계 도자 트렌드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소: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관고동)
홈페이지: www.kocef.org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이천의 대표 행사

이천도자기축제

1987년에 시작된 이천도자기축제는 매년 4월 말~5월 중순에 개최된다. 이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도예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은 물론 여러 도예 체험부스와 민속예술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천에서 가장 큰 공예 및 민속예술 행사이다.

홈페이지: www.ceramic.or.kr

설봉산별빛축제

설봉산별빛축제는 매년 이천 설봉공원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축제 기간에 매주 토요일마다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과 대중 연예인 초청공연을 진행하여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공연을 통해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tour.icheon.go.kr/site/tour/sub.do?key=1964>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1988년 시작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조각심포지엄인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전문 조각가들 중 우수한 지원자를 국적여 상관없이 선정해 조각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선정된 작가들의 야외 조각 작업이 전시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렇게 탄생한 작품들은 설봉공원, 온천 조각공원 등에 설치되어 이천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issi2000.com>





전주

음식, 2012년 지정



2012년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지정된 전주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과 한정식의 본고장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전통음악 판소리와 한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의 고장이다. 천년의 예술도시이자 한식의 명향인 전주는 예로부터 유명한 음식의 고장으로 먹을 것이 풍족했던 덕분에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고, 멋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예향의 도시로 자리하게 되었다. 전주는 전통음식(한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등)뿐만 아니라 전통축제(전주비빔밥축제, 대사슴놀이, 기찻놀이 등), 한옥, 한복 등 풍부한 전통생활문화의 집산지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2010년 국제슬로시티 지정,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2018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등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 축제로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와 동네별로 특색 있는 비빔밥을 선보이며 한국의 맛, 전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음식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인들이 외부의 간섭 없이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대안 독립영화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으며, 전주한지문화축제는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전주 한지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전주는 곳곳에 맛집이 가득하다. 영국의 3대 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발간한 “대한민국 음식기행”에서 ‘전주는 비빔밥의 본고장이자 한국에서 음식으로 대적할 곳이 없는 도시’라 했으니 정말하게 차려진 한상을 맛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전주의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시는 산재되어 있는 전주음식 문화 자원을 집대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오프라인 자료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자료실과 음식모형 전시실을 통해 상설 전시 중이다. 전주음식자료실에는 전주 10미, 향토음식, 전주음식 명인 등 전주의 식재료, 음식, 사람, 관광자원 등이 전시돼 있으며, 한식자료 열람공간에는 식재료, 음식, 사람, 상품, 관광자원과 관련된 문헌/연구자료 등 600여 권의 도서가 구비돼 있다. 또한 전주음식모형 전시실에는 전주전통음식 상차림, 향토음식 등 467점의 음식모형이 제작·전시돼 있고, 조리체험실인 시루방에서는 전주음식의 이모저모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주소: (55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홈페이지: <http://www.ktcc.or.kr/>

음식 창의도시 전주의 대표 행사

전주비빔밥축제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주비빔밥축제는 2007년 “전주천년의 맛잔치”로 개최되어 2010년 “전주비빔밥축제”로 축제명칭 변경 후 현재까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전주의 35개 지역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비빔밥을 맛볼 수 있는 한편, 대형비빔밥퍼포먼스와 비빔밥의 유래를 상황극을 통해 체험해 보는 비빔전설, 전주음식명인·명가의 쿠킹클래스, 지역 업소 역량강화 및 새로운 비빔밥 메뉴를 개발하는 요리경연대회, 먹거리 장터, 각종 공연 등 비빔밥은 물론 전주의 음식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이다.

홈페이지: <http://www.bibimbapfest.com>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는 저예산 독립영화의 자립을 추구하는 국제영화제로 독립·대안영화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권력·자본에 맞서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영화제이다. 미국 영화전문잡지 ‘무비메이커’가 선정한 「2017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 25선」에 아시아국가에선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국제영화제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16-'17)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홈페이지: <http://www.jiff.or.kr/>

전주한지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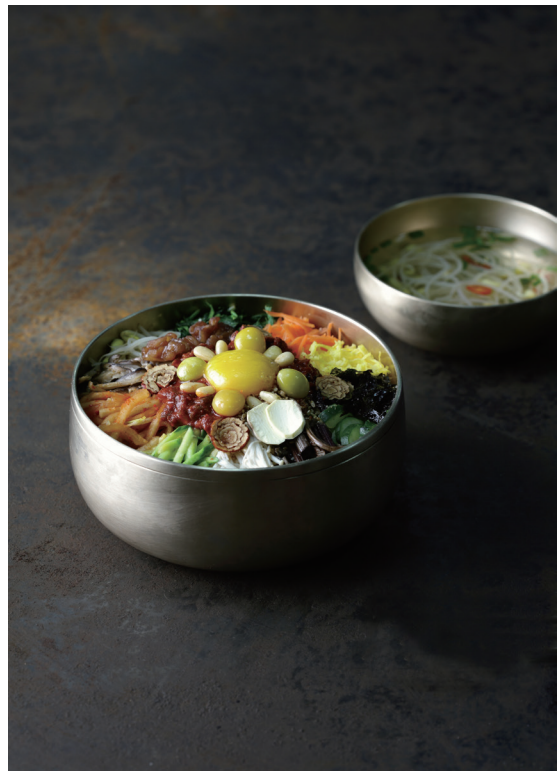
1997년에 시작된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천년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한지공예 경진대회를 통해 전국의 우수 공예인을 발굴하는 한편, 전주한지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다.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은 물론 한지로 만든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해 관람할 수 있다. 한지제조체험실에서는 한지뜨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한지공예 체험공간이 열린다.

홈페이지: <http://www.jhanji.or.kr/>

전주문화재야행

매년 5월, 9월에 한옥마을 및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주문화재야행은 2018 문화재청이 선정한 문화재 활용사업 전국 1등의 최우수 야행, 2020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전주의 밤을 가장 전주답게 발현해냈다”라고 평가되는 문화재 대표 활용프로그램이다. 전주문화재야행은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식(夜食), 야숙(夜宿), 야시(夜市)의 8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옥마을 곳곳에서 테마에 맞는 다양한 공연 및 체험공간을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ww.jeonjunight.com/>





광주

미디어아트, 2014년 지정



빛고을 광주는 ‘인권의 빛’, ‘예술의 빛’, ‘광산업의 빛’이 넘치는 고장으로 국내외 대표적인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주요 활동무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미디어아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4년 광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미디어아트는 광주가 꿈꾸는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광주가 추구하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목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미디어아트에 담아, 도시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활력이 넘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하는 것”이다.

광주의 미디어아트는 도시의 현대미술과 최신 기술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광주비엔날레,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아시아문화포럼 등과 같은 문화예술 이벤트들이 개최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 미디어아트의 예술적 가치를 반영하는 많은 공공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광주의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가 세계의 창의도시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미디어아트를 통해 예술·산업·사회적 자산을 창의적으로 재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 중인 미디어아트 특화공간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미디어 338, 디지털 갤러리와 옥상 랜드마크인 홀로그램 파사드는 광주의 창작자와 시민이 함께 교류하는 창조 공간이다. 또한 유료 공간으로 운영되는 홀로그램 극장과 미디어놀이터는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하여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미디어 체험장이 될 것이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동 천변좌로 338번길 7(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gjmp.kr/>

스페이스 5G네 - 5G미디어실증체험관

미디어놀이터 옆과 문화보듬10000센터 자리에 마련된 ‘스페이스(SPACE) 5G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가코리아사업단,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CA, 광주문화재단이 2020년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을 통해 함께 만든 공간이다. 스페이스 5G네는 5G기반 실감미디어 기술을 토대로 광주만의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플랫폼’의 새로운 공간이다.

콘텐츠 : (총 9종) 반짝반짝 유미씨, 앉아보는 미술관, 내가그린 거북이, 네모네모 체험관, 움직이는 공연장, IT관객 매나씨, 도와줘요 도슨트, 사진찍자 나하고, 게임으로 만나요

요금 : 무료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동 천변좌로 338번길 7(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gjmp.kr/>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대표 행사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에서 2012년 이래 매년 개최되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개막 퍼포먼스, 주제전, 특별전, 국내외 교류전 등 국내외 작가의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행사이다.

홈페이지: <http://www.gjmp.kr/>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정책포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미디어아트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이래 매년 개최되는 포럼으로,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가 모여 정책적 담론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창의도시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홈페이지: http://www.gjmp.kr/index.php?mid=page_KsiR94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아시아·태평양권의 유일한 국제적인 미술 이벤트에서 출발하여, 2020년 현재까지 25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축제 중 하나이다. 광주비엔날레에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어 왔으며, 실제 출품되는 작품 중 뉴미디어와 영상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작품이 매회 전체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처럼 광주비엔날레는 첨단 디지털 영상매체를 통해 새로운 전시문화를 제안함으로써 현대미술의 혁신적인 예술성을 살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해 가고 있다.

홈페이지: <https://www.gwangjubiennale.org/gb/index.do>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의 거리에 예술가를 육성하고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장르나 형식과 같은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아마추어, 전문 예술인, 시민이 함께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광주의 대표적인 광장문화축제이다.

홈페이지: <http://www.fringefestival.kr>



무등올림축제

무등올림축제는 매년 10월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에서 개최되는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행사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공연은 물론 다양한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대잔치이다.

홈페이지: <http://www.gtcc.or.kr/user/sub5020>





부산

영화, 2014년 지정

1903년 개관한 부산의 극장 ‘행좌’와 국내 최초의 영화제작사 ‘조선키네마 주식회사’(1924년)로부터 유래한 부산의 영화 산업은, 1996년 최초로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성공과 1999년 발족한 부산영상위원회(BFC)의 지속적인 영화 로케이션 지원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하였다. 이후 시네마테크부산을 시작으로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영화촬영 스튜디오의 설립, 아시아필름마켓을 비롯한 국제행사 개최, 영화의전당과 부산아시아 영화학교 개관 등 지속적인 영화영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부산은 아시아의 영화영상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부산 영화인들의 영화 제작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

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은 2014년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부산은 ‘Film for All - 모두를 위한 영화’ 도시를 모토로 삼아, 부산의 대표적인 행사인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통한 국제교류는 물론, 도시 곳곳에서 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1년 365일 부산 시민과 함께 펼쳐지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화를 즐기고 영화를 통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

해운대센텀시티

해운대센텀시티에는 아카데미, 영화전문자료실, 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 등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랜드마크 ‘영화의전당’을 비롯하여 부산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영화 관련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다.

영화의전당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인 영화의전당은 2011년 개관한 이래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인 ‘쿵 힘멜브라우’의 설계로 건립되었으며, 뛰어난 조형성과 해체주의 건축미학이 구현된 예술작품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세계 최초로 영화와 공연예술이 접목된 영상복합공간으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네 개의 상영관을 비롯해 영화뿐 아니라 국내외의 음악회, 오페라, 연주회, 연극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연극장 등이 있다. 또한 4000석 규모의 야외극장은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개·폐막식이 진행되는 장소로서,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만끽할 수 있는 열린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영화의전당에서는 영화전문자료실, 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 등 영화 전문 자료관의 운영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화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영화의전당 - 영화전문자료실

영화의전당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전문자료실은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총

3만 3000여 종에 달하는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시네마테크부산의 역대 기획전 관련 자료 및 부산국제영화제 역대 출판작 자료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자료이다. 또한 이곳에는 한국영상자료원 부산분원이 설치되어 한국 고전영화와 독립영화 VOD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영상자료원 VOD 전용 열람석을 통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3,828편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영화의전당 - 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

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는 아시아 지역의 고전과 동시대 영화들을 수집, 보존해오고 있으며 장철, 마스무라 야스조, 나루세 미키오와 같은 아시아 거장 감독들의 고전을 수집하여 회고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꾸준히 부산 지역의 독립영화들을 수집하는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

주소: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http://www.dureraum.org/>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984년 설립한 영화 전문 교육기관이다. 소수정예로 영화연출, 촬영, 애니메이션, 프로듀싱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장편과정을 신설하여 매년 4편의 장편 영화를 직접 제작하는 현장 실무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통해 제작, 완성된 영화의 대부분은 국내외 영화제에 진출하여 다수의 수상 실적으로 해마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700여 명의 영화인재를 배출해 국내 최고의 영화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소: (4826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55
홈페이지: <http://www.kafa.ac>

부산아시아영화학교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된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국제 영화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이다. 한국과 아시아 영화계를 대표하는 각 분야 영화인들을 교수/강사로 초빙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프로듀서 중심의 국제 영화비즈니스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부산아시아영화학교는 아시아의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아시아적 미학을 추구하고, 영화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시아 각국의 영화공유 기반을 마련하여 자국 내 영화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와 더불어 아시아 및 세계 영화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소: (4826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55
홈페이지: <http://www.afis.ac/>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영화 관련 전문 전시체험시설로 영화의 역사와 원리, 영화의 장르 및 제작방법 등의 다양한 영화 콘텐츠를 한편의 ‘영화탐험스토리’ 속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26번길 12(동광동3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홈페이지; <http://busanbom.kr/>

모퉁이극장

모퉁이극장은 영화를 상영, 기록, 복원하는 시네마테크와 달리, 관객들의 목소리를 상영, 기록,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네마-피플-테크’이다. 국내 유일의 ‘관객 전용관’ 모퉁이극장은 각종 상영회, 토크프로그램,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며, ‘영화의 시민’인 관객들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오래도록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주소: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13 3층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cornertheate>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BNK부산은행, 부산시 중구청,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함께 협약을 맺고 부산영화제가 시작된 남포동의 첫 번째 부산은행 본점을 리모델링하여 아트시네마를 조성하였다. 이곳에는 아트갤러리, 카페, 모퉁이극장, 세미나실, 창작지원실 등이 위치하여 영화를 사랑하는 부산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소: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13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대표 행사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996년에 시작된 국내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지역 영화인을 중심으로 ‘영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국제영화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서 출발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지역의 영화를 통해 세계영화의 흐름을 조망하고, 특히 아시아영화의 새로운 비전과 세계 영화계에서의 한국영화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아시아에서의 공동투자 마켓 형성 및 한국과 아시아영화의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드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홈페이지: <https://www.biff.kr/kor/>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매년 5월 개최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한국과 아시아의 단편 영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아시아 단편영화의 허브’ 역할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를 비롯해 미주, 유럽 등 각 지역별로 테마를 선정하고 우수 작품을 초청해 전 세계의 뛰어난 단편영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세미나, 세계 영화학교 섹션,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편영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bisff.org/>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BIKI)는 국내 유일의 국제어린이영화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일 뿐만 아니라, 영상예술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다. 어린이영화워크숍, 필름앤편, 포스터공모전시회, 비키영화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영화를 매개로 한 체험 및 교육 활동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홈페이지: <http://biky.or.kr/>

부산독립영화제

2020년 제22회를 맞은 부산독립영화제는 부산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독립영화의 제전이다. 부산

독립영화협회는 지난 10여 년간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 영화 인력을 발굴,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지역 간 독립영화제의 교류사업과 지역 간 순환 상영 프로그램 등 국내에서 실질적인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indiebusan.com/>

커뮤니티비프

커뮤니티비프는 관객이 주도하는 영화제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이 영화제의 시작지인 남포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어 기획부터 상영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리퀘스트 시네마’와 조용히 관람하는 영화를 벗어나 자유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반응하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리액션 시네마’ 등 다양한 형태로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 <http://community.biff.kr>

이음영화제

이음영화제는 사회적 편견이나 무관심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시민 주도 영화제를 잇자는 뜻에서 시작된 영화제로, 부산 지역의 시민 주도 작은 영화제와 영화제 형태의 문화단체 간에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청소년, 비건, 퀴어, 북한문화, 콤플렉스, 장애인 인권 등 현대 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영화제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 주도 영화활동을 지지하는 영화제로 성장하고 있다.

홈페이지: (부산문화재단) <http://www.bsfc.or.kr/>
(영화의전당) <http://www.dureraum.org/>



통영

음악, 2015년 지정

‘20세기의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낳은 도시 통영은 음악을 통해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융합하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2015년에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독일의 언론인 엘레노어 뷔닝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연장 중 하나”라고 극찬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리는 통영국제

음악제와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음악 창의도시 통영’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사이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품은 아름다운 통영의 바다와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한산도의 삼도수군통제영 등 여러 볼거리를 지닌 아름다운 도시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통영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

통영국제음악당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열리는 통영국제음악당은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거쳐간 음악의 전당으로, 최고의 음향시설을 자랑하는 콘서트홀과 아름다운 건물, 수려한 경관으로 인해 통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이다.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큰밭개1길 38 통영국제음악당 (도남동1)
홈페이지: <http://www.timf.org/kr>

윤이상기념관

윤이상기념공원 안에 있는 윤이상기념관에는 작곡가 윤이상의 삶과 음악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패널과 사진 자료, 유품과 악보들이 전시되어 있다.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작곡가 윤이상이 생전에 기거하던 베를린 자택을 그대로 본뜬 베를린하우스를 개관하여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관람객들이 작곡가 윤이상의 걸작품이 탄생한 공간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소: 경남 통영시 도천동 150-4
홈페이지: <http://www.timf.org/kr>

음악 창의도시 통영의 대표 행사

통영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는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퐁>에서 “아시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라고 소개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높이 평가되는 현대음악제 중 하나로,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과 그의 음악을 기리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윤이상 음악을 비롯한 현대음악을 기반으로 하되 클래식 음악 애호가에게 친숙한 작품들과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추구하며, 윤이상을 잇는 새로운 작곡가와 음악가를 발굴하는 것과 현대 동서양 음악문화를 이어주는 가교로서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timf.org/kr>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을 기리고 이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에 이바지하며,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03년에 창설되었다. 매년 11월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최되며, 피아노·바이올린·첼로 부문이 해마다 번갈아가며 열린다.

홈페이지: <http://www.timf.org/kr>





대구

음악, 2017년 지정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바흐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로 묘사될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대구는 한국전쟁(6.25) 당시 전쟁을 피해 온 많은 예술인이 모여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나간 도시이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요(박태준-‘오빠생각’ 등)와 가곡(현제명-‘춘향전’ 등)이 탄생한 도시이며, 국내 최초로 피아노가 들어왔던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음악 감상실로 평가받는 ‘녹향’에서는 화가 이중섭이 음악신청용지와 담배 은박지에 ‘황소’를 그리고, 시인 양명문이 가곡 ‘명태’의 가사를 썼다. 이렇듯 다양하고 풍부한 근대



음악자산이 남아 있는 대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17년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대구는 지방도시 중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로,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전용홀 ‘대구콘서트하우스’와 오페라전용 극장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 유일의 ‘국제 뮤지컬페스티벌’과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오페라축제’를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구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의 대표적인 클래식 공연장으로서 오페라뿐 아니라 국내외 양질의 클래식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며, 대구의 대표적인 음악축제인 ‘대구 국제오페라축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다. 오페라 저변의 확대를 위해 해설을 곁들인 ‘렉처 오페라’,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오페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페라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지역대학 및 해외 대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으로 상호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고, ‘영아티스트 오페라’를 통해 신진 성악가들을 발굴, 오디션을 거쳐 선발한 합격자들에게 해외 주요 극장에서 초청한 성악가들과 함께 전막 오페라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41585)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15
홈페이지: <http://www.daeguoperahouse.org/>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대구시립교향악단과 대구시립합창단이 소속된 클래식음악 전용 홀이다. 대관 위주의 공연장과는 달리 공연을 직접 제작, 공급하는 유럽식 공연장으로 ‘모두의 클래식’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적인 연주자에서 지역연주가, 클래식음악 마니아에서 아마추어,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위한 연간 150여 회의 다양한 공연으로 클래식음악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주소: (41585)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15
홈페이지: <https://concerthouse.daegu.go.kr/>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970년에 개관하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해 왔다. ‘공연장 전문화시대를 주도하는 콘텐츠 제작

소’, ‘대구예술과 대구예술인을 조명하는 연구소’, ‘새로운 가치의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시민행복 충전소’라는 비전 아래 운영되고 있다. 대구의 다양한 시립예술단(국악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예술단)이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예술인의 꿈과 희망의 공간,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위한 공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를 양산하는 진정한 제작극장으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소: (4267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홈페이지: <https://artcenter.daegu.go.kr/>



대구예술발전소

대구예술발전소는 과거 연초제조창의 별관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졌다.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예술창조공간을 조성하여 신진 작가들에게 창작의 길을 열어주고, 시민들이 전문 아티스트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레지던시 사업을 통한 청년·신진 예술가 지원사업을 비롯해 이들의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주소: (41920)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수창동)
홈페이지: <http://www.daeguartfactory.kr/>



대구수성아트피아

대구 수성구의 구립 문화예술회관으로 2007년에 개관한 대구수성아트피아는 다채로운 기획공연은 물론 구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음악, 전통미술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는 대구MBC교향악단, 수성구여성합창단, TBC·수성아트피아 소년소녀합창단, 수성청 소년오케스트라가 상주하고 있으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맡겨둔 티켓’ 운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과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한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주소: (4218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80
홈페이지: <http://www.ssartpia.kr/>



음악 창의도시 대구의 대표 행사

대구포크페스티벌

대구포크페스티벌은 한국의 대표 포크가수인 고 김광석을 콘텐츠로 한 대중음악 축제로 매년 7월 말경 개최된다. 김광석 콘서트홀, 수성못(수상무대문화광장), 동성로야외무대, 동대구역 광장 등 도시 곳곳에서 미래 포크음악을 이끌어 갈 차세대 뮤지션 발굴을 위한 포크송 콘테스트, 버스킹 공연과 유명 통기타 뮤지션들의 공연 등이 다채롭게 전개된다.

홈페이지: <http://www.dgff.kr/>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50만여 명의 관객이 관람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등 160개 오페라극장 및 단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오페라 축제이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오페라작품이 상연되는데, 전막 오페라 작품은 물론 해설이 곁들여지는 소오페라, 광장에서 펼쳐지는 광장오페라, 그리고 창작 오페라를 상연하는 등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daeguoperahouse.org/doh/contents/01_intro/page.html?mid=091095102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아시아의 유일한 국제뮤지컬페스티벌로, 인지도가 높은 대형 작품뿐만 아니라 지역 및 해외 창작 뮤지컬을 발굴,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인재 발굴시스템의 일환인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과 시민과 뮤지컬이 함께하는 개막축하공연과 폐막행사(DIMF 어워즈)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홈페이지: <https://dimf.or.kr/>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대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2016년부터 매년 대구 시민들을 위해 세계 최고의 관현악단을 초청하여 음악을 선물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관현악단을 초청해 서로 교류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차세대 음악인을 위해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소, 소외계층, 일터 등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 클래식을 통한 소통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오케스트라 특공대’, 초중고 교실을 방문해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교실음악회’ 등 다양한 형태의 클래식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concerthouse.daegu.go.kr/common/selectContent.do?MENU_IDX=81





부천

문학, 2017년 지정



부천은 거대 도시인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입지한 위성도시이자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발전해 왔으나,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문화 중심의 도시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만화와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영화산업과 만화산업의 창의 인재들이 부천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전국 만화작가의 1/3은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천은 짧은 도시 역사에도 불구하고 ‘논개’의 수주 변영로, ‘원미동사람들’의 양귀자, 동요 ‘자전거’의 작사가이자 아동문학가 목일신 등 한국 근현대 문학의 빛나는 작가들과 인연이 깊다. 또한 부천의 도서관 인프라는 걸어서 5분 안에 도서관을 만날 수 있도록 촘촘히 배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와 정보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독서생활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천의 문학적 자산과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부천의 대표적인 축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단순히 부천의 만화 산업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국가의 창작자와 문화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세미나, 창작워크숍을 비롯해 저작권 비즈니스 프로그램인 ‘한국국제만화마켓’(KICOM)을 운영하는 등 세계 속에서 우리 만화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한국과 세계 각국의 저작권 현황을 공유하고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가 추가되었고, 2015년에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학술대회를 부천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문학 창의도시이자 대표적인 만화도시인 앙굴렘과의 MOU 체결 등 협력 사업의 확대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부천의 문학을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

부천시립도서관

상동도서관 등 부천의 시립도서관에서는 ‘1인 1저 책쓰기’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동도서관 1층의 ‘부천작가코너’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서재’에서는 부천 지역 작가의 작품과 문학 창의도시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주소: (상동도서관) (14594)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상동)
홈페이지: <http://www.bcl.go.kr/>

펄벅기념관

펄 벅은 한국전쟁 동안 부천을 중심으로 전쟁고아를 보호하고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의 처우 개선 운동에 앞장섰으며, 이들을 돌보기 위해 1967년 부천시에 소사회망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하였다. 부천시는 펄 벅 여사의 삶과 봉사정신을 기념하며 그녀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옛 소사회망원 자리에 부천펄벅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 있다.

주소: 경기 부천시 성주로214번길 61
홈페이지: <http://bcmuseum.freewebclub.com/>

문학 창의도시 부천의 대표 행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판타스틱영화제로 시체스영화제(스페인), 브뤼셀영화제(벨기에), 판타스포포트영화제(포르투갈), 유바리영화제(일본), 홍콩영화제 등과 상호 방문하며 교류를 해 오고 있다. 또한 장르영화 전문 프로젝트 마켓인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AFF,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를 출범시켜 우수한 장르영화들을 소개하고 제작을 지원하여 아시아 영화시장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장르영화 교육 프로그램인 환상영화학교를 열어 아시아의 신진 영화창작자를 위한 강의, 워크숍, 팀별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www.bifan.kr/>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만화산업의 활성화와 국내외 만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를 위한 행사로 1998년 부천만화축제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국제만화축제’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되면서 세계 각국의 만화 출판·제작업체와 만화가(웹툰작가, 스토리작가)들이 참가하는 전문적인 국제 만화축제로 자리잡았다. 축제 기간에는 국내외 주제 만화 전시, 애니메이션 상영, 만화콘텐츠 페어, 학술 콘퍼런스,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및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홈페이지: <http://new.bicof.com/>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1999년에 시작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국내 영화제 중 최초로 ‘아카데미 공식 지정 영화제’에 선



정되기도 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상영과 관련 전시는 물론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창작자들과 연구자들의 학술포럼,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제작기획서를 선발해 시상하고 멘토링을 지원하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마켓’을 여는 등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www.biaf.or.kr/>

부천북페스티벌

부천의 대표적인 문학축제인 부천북페스티벌은 책을 매개로 독자(시민), 작가, 도서관, 출판사, 서점 등의 문학과 관련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행사이다. 유명 작가들의 저자 특강, 북 콘서트는 물론 부천시 독서 공동체들의 다양한 체험부스, 국내 출판사들의 체험 및 홍보부스를 비롯해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까지 볼거리가 풍성한 행사이다.

홈페이지: <http://www.bcl.go.kr/>

부천세계비보이대회

매년 9월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개최되는 부천세계비보이대회는 부천시가 주관하고 세계 5대 메이저대회를 석권한 비보이팀 ‘진조크루’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 비보이 세계대회이다. 팝핑 1대1 배틀, 브레이킹 4대 4 배틀로 이루어진 월드파이널을 관람하기 위해 매년 수만 명의 관객이 몰려들고 있다.

홈페이지: <http://bbickorea.com/>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함께 문학을 통해 세계의 연대와 환대, 협력의 정신을 고양하고자 올해 2월 제정한 국제문학상이다. 심사 대상은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현존 작가의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된 장편소설이다. 수상작을 집필한 작가 및 번역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매년 개최되며 2021년 가을 첫 시상식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원주

문학, 2019년 지정



원주는 조선시대 강원감영이 위치했던 강원도의 중심도시였으며,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 박죽서를 통한 여성문학, 김금원의 ‘호동서락기’ 등의 기행문학, 운곡 원석천을 필두로 한 은둔문학의 전통이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문학의 가치가 이어져 인권·생명·민주주의 운동가 지학순 주교, 생명사상·협동조합 주창자이자 민주주의 운동가 장일순, 한국의 민족적 아픔을 26년간 집필한 대서사 ‘토지’의 박경리, 70년대 군사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인 김지하, 한국 동양철학의 대가 김충렬 등의 문인과 사상가로 발현되었으며, 이는 현대 원주 문학정신의 핵심이다. 이러한 문학적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원주는 2019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원주의 명소인 ‘토지문화관’은 한국문학의 산실로 1999년 개관 이래 전 세계 작가·예술인을 대상으로 레지던시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최초·유일의 국제 작가상인 ‘박경리문학상’을 제정하여 세계적인 문학상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원주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원주 한도시한책읽기운동’은 대표적인 범시민 문학 활동으로 손꼽히며, 매년 10월에는 ‘원주박경리문학제’, ‘원주생명문학제’, ‘원주그림책전시회’가 열려 시민에게 문학 향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문학 창의도시 가입 지원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아프리카/아랍국가 간의 문학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랍 문학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해당 지역 국가 도시들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지원해 활발한 문화 교류를 이어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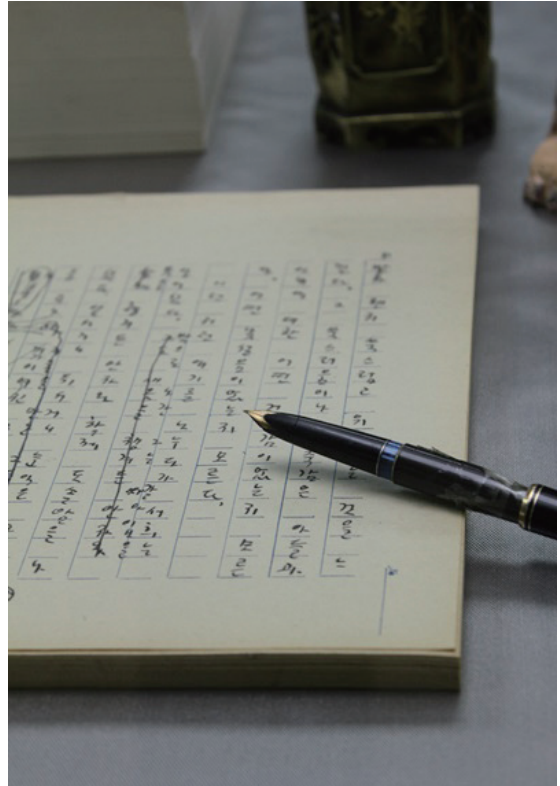
원주의 문학을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

박경리문학공원

박경리 작가가 26년간 집필한 한국 문단의 기념비적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조성된 공원으로 박경리의 옛집, 박경리 문학의 집, 평사리 마당, 홍이동산, 용두레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에서 매년 13만 명 이상 방문해 박경리 작가의 문학적 정신을 기리고 있으며 소설창작 아카데미, 박경리문화학교, 일상예술그림책교실, 소설토지학교, 작가와의 대화, 시낭송 특강 등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다양한 문학 강좌가 열린다.

주소: 강원 원주시 토지길 1

홈페이지: <https://www.wonju.go.kr/tojipark/index.do>



토지문화관

1999년 개관한 토지문화관은 박경리 작가가 문화·생명·환경의 담론을 나누고 후배 문인과 예술인을 돕기 위해 설립한 창작지원 공간으로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창작실이다. 2001년 창작실(레지던시) 사업을 시작한 이후 1160명 이상의 국내외 작가와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아왔으며, 문화체험 및 교육사업, 학술·문화행사의 기획과 추진, 문화행사를 위한 대관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주소: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회촌길 79

홈페이지: <http://www.tojicul.or.kr/>



그림책여행센터 이담

원주의 문화콘텐츠로 그림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다. 시민을 위한 그림책 공간으로 다양한 그림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소: 강원 원주시 단구로 170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wonju_edam



문학 창의도시 원주의 대표 행사

원주박경리문학제

원주박경리문학제는 박경리문학상 시상식, 축하음악회, 문학포럼, 전국청소년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2011년에 제정된 박경리문학상은 박경리 문학정신에 걸맞은, 세속에 타협하지 않은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순수하고 고집스러운 작가정신을 지닌 작가들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tojicf.org/sub2/sub1.html>

소설 토지의 날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가 완간된 1994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5일 박경리문학공원에서 낭독공연, 시낭송대회, 드라마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tojipark.wonju.go.kr>

원주생명문학제

원주문인협회가 주관하는 문학제로 매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시화를 전시하며 원주생명문학상의 작품을 선정, 시상하여 전국 신진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준비 중

원주한지문화제

1999년에 시작된 원주한지문화제는 다양한 한지 공예품의 전시는 물론 직접 한지를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공간 등 원주의 한지공예를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해외 한지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종이박물관, 공예박물관들과의 협력·교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wonjuhanji.co.kr>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은 현대무용, 전통무용, 발레, 창작안무, 방송댄스, 힙합, 무술, 마칭밴드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무대를 만날 수 있는 행사이다. 무대는 퍼레이드 형식의 퍼포먼스로 이루어지며, 거리 퍼레이드 공연과 원주 댄싱공연장의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등을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ww.ddcwj.com/>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 2019년 지정



진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을 비롯한 악(樂)·가(歌)·무(舞)와 전통공예 등의 무형문화재들을 바탕으로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꾸어 왔다. 19세기 말 남사당패와 쌍벽을 이루며 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솟대쟁이패의 놀이, 농악 부문 최초의 무형문화재 진주삼천포농악, 낙동강 유역 오광대 문화를 이끈 진주 오광대가 진주 민중예술의 핵심이다. 한편 진주에는 궁중정재의 검무양식을 온전히 전승해 온 진주 검무, 무용극 형태의 한량무, 공놀이를 춤으로 형상화한 진주포구락무, 한국춤의 기본사위를 담고 있는 진주교방굿거리춤, 즉흥성이 강한 가야금 독주곡 신관용류가야금산조 등으로 대표되는 교방예술이 전승되고 있다. 이 두 전통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전승, 발전되어 온 것이 진주의 민속예술이다.

1949년부터 시작된 ‘개천예술제’는 지역문화 예술축제의 효시로서 전국의 명인·명창들을 배출하는 산실 역할을 해왔다. 예부터 진주에는 수공예의 대표 산물인 옥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옥방이 자리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지리산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와 그 부속물을 가공하던 금속공예가 발달하였다. 한편 진주는 옛부터 실크의 고장으로 유명하였다. 근대 전통실크문직기술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으며, 우리나라 실크 제품의 70% 이상이 진주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2019년 진주는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진주는 ‘진주 공예 및 민속예술 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전시와 공연을 통해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들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의 공예와 민속예술을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교류하는 플랫폼

을 제공하여 공예와 민속예술에 기반을 둔 각 도시의 창작물이 국제무대에 소개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예·민속예술 분야의 기·예능 보유자들과 명장이 국내외 전문예술가들과 공동작업 및 교류를 할 수 있는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가입도시들의 작가 및 예술가의 이동성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창작 기법과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진주에서 새롭게 발행되는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국제 매거진인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열린 창의 역할을 통해 회원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진주는 도시의 문화자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창의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진주 사람이면 누구나 춤 한 자락 정도는 할 수 있도록 ‘1인 1예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택배’사업을 시행해 도시의 포용력을 높이고 있다.



진주의 공예와 민속예술을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경상남도 문화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1988년 개관한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은 소프라노 조수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향, 모스크바 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유리 시모노프 등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무대에 섰던 곳이다. 회관은 도민들이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다양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소: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s://artcenter.gyeongnam.go.kr/>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은 진주시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2002년 6월에 준공하였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인 진주검무를 비롯하여 한량무(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포구락무(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교방굿거리춤(경상남도도 무형문화재 제21호), 신관용류가야금산조(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 등 중요한 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는 터전이 되고 있다.

주소: 52648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번길 96-10 (판문동)

진주오광대 전수교육관

진주오광대 전수교육관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인 진주오광대를 전승하고 탈 및 탈춤을 창작하는 공간이다. 진주오광대를 노는 탈춤 전수교육은 물론, 박으로 제작하는 진주오광대 탈만들기 아카데미 등이 진행된다.

주소: (52648)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번길 96-8 (진양호 내)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injuogwangdae>

두석장전수교육관

두석장은 목제품을 비롯한 각종 가구에 덧대는 금속장식을 만드는 장인 또는 그 기술을 뜻하며, 이곳에서는 두석장 기술의 전수교육이 이루어진다.

주소: (52648)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번길 76 (판문동)

장도장전수교육관

장도장은 몸을 지키는 호신용이자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생활용품의 역할을 겸한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만드는 장인 또는 그 기술을 뜻하며, 이곳에서는 장도장 기술의 전수교육이 이루어진다.

주소: (52648)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번길 76

진주목공예전수관

진주목공예전수관이 위치한 진주시 명석면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목공예 명장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진주 전통 목공예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구들을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주소: (52641)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367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mokgong/>

월아산 우드랜드

월아산 중턱에 위치한 월아산 우드랜드는 전통 목공예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나무를 이용해 직접 목공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목공체험실뿐만 아니라 다목적 영상실과 목재전시실 등의 시설을 통해 다양한 목공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52620)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달음산로 313

홈페이지: <https://www.jinju.go.kr/woodland>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진주의 대표 행사

진주 공예 및 민속예술 비엔날레

진주 공예 및 민속예술 비엔날레는 공예·민속예술 분야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문화다양성 미션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 행사는 전시와 공연을 통해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들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의 민속예술을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공예 및 민속예술에 기반을 둔 각 도시의 창작물을 국제무대에 소개한다. 진주 공예 및 민속예술 비엔날레는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들이 지식, 경험, 실천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 구축될 융복합 포크아트 허브와 시너지를 이루어 창작 활동을 진작함으로써 진주의 공예산업과 공연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creativecity.jinju.go.kr/>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해,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기·예능 보유자들과 명장이 국내외 전문예술가들과 공동작업 및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워크숍, 공동창작, 공동전시회 등을 개최하며 네트워크 가입도시들의 작가 및 예술가들의 이동성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창작 기법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홈페이지: <http://creativecity.jinju.go.kr/>

심화편

①

창의산업과 창의도시의 장소 가꾸기

박경립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창의산업과 창의도시의 장소 가꾸기

박경립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1. 도시 역할의 증대와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

21세기에 들어 국가의 발전에 도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벌써 많은 국가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 국가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듯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도시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궤도에 성공적으로 돌입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도시는 자발적인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하며 소통의 장을 만들고 부단히 노력하여 성공의 가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뒤를 따르는 많은 도시들이 성공한 도시의 결과에만 사로 잡혀, 과정에서 이루어진 많은 실패와 극복의 과정을 보지 못하고 결과만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계획들 대부분이 선진 사례들이 벤치마킹되고 그와 유사한 각종 개발 계획들이 세워진 것이나, 내재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인구의 질적 구성과 역사 문화적 역량의 차이, 지리적 요건 등 수없이 많은 다른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해외사례는 물론 국내의 사례도 좋다고 소문이 나면 대부분 복제되고 확산되어 차별성을 잃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잃고 있다. 산업사회시대의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 대량소비, 이윤의 극대화에 익숙하였던 습관은 탈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도시가 아직도 지난 시대의 개발을 위주로 한 발전 전략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사업과 뉴타운계획, 대단위 구획 정리 사업은 부동산 불패와 결합하여 도시를 삶의 터전보다는 경제 성장의 정글로 만들기도 하였다.

모든 도시에 적용할 만한 전지전능한 개발 이론과 계획은 없다. 컴팩트 시티, 슬로우 시티, 에코시티 등 새로운 이론과 개념이 등장하여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에 눈 뜨게 하지만 좋은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도시 역량과 적절히 부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다행히 유네스코가 창의도시란 이름으로 탈산업시대의 도시 발전 전략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 영화,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식 등의 7개 분야 중 도시의 정체성에 맞는 분야를 중심으로 창의산업을 육성하여 도시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도시의 경제와 고용 등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게 하자는 것이다.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창의도시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창의적인 활동이 전제가 된 도시가 창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도시를 일구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은 누구이고 힘을 합할 구성원의 잠재력은 어떻게 되며 그들의 힘을 합쳐 낼 시너지의 가능성은 어떤가에 대한 정밀 진단이 모든 발전 계획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 창의산업의 가능성과 한계

지난 세기 급속한 개발과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은 반면 잃은 것도 많았다. 자원의 고갈은 물론 자연의 파괴와 공해, 그에 따른 기후 변화와 태풍 등의 재해, 도시 과밀에 의한 사회경제적 문제, 보장되지 않는 노동권 등 수많은 환경적, 사회적 재난을 불러 왔다. 소도시와 농촌은 비어가고 대도시는 더욱 비대해 졌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불특정다수의 집합과 대도시로의 집중은 대도시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예측불가의 상황과 만나 과다 경쟁의 사회를 부추기고 도시에서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소외시켜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나누어 기능에 맞는 조닝(zoning)을 통해 주거문제를 포함한 도시의 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도심공동화 현상을 야기하고 점점 더 몰려드는 인구로 주거 난은 더욱 심각해져 왔다. 교외의 뉴타운 조성으로 한때 숨이 트이는 듯 하였으나 일인 세대의 급속한 증가 등 복잡한 사회 변화로 이 또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제조업 위주의 과도한 생산과 저가 정책, 성장 위주의 정책은 도시의 획일화와 개발을 부추이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오랜 삶의 터전으로 역사문화가 찬란하였던 도시들조차 산업사회에서 소외되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철도망에서 벗어나 침체하게 된 도시부터 역사문화경관으로 가득 차 있으나 일터의 부재로 지속적으로 침체해 가는 도시는 너무나 많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도입을 통하여 일일 생활권을 도모하고 발전의 기반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긍정적으로 접속이 된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드러나고 있다. 손쉽게 대도시로 갈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상권이 속절없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만이 능사가 아니며 세상에 연결되기 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소도시의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나아가는 일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극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소도시들이 더 강력한 매력이 있거나 특별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대부분 성공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창의적 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을 붙잡아 두기 힘들게 된다. 중소도시가 살아남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에 국한 되지 않는다.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다양한 비전과 목표 중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은 가장 중심에 자리 한다고 할 수 있다. 굴뚝 없는 산업을 중심으로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며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살리는 방안은 없을까?

창의도시는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 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다. 작지만 삶의 질이 보장되고 머물고 싶고 보람 있는 일자리가 있는 도시. 문화욕구가 충만한 젊은이들에게도 머물 의미가 있고 매력이 있는 도시. 강소도시의 꿈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만나며 실현가능한 통로를 열게 되었다.

창의산업의 기반과 시대의 요구

7개 부분으로 분류된 창의도시는 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 문학, 음식, 민속공예, 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는 모두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분야이다. 대부분 각 도시의 역사문화를 근간으로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다. 문제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산업의 차원까지 끌어 올리나 하는 것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더욱 확대된 가상공간의 역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것과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대면 시대의 커다란 시설과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환하며 시대의 급변에 대응 하느냐가 당면과제가 되었다.

창의산업은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는다. 대부분 오랜 역사 속에서 갈고 다듬어져 경쟁력을 가진 전통산업을 토대로 다시 태어난다. 장인들이 오랜 세월 속에서 발견한 노하우를 갈고 닦아 발전적으로 이어온 전통의 공예산업 대부분이 그렇듯 최고 수준의 경지에 이른 장인들의 손길과 지역만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특산품은 그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춘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또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은 품질을 보장하면 수요는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품도 시대의 변화와 맞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

단발령이 내려진 후 사라진 것, 서양구두와 운동화의 등장으로 귀하여진 버선과 고무신, 한복의 쇠퇴와 기호품으로만 남은 한산모시, 서양의 마차와 관계한 마구산업 등 사라진 산업은 무수히 많다. 한때 최고의 성과를 올리며 번성하였던 전통산업 중 판로를 새로 개척하여 더욱 확대된 경우도 많다.

고려인삼의 명성은 더욱 발전된 형태로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고 김치의 건강을 위한 성능이 입증되며 비호감을 갖던 나라로도 수출되고 있다. 한국의 발효음식을 대표하는 장 문화도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발효음식의 특징은 처음 접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길들여진다. 간장, 고추장, 된장의 장문화는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다양한 요리에 쓰이므로 한번 판로가 개척 되면 좋은 교역의 산업으로까지 발전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장문화가 소개되고 진화하여 쌈장의 소스로도 수출되고 있다. 음식과 함께 소주의 해외 수출도 급증하고 막걸리도 소비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밀라노에서 열린 ‘2015 밀라노 엑스포’에 출품된 한식은 장문화와 함께 비빔밥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식 홍보관은 비빔밥과 장수 밥상, 닭강정과 잡채 등이 인기였으며 김치찌개는 엑스포 선정 ‘놓쳐서는 안될 음식’ 3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전시관은 사면을 꼭 채운 수백 개의 아름다운 옹기 영상이 가득하여 음식의 홍보와 더불어 옹기그릇의 성능과 질박함을 과시하였고 IT 기술과 합쳐져 한식은 세계화의 가능성을 한껏 보여 주었다. 참여 하였던 음식 관련 업체는 그 후 수출의 길을 열고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음식부분 창의도시의 가장 큰 산업은 음식 그 자체이다. 원자재로부터 완성된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 산업이 가능하다.

그림 1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의 모습. 발효 음식인 장 문화를 비롯한 한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전시였다. 백자의 번안처럼 설계한 김석철 선생의 작품.



그림 2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시관에 설치된 한식당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줄을 길게 서 기다렸고 비빔밥은 최고 인기 품목 중의 하나였다. '한식, 미래를 향한 제안. 음식이 곧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기존 명소의 연결과 활용 - 콘텐츠와 장소의 결합

음식 창의도시의 경우 이미 알려진 명소로부터 주변의 오래된 전통 있는 맛집이 있는 장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보행동선을 확보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름이 알려진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필요 시설을 넣다보면 명소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된다. 당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의 음식을 허용하게 되면 지역의 정체성 훼손은 물론 지속가능한 명소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주변의 음식 명소를 찾아 걸어가는 길은 체류 시간을 적절히 늘리고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체험하게 하며, 오래된 맛집의 음식도 맛보게 하여 이중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거리 살리기와 재생 사업을 병행 하면 효과적으로 탐방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준다.

아쉬운 것은 음식과 술과 함께 하는 그릇의 명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세계적 교역 상품인 그릇산업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누리던 명성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과 그릇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인류가 가장 원하였던 것은 식량을 저장 할 수 있는 저장 용기를 갖는 것이었다. 좋은 흙과 고온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유약의 발굴과 음식에 따른 형태의 조성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토기, 도기, 자기를 만들어 왔다. 수출 품목 중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으며 전쟁을 치러서라도 획득하고 싶은 분야였다. 오랫동안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은 한정 되어 있었으며 도자기의 부가 가치는 국제교역의 최상위를 점하고 있었다.

산업은 시대의 요구와 함께 할 때 번성하게 된다. 송대 발전한 자기는 송나라가 문인 사회로 나아가며 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차문화를 뒷받침하는 그릇의 생산은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슬람은 커피를 마시며 커피잔의 수입과 생산이 매우 번성하였다.

도자기 수출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국가들이 해외정복에 나서기도 하였다. 일본 큐슈에는 임진왜란을 통하여 강제로 건너간 조선 장인들의 기술이 전승되어 지금에 이르는 도자기생산 지역이 7군데나 있다. 각각의 지역이 나름대로의 미의식을 잃지 않고 독특한 미를 갖고 있으며 끊임없이 경쟁을 통하여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

우리에게는 최상의 도자기를 생산한 역사적 경험과 전승된 전통이 전해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음식도시와 민속공예도시가 힘을 합하여 최고의 창의적 산업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음식과 술, 그릇과 보관 냉장고 등은 함께 협력하여 도전해 볼만한 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치 냉장고는 발효음식과 과일의 보관에 최첨단의 물품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야의 최고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창의적 전환

역사 속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던 산업들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라지게 된다. 대표적인 산업이 자전거와 자동차의 등장에 의하여 쇠퇴한 마구산업을 들 수 있다. 한동안 침체기를 겪으며 많은 업체들이 파산하였고 지역의 경제 또한 침체하여 갔다.

그러나 마구산업은 패션산업으로 전환하며 훌륭하게 부활한다. 마차와 말의 사용은 급격히 줄었지만 마구산업의 기본인 가죽과 염색, 철 장식을 다루는 솜씨는 현대에 들어 패션의 주 아이템인 핸드백, 가죽구두, 장신구 등으로 전환하며 마구산업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세상의 가장 스테디한 품목으로 명성을 이어가게 되었다.

사무라이의 칼도 비슷한 경로를 겪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사무라이의 시대가 가며 칼의 수요는 급격히 떨어진다. 칼을 생산하였던 지역은 중요한 품목을 잃고 침체에 빠진다. 그러나 평화의 시대를 맞으며 장인의 솜씨는 부엌칼로 부활한다. 손톱깎이를 비롯하여 생활 품목으로의 전환은 지역 산업의 명성을 이어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뛰어난 수공예 품목을 갖고 있었다. 통영의 갯은 선비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필수품으로 그 명성을 이어왔으나 단발령과 함께 갯을 만드는 장인도 뛰어난 공예품도 사라져 버렸다. 작고 예쁘며 지역 장인에 의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생산되었던 소반도 커다란 교자상과 입식 식탁의 등

장과 함께 사라져 가고 있다. 국가의 무형문화재 정도로 남았을까? 지역의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이다. 갓을 만들던 재료를 다루는 솜씨와 정교함, 디자인의 격조를 감안하면 아쉬움이 매우 크다. 지금 시대의 요구에 따라 창의적으로 전환하는 발상을 하였다면 지금쯤 최고의 공예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윌리엄 모리스에 의하여 시작된 수공예운동은 초기 산업 혁명 이후 점점 조악해 가던 상품들의 품질에 반발하여 시작된 것이었다. 기계생산으로의 전환기에 적응하지 못한 품질의 질은 기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공예의 패턴을 기계로 직접 전환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전환에는 그에 상응하는 진통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요즘 들어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호미와 같이 세상이 필요로 하여 해외수출의 대상이 된 품목도 있다. 특허 등록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면 어떨까.

협업과 역량의 결합

창의도시는 과거의 역사에만 기대지 않는다. 정보화 사회에 문화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영화와 미디어아트를 도시의 발전 중요한 기반으로 택한 것이다.

미디어아트도시와 영화도시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문화적 향기가 동반된다. 영화제와 많은 공연이 시연되고 관계자들이 세계에서 몰려든다. 그러나 대부분 이벤트로 진행되고 산업화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지지 않는다. 생산, 홍보, 판매는 다른 영역의 일이다. 교류와 수출은 우리가 우리 것이 좋다고 우긴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원할 때 이어지는 것이다.

이 두 분야는 기술과 콘텐츠의 만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코로나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절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업의 분야이기도 하다. 문화도시의 역량과 미디어아트와 영화와의 결합은 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는 영화화되며 장르를 넘어 세상과 조우를 하였다. 영화 속에 등장하였던 1949년부터 운행하였던 증기기관차는 영국 북부의 작은 스카이섬으로 가는 길의 관광열차로 운행되며 주변 자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같은 예는 수없이 많다. 만화와 웹툰은 기술의 역량에 힘입어 영화화되고 세계화되고 있는 영역이다.

세상의 시선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라 문화이다. 제3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은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행히 우리에게서 오랜 세월을 거치며 전승된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있으며, 세계 1위를 달리는 반도체산업과 디지털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콘텐츠 또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7개 부분의 도시들이 협

력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야이다.

사회적 요구와 함께 하는 디자인과 기술, 콘텐츠와 장소의 결합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게 할 것이다. 어느 부분의 창의도시가 되었건 그 부분의 도시들만의 교류와 협력은 매우 한정적일 수 있다. 다른 부분의 창의도시와 열린 협력을 통하여 더욱 창의적인 산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창의산업 부분은 그를 중심으로 도시의 역량을 모으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폐쇄적인 구성으로 가능성의 한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3. 장소 찾기, 이어주기, 새롭게 다시 만들기

콘텐츠와 의욕이 있다고 창의산업이 저절로 육성 되지는 않는다. 그를 담아줄 장소와 시설은 출발점을 확실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구심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창의도시의 이미지를 체험하고 공감 할 수 있는 장소는 창의도시의 발전에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스 아고라가 그러했듯이 사람이 모이는 빈 자리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는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고 배우는 장소가 되었고 발전하여 시민여론의 광장이 되었다. 비어 있어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고 모이는 장소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다. 로마의 포럼, 피아짜, 프라자로 이어진 이 공간은 현대도시에도 이어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는 건물로 채운 곳과 비어진 곳으로 구성된다. 도심으로 밀집이 되면 될수록 비어 있는 공간의 가치는 증대한다. 더욱이 차량 위주의 사회로 진입하며 훼손되었던 보행 공간의 부활은 이제 필수적이다.

그림 3
빌바오 구겐하임 부근의 보행전용 다리. 강변을 살리는 계획은 복잡한 도심의 자연 생태계에 생명력을 주고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떨어진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는 아름답게 조성된 보행자 전용의 다리도 한 몫하고 있다.



그림 4

벼룩시장으로부터 축제와 각종 집회에 이르기까지 도심의 광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삶을 담아 준다.



그림 5

비어 있는 공간은 도심의 밀도를 낮춰주고, 외부공간에 마련된 식당은 파라솔과 주변의 건물로 인해 외부공간이지만 실내에 있는 듯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림 6

자동차가 사라진 거리는 걷기 좋은 거리가 된다. 속도를 제어하는 일은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이다.



라이프 사이클과 재생

건축도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다. 물리적 성능은 아직 쓸 만하지만 사회적 수명을 다하여 제 기능을 못하는 건축도 많다. 그러나 새로운 용도의 사용으로 부활한 건축도 많다. 왕궁과 관청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으로 전환되고 문화관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공간적 배려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가변성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필수 요소이다. 하나의 기능에 한정된 구조와 형태는 사회적 기능을 다하면 물리적 수명과 관계없이 무용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성이 없는 획일화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 시설의 적절한 활용으로 시설 투자를 최소화 하고 친환경적 재생을 통하여 다핵이 존재하는 국토 다양성 만들기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만드는 세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가 모든 지역을 다 투자 할 수도 디자인 할 수 없다.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산하여 나가야 한다.

선택과 집중, 연결과 소통은 실제 장소에서 실천될 때 의미가 더해진다. 광장과 거리, 랜드마크와 이어진 역사거리와 골목길 등은 역사적 사건과 스토리와 함께 도시의 각 부분들을 연결시키고 함께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그 도시만이 할 수 있는 정체성 있는 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림 7
옛 문화유산과 새로운 건축의
균형과 조화는 도시 재생의
발걸음을 내딛게 한다.



그림 8

역사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그 장소를 더욱 빛나게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보존이 잘 되게 한다. 그러나 활용 시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가변적인 계획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접근성 확대와 걱정거리

밀레니엄을 맞아 영국 런던은 야심찬 계획을 실현한다. 올림픽 유치 준비와 연계되어 낙후된 강가의 시설들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명소로 재활 시키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들 중 몇몇은 아주 크게 성공을 하였고 어떤 계획은 철저히 실패하였다. 아직도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대부분 이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접근성 확대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행위를 받아주는 장소간의 효율적 네트워킹으로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런던아이를 중심으로 한 강가에는 전철역과 새로 조성된 다리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멀리 떨어져 연결이 어려웠던 테이트미술관과 중요한 장소를 보트로 연결하였다. 방치되어 있던 발전소를 리모델링한 테이트모던 같은 곳은 재생의 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런던브리지로

부터 이어진 긴 강변로에는 런던 시청도 새로 지어 보행로 중간 중간에 볼거리와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고 자동차의 방해 없이 안전한 보행전용로를 조성하였다. 자동차로만 연결되던 이곳이 보행로로 연결되며 많은 공연장과 미술관의 접근성이 확보 되었다. 런던아이와 아쿠아리움과 연이어진 광장, 이곳을 채우는 마임이스트들의 다양한 공연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천천히 도는 케이블카는 런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 역사문화도시 런던을 체험하게 한다. 흩어져 있는 보물들을 구슬로 연결하여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한 것이다.

그 곳에 설치된 가로외의 장의자에는 “모든 사람들은 앉아서 생각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삶의 위치를 생각하게 하는 비어있는 의자는 삶의 여유를 주며 도시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림 9

런던 테이트모던 갤러리. 건물 재생의 좋은 사례로 꼽히는 이 건물은 템스강변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도심 환경을 좋게 하고 런던의 이미지와 삶의 질을 높이려는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강 건너 지하철역과 걷고 싶은 거리로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의 다리, 명소가 된 미술관, ‘테이트 미술관’과 ‘테이트 모던’을 이어주는 보트택시 등 접근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그림 10

우여곡절 끝에 등장한 런던아이는 서서히 돌며 런던의 도시 경관을 조망하게 한다. 버스, 지하철, 자가용뿐만 아니라 강을 오가는 보트택시까지 연결하여 명소를 이어주고 보행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부분의 시설들은 서로 긴밀하게 접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림 10

비어 있는 광장을 채워주는 것은 상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거리에서의 공연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머물게 한다. 장소를 채우는 콘텐츠가 함께 하여야 장소의 가치는 높아진다.



그림 11

템스강변에 놓인 의자.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우리의 바쁜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도심 곳곳에는 사람들이 앉아 쉴 곳이 필요하다.



그림 12

런던 밀레니엄 돔. 많은 정성을 들인 건축도 그 안에 담을 의미 있는 콘텐츠와 만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을 보여준 건축이다.



이렇듯 강변에 사람들이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하고 분리되어 있던 각 명소를 이어줌으로써 템스강변은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치안도 확보되고 부근의 식당들은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야간에도 접근성이 뛰어난 이곳은 도보 접근의 가능성과 함께 24시간 열려있는 접근성이 성패임을 보여준다. 이제 런던은 파리에 버금가는 관광과 문화의 도시로 떠올랐고 죽어 있던 강가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에 비해 강 상류에 있는 밀레니엄 돔의 경우 세상의 조명을 한껏 받고 등장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지 관리 문제로 문을 닫고 있었다. 최근에는 공간 활용 계획이 구체화 되어 다시 활성화를 앞두고 있다. 의미 있는 활용 계획이 없으면 훌륭한 시설과 건축 투자가 이용 인구 유입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마카오는 언덕위에 자리 잡은 ‘성 바울성당’이 주변 상권과 근접하여 있음에도 상당한 레벨차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서로를 보호하고 있다. 성당 전부를 복원하지 않고 남겨진 전면 파사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발굴된 성당 내부는 유리로 덮어 흔적을 보이게 한 이곳은 마카오의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성당 앞의 넓은 계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약속 장소가 된다. 역사문화유산이 일상 속에서 만남의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면 계단의 아래편에는 점점 좁아지며 밀도가 높은 작은 매력 있는 다양한 상가들이 조성되어 이곳을 활력 있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

유산을 포함한 명소, 적정 거리의 확보, 밀도의 조정, 머물 수 있는 시간의 확보 등은 도시를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장소로 만들어준다. 곳곳에 위치해 있는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들은 머물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준다.

그림 13

마카오 '성 바울 성당'의 파사드와 전면 계단.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만나는 가장 유명한 명소중의 명소이다. 아래로 연결된 골목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밀도가 높아진다. 문화유산과 밀도 높은 상업 공간 사이가 밀지 않지만 높이차에 의해 적절히 분리되어 각각의 공간성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



그림 14

문화경관은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보호구역의 설정과 지정된 짧은 거리에 의해서만 확보되지 않는다. 경관 축을 살피어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구성 하고 보전 할 것인가가 심도 깊게 논의 되어야 한다.



그림 15

거리를 이용하는 인구의 지속적 확보는 거리를 점유한 상점과 음식점, 문화시설 등 건축의 다양한 구성과 관계한다. 보행속도를 줄여 보행자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빌바오는 지역 산업의 침체를 벗어나려 문화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세상에 등장 하였다. 구겐하임미술관은 프랑크 게리라는 비정형 건축의 세계적인 건축가를 초빙하여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오랫동안 문화시설 도입으로 인한 성공 사례의 교과서와 같이 불리었으나 최근 들어 성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겐하임은 성공 하였으나 지역으로의 확산은 부진하여 일고 있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주변 지역이 대부분 구겐하임의 성공에 기대어 시설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팬데믹을 겪으며 매스관광의 침체가 심화되고 지역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확산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동력에 기대어 이루어진 활황의 한계가 논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16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그림 17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미술관 옆으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광장이 조성되고 보행거리도 조성되어 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수 없이 찾아진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자체의 정체성 있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계획들이 무수히 시도되고 있다. 상당부분이 희망적인 인구지표와 자금조달 계획에 의거하여 검증할 시간 없이 제시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짧은 시간 안에 조급히 하는 시도는 좋은 의도라도 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도시는 다수의 다양한 여러 주체(사람 뿐 아니라 비인격적인 여러 사물과 조직을 포함)들이 다원적 가치관과 생존 논리를 갖고 다중적 망(network) 구조를 이루면서 삶을 영위하는 모듬살이 형식인 것이다.”(강병기)라고 도시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강병기 선생은 일찍이 단선적인 개발우주의 도시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지는 와중이었던 1979년부터 지속적으로 <왜, 도시설계가 필요한가>, <도시설계의 정의와 범주>, <느슨한 시스템>, <Mono-에서 Multi-로> 등의 기고를 통하여 수명이 긴 문화 유전자를 찾아내어 그것을 모태로 한 미래의 문화적 발전인자를 부가하는 창조과정을 건축과 도시 만들기에 스며들게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4. 도시의 필수 시설과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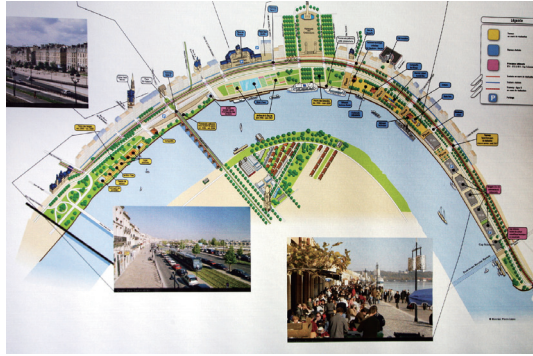
어떤 도시이건 시민들의 삶을 삶답게 받아 주어야 하는 시설과 장소가 필요하다. 도시가 아무리 커지고 정보화가 진행되어도 집 근처 산책할 거리를 필요로 하며 집 주변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를 필요로 한다. 집은 각종 소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거리는 쉽게 읽히고 걷다가 쉴 의자도 필요 하며, 일터까지 정체 없이 가길 원하고 장사는 잘되길 빈다. 집 근처에는 공공의 교육기관이 있고 사설 강습소와 문화회관도 있어야 한다.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도시는 필수 요소들 간에 상충되는 요구를 조절하고 바람직하며 조화로운 전체로 조정해 나가는 일도 하여야 한다. 각각의 시설은 문턱을 낮추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하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조절의 요체인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시와 자연이 시각적으로도 의미 있게 만나도록 하여야 한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많은 지역의 도로는 가능하면 도로와 인도에서 산이 보이도록 디자인 하며 산에 너무 다가가 높은 아파트들이 경관을 가로막게 하지 말아야 한다. 강과 호수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가 되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 분할되어서도 안 되고, 공공의 자산인 강과 호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홍수가 난 지역을 복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토목공사로 접근하여 생태를 교란하고 훼손시키며 자연스러운 경관을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

그림 18

보르도 시의 그린 인프라 만들기를 통한 수변 공간 도시 재생 계획. 도로를 차지하고 있던 자동차 주차장을 사람들이 쉴 수 있으며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조경으로 바꾸었다. 미분무 분수광장으로 전환하여 평소에는 광장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분수가 나오는 시간에는 주변의 열기를 식히고 즐거움을 주는 분수의 광장으로 만들었다.



7 juin 02



18 juin 02

그림 19

자동차가 차지하던 강변이 사람이 접근 할 수 있는 광장으로 탈바꿈 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21 mai 07

이렇듯 도시를 가꾸는 일은 표피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일을 근간으로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조화시키는 일을 하여야 한다. 많은 요소가 있을수록 색과 재료를 절제하고 높낮이를 조절하며 틱을 없애어 남녀노소, 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5. 다양성 vs 획일화

지역의 삶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지속가능성과 생명력이 없게 된다. 몇몇 전문가가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기능에 맞는 계획이나 디자인을 제시한 것이 한동안은 유효할지 모르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항상 전문가가 그 일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이 살고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장소적 특성을 살리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장소적 특성이란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 식생뿐 만 아니라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와 삶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장소 특정적 예술(site specific art)”이라는 개념에는 이 같은 개념이 녹아 있다. 문제의 핵심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곳에서의 좋은 경험을 다른 장소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각의 지역과 장소가 가지는 가치를 알아내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만이 생명력을 가지며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시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을 위해 억지로 만드는 것들은 생활의 기반을 흔들리며 주민들을 외곽으로 밀어 버리고 말게 된다. 지역을 살리려는 축제들도 주민을 기반으로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자칫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축제꾼들을 양산하여 외적으로 호화로워 보이거나 전국적으로 똑같은 축제를 만들어 동시에 고사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역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설정 없이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설정한 표준설계가 획일화되고 유형화된 모습으로 일방적으로 하달되면 오히려 그간 있었던 다양성마저 죽이고 획일화의 길을 걷게 만들 것이다.

각각의 지역이 그들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일궈온 생활을 기반으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활을 흔들리지 않으며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다. 비슷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비슷하게 마련이다.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는 비슷한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진정한 차별화를 함께 모색하게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요즈음 유사한 벤치마킹을 통해 거의 동일한 일을 복제 반복하여 동시

에 고사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컴퓨터의 도움으로 지역적 특색과 관계없이 복제되는 계획과 디자인이 각 도시에 적용되어 정체성을 잃게 하고 있다. 각 지역은 복제화되어 진행되는 곳은 없는지 정보를 공유하며 모니터링을 지속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창의 인력의 확보와 보존이다. 그리고 시의성이다. 인구의 구성과 특성에 기인한 인구 상황, 그 시기의 생산성 및 경제 상황 등이 고려된 계획이 될 수 있게 기초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일과 각 지역의 장점과 어려운 점 등을 알리고 사업의 시기와 크기를 조정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크고 작은 사업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각 지역의 특색을 지우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들뜨게 하여서는 안 된다. 주민 참여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서류뿐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필요한 전문가가 함께 하며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

6. 속도의 제어와 정체성 찾기

지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수없이 반복되지만 대답을 한마디로 하기는 쉽지 않다. 과연 행정적 구분이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을까?

지역의 정체성 찾기는 이 시대의 과업인양 회자되고 있지만 실제로 넓은 지역을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묶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대부분 도시의 정체성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에 대응한 사람들의 역사문화와 연관된다.

한 도시 속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고 그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며 경관을 달리한다.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역할에 따라 지어지는 건축의 형태, 기능, 공간, 스카이라인 등이 달라지며 그들의 집합에 따라 도시의 경관은 달라진다. 그러나 요즈음은 기능의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어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함께 하여야 한다.

정체성 찾기는 더욱 작은 단위로 진행되어야 한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도심의 다운타운은 다운타운대로 그 스스로 각각의 가치를 들어내고 간직하게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거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쓰임새가 다한 것 같은 낙후지역도 방치하지 않고 훼손된 자연을 치유하며 보완하여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게 하며 새롭게 출발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지난 세기 개발이라는 이름을 발전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거의 역사와 유산을 쉽게 훼손시키고 각 지역이 오랫동안 가꾸었던 정체성을 함께 지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급속히 진행되며 지역의 산천을 바꾸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이 남아 있으며, 아직 지역

의 중소도시들은 치유가 불가능 할 정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이렇듯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시작하려면 지역의 장소적, 환경적 특성과 역사문화의 기반으로부터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건 한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의 환경과 그에 대응한 역사문화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공공과 시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과도한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각 지역의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한꺼번에 벌여서는 안 된다. 창의적 접근은 가장 적은 예산에서도 시행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이어야 한다.

7. 경쟁력 있는 매력 있는 공간 가꾸기: 접속과 연결 그리고 창의적 시작점 찾기

이용률과 충족도

21세기 들어 중요한 화두중의 하나는 ‘소유의 종말과 접속’이다. 필요한 시설을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에 이미 조성된 시설을 면밀히 조사하여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입지의 건물을 택하여 접속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이용률도 높이고 재정의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도시의 발전 전략에는 건물의 신축이 들어있다. 필요한 행위들을 담기 위하여 공간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요구를 담기에는 과거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전 계획에는 건물과, 거리, 광장 등 새로운 시설들의 제안이 들어있는 것이다.

지난 20세기 말 열풍처럼 지어진 우리나라 시, 군의 각종 문화관련 시설도 상당수가 열악한 재정으로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개점 휴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을 먼저 갖추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연장과 문화시설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용률의 저조는 물론 충족도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시 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도시의 경우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마다 새로운 시설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라며 각종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활용가능한 지역의 건물 자원을 찾아 접속하게 하여 기존 시설의 이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제는 보다 지혜롭게 지역의 기존 시설을 다시 살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새로운 시각에서 낙후되어 가는 구도심의 장소적 가치를 제고시켜 구도심도 살리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며 도시들은 과도한 개발과 획일화 되어가는 도시들은 서로 닮아가며 정체성을 잃고 경쟁력도 잃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큰 타격은 대도시로의 이탈이다.

도시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인구이다. 특히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인구의 필요성은 창의도시로의 접근에 필수적이다. 새로운 창의적인 시각으로 도시의 인적자원을 새롭게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외지의 연결 가능한 인적 자원을 파악하여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경제적 역량 못지않게 역사적, 문화적 향기와 품격이 느껴지는 도시의 이미지를 갖추어야 한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이 둘이 서로 긴밀하게 엮어져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다.

살만한 도시에는 비어있는 이름이 붙여진 중심 공간이 있고 이어지는 걷기 좋은 거리가 있어야 하고, 좁은 골목길에서 길게 이어지는 가로수길이 어울려야 한다. 걷다가 쉴 수 있는 공간과 목마르고 시장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 짧아서도 관광의 맛은 떨어진다.

특히 접근성이 좋아야 자주 가게 된다. 너무 가까이 있어도 너무 멀리 있어도 집합의 효과는 떨어진다. 그래서 좋은 장소 만들기에서 출발하여 좋은 거리 만들기로 이어진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도시에는 보행자 전용거리가 있고 그 거리에는 좋은 건물로 둘러싸인 광장이 있고 그곳에는 그 거리만의 특색을 드러내는 음식점과 상점들이 있다. 곳곳에는 벤치가 있고 그 광장에는 거리의 역사부터 마임 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행위를 담고 있다.

요즘 많은 도시들이 전 시대의 유물로 취급하였던 전차를 도입하여 성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보르도(Bordeaux)시는 몇 년 전 트램을 도입하여 도시 활성화에 성공하고 있다.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활발한 이동을 유도하여 시 전반적인 활력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 구도심과 신시가지의 연결은 물론 경

그림 20
개인 차량으로의 접근 대신에
공공 교통수단인 트램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자동차 주차장을
사람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였다.





그림 21

강변의 광장은 시간대에 따라
뿔어져 나오는 미분무의 분수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달구어진 도로를 식혀주고
자동차로 가득 차있던 곳이 이제는
또 다른 명소가 되었다.

그림 22

도시를 한 바퀴 도는 환상 도로와 도심을 관통하는 트램의 설치로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한 결과 도시민의 삶은 물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도시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 도시의 중요 장소를 잘 이어주고 안전하고 편하게 접근하게 하는 것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관이 좋은 곳과 역사적인 장소, 백화점, 멀리 떨어져 접근성이 떨어졌던 문화 시설까지 연결하고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각각의 도시는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도시를 발전시킨다고 모든 도시를 다시 디자인 할 수는 없다.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중요장소를 택하여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유네스코가 원하는 창의도시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찾는 일이 아니라 창의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창의적이어야 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거우며 보람을 느껴야 한다. 낡았다고 버렸던 구도심과 과거의 유물이라고 소홀히 하였던 도시의 다양한 장소와 좁고 구부러진 골목길조차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 그 나름의 가치를 발견하고 갈고 닦으며 서로를 지혜롭게 연결하여 한계에 부딪친 개발 위주의 도시 만들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형성된 도시에는 반드시 그 도시만의 역사적 흔적을 층층적으로 갖고 있으나 지난 세기를 거치며 많이 파괴되고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각 도시에는 과거의 모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며 각 시대의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간직하고 있다.

도시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걸작이지만 어느새 사람은 소외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이제 다시 사람들을 위한 도시 만들기로 되돌아가야 한다. 창의적인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웃과 상생 공존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선부르게 손을 대면 델수록 정체성을 잃기 쉬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마다의

전략과 더불어 도시 각 부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세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8. 그린 인프라 조성 빈곳 만들기

환경과 단절된 건축 만들기에서 탈피하여 환경과 함께하며 공생하자는 시도는 환경의 의미를 진지하게 살피게 한다. 도시가 점점 과밀화 될수록 도심내의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은 더욱 필요하게 된다. 자연이 지속가능해야 건축과 도시를 지속적으로 품어주며 그 속에서의 삶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면, 자연을 살피고 치유하는 일은 모든 새 출발의 시작이어야 한다.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였던 건축과 도시에게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 태어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매력적이다. 새롭게 한다고 다 바꾸는 것은 가장 실효가 떨어지는 전략이다. 가장 활용을 잘하는 것은 이왕 그곳에 지어져 있는 역사문화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연 환경의 가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Renovation, Rehabilitation, Renewal, Remodelling 등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이들 모두 물리적이건, 사회적이건, 기능적이건 기본을 살리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하여 지속사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의미 있는 접근 방안들이다.

시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다.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니 삶이 변화하면 건축도 변화하여야 한다. 건축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도시도 변화한다. 반대로 도시가 변화하면 건축도 변화하고 건축이 변화하면 삶도 변화하게 된다. 서로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사람과 건축, 그리고 도시의 라이프 사이클과 사회의 라이프 사이클이 서로 다르다는데 있다. 훌륭한 건축가에 의해 잘 프로그램 되고 조형된 건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 하여도 삶의 다양한 측면과 변화하는 요구를 담을 수 없다면 그 또한 무용지물이 된다.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고 도시는 건축의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시가 지어진 땅을 빌려서 산다. 도시는 건축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좋은 도시는 좋은 건축이 만들고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나 좋은 건축을 나열한다고 곧바로 좋은 도시가 되지는 않는다.

부분은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부분의 물리적인 집합이 곧바로 전체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좋은 건축과 도시를 만드는 것은 건축과 건축을 이어주는 관계와 건축과 사람과의 관계,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에 의해서이다.

그림 23

도심 곳곳에 작은 소공원을 만들고 쉬게 하는 것은 도시의 삶을 풍요롭게 할뿐 아니라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삶이 그렇듯이 건축도 도시도 완성은 없다. 삶이 한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듯 건축과 도시도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창의적 선택을 하여야 한다.

처음 부여한 건축과 도시의 기능이 라이프 사이클을 다하면 당연히 다음 사이클을 위한 다른 기능의 부여는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공간과 형태의 변화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형태와 공간은 그대로 두고 속의 내용만을 달리하여도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도 있다.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양한 삶의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릇으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그를 위하여 남겨진 자연이 변화를 묵묵히 버텨주는 도심 산소탱크 역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작게는 주거지 골목길 ‘포켓 가든’으로부터 크게는 역사문화 공원에 이르기까지 도심 내 곳곳에 나무와 숲이 함께하는 그리니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림 24

문화유산은 그 자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외에도 도시의 그린 인프라를 지켜내고 고밀도 개발에 의해 숨쉬기 어려운 도시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그림 25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그를 애써 지켜온 우리의 삶은 우리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점점 더 고밀화되고 고층화될수록 고유의 문화유산은 더욱이 빛이 난다.



그림 26

한때 2차선 도로였던 길을 일방향 도로로 바꾸고 경계석 철거, 보행 도로 확장, 조경을 하여 사람 위주의 환경과 이름을 되찾게 된 '덕수궁 돌담길'의 모습.





20세기 발전을 주도하던 개발의 위력과 관성이 남아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개발은 시민이나 국가를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에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 공급원이 끊임없이 공급을 위하여 적절한 수요와 관계없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자연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만을 위한 도시 만들기에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왔고 아직도 그 관성의 힘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도시도 건축도 사람도 조금씩 양보하여야 한다. 이 땅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귀중한 유일한 터임으로,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다루어야 한다. 건축의 공공성이 도시의 자양분이 되게 하고 공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자연의 이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개념의 도시 조성에 나서야 한다. 이때 '리사이클링'은 매우 유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린의 인프라를 만드는 일은 그의 근간이 될 수 있다.

9. 마무리하며

창의도시에 가입 한다고 도시가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가 지닌 가치 있는 자원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목록화하고 그를 기반으로 가능한 산업을 찾는 과정에서 융합과 창의적 파괴도 함께 시도 하여야 한다. 행정 단위에 한정되어 가능한 협력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때로는 분야를 넘어, 때로는 도시와 국가를 넘어 협력하며 배우고 나누어야 한다. 창의도시의 가입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 하여야한다.

세상은 정보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며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Covid-19 팬데믹은 그간 금과옥조로 여기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도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렇듯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의 일상이 급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열려있던 세상이 문을 닫아걸고 있다. 많은 산업이 파산하고 있으며 지자체나 국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와중에도 비대면으로 확장된 세계가 크게 열려지고 있다.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자는 주변 가까이만이 아니라 온 세상 도처에 있다. 이 열려진 세상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유일성을 획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에 출발점이 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택트 시대에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도 디지털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 넓은 세상과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 위기는 기회이니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도시들은 이를 활용하여 도약의 기반으로 삼았으면 한다.

어떤 전략이나 컨셉을 택하건 도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로 인하여 창의도시와 창의산업도 다양한 변화를 맞이할 수뿐이 없다.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 즐겨 협조하며 함께 하면 그 과정에서 얻는 결실과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행운일 수 있다.

참고문헌

조용준, 일본 도자기 여행 규슈의 7대 조선가마, 도서출판 도도, 2016
박경립,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 2014 GASS 국제심포지엄,
싱가폴대학교

박경립, 어반 리사이클링 (Urban Recycling)과 그린 인프라 만들기,
2006, 한국건축가협회 세미나

박경립, 춘천임기: 부분과 전체로서의 건축과 도시 그리고 삶,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총서III,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5.

강병기, 법고창신의 길은 없을까? 문화-공간 시론, 도심내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갈등(2), 한국건축가협회 금요토론회, 2004

사진 저작권자: 박경립

심화편

2

도시발전전략으로서의 창의도시: 정책적 고려사항들

박세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도시발전전략으로서의 창의도시: 정책적 고려사항들

박세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y Network, UCCN)에 가입한지 이제 10년을 넘었다. UCCN 사업은 2004년 문화와 창의성에 기반하여 창의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 도시들은 2010년 서울과 이천이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총 10개 도시가 가입하였다. UCCN 가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UCCN의 취지와 그것이 우리 도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¹

1. 이와 함께 그동안 우리나라 UCCN 가입도시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개별 도시들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국내 가입도시간 협력 활성화 방안, 국제협력 촉진 방안 등 가입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UN의 의제는 보통 추상성이 높고 규범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것은 UN의 의제가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UN의 의제는 개별 국가와 도시마다 여건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창의적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도시의 발전과제, 문화적 여건, 조직의 역량 등에 비추어 UCCN의 정신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수용과정에서 무엇을 주요과제로 할지 등은 UN이 아닌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장은 우리의 도시문화정책 여건에서 비추어 볼 때 UCCN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UN에서 문화와 도시발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특히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2016년 새로운 도시의제(The New Urban Agenda) 속에서 문화와 창조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도시문화정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UCCN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논의할 것이다. UCCN이 단독으로 고립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도시정책, 문화정책의 맥락 속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도시문화정책의 맥락과 관행을 이해할 때 UCCN의 의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UCCN을 하나의 도시발전전략으로 이해할 때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UCCN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창조성, 문화,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발전

2. 사업목표의 정확한 표현은 “ 창조성을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는 도시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것(aim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and among cities that have recognized creativity as a strategic fac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regards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이다(https://en.unesco.org/creative-cities/sites/creative-cities/files/uccn_mission_statement_rev_no_v_2017.pdf). 유네스코는 창조성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문헌을 통해 볼 때 전통적인 문화와 예술, 문화유산,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창조산업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통적으로 이 부문이 ‘문화’의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본 장에서도 창조성과 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영어원문과 번역문은 지속가능발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ncsd.go.kr/api/UN-SDGs.pdf>).

UCCN는 문화와 창조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 따라서 우리는 UN이 견지하고 있는 문화와 지속가능 도시발전(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의 의미와 상호관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UN 결의서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문화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SDGs를 도시부문에서 구체화된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제(The New Urban Agenda)」에서 문화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유엔 총회가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채택한 17개 목표를 말한다. 이는 2015년 만료된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목표로 채택되었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UCCN 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³

그럼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문화와 창조성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문화는 목표 11번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공간 조성“에 가장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문화가 도시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목표 11번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만큼 오늘날 문화가 오늘날 도시적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 11.4는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 관련 목표가 11.4의 문화유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목표와 마찬가지로 문화관련 목표 역시 여타 17개 목표와 횡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목표 4.7은 차별없는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으며, 목표 8.9는 지역문화와 생산물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문화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문화는 지속가능한 농업(목표 2), 모두를 위한 교육기회 보장(목표 4), 젠더 평등의 보장(목표 5), 불평등의 완화(목표 10),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공간(목표 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목표 12) 등 거의 모든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2019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문화영역에서 구체화하고 그 진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지표(「Culture 2030 Indicators」)를 제시하였다(UNESCO, 2019). 이 문서에 의하면 문화는 다음의 네 가지 주제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전체와 연계되어 있다. ① 환경과 회복탄력성, ② 번영과 생계, ③ 지식과 기술, ④ 포용과 참여가 그것이다. 유네스코는 각각의 영역에서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문화를 지속가능발전목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림 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주제별 문화지표

출처 :
UNESCO, 2019, Culture 2030 Indicators, Paris: UNESCO



4. 「새로운 도시의제(The New Urban Agenda)」의 원문은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https://habitat3.org/the-new-urban-agenda/>), 국문 번역은 박세훈 외(2016)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도시”와 관련된 목표11은 2016년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새로운 도시의제」는 2016년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가 주관한 해비타트 III 대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으로, 향후 20년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도시정책의 지향을 담고 있다.⁴

「새로운 도시의제」는 문화를 여러 부분에 걸쳐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그 중 제10조의 표현이 가장 포괄적이다.

- 「새로운 도시의제」는 문화와 문화다양성이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또한 도시와 인간정주, 시민이 발전 과제에 적극적이고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책임 있는 자원 활용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새로운 도시의제」 제10조)

이상의 표현은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에 갖는 적극적인 역할을 드러낸다. 문화는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며,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책임있는 자원 활용에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문화의 역할은 이하에 여러 조항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다음의 도시정책, 사회통합, 경제적 생산성 증대 등이 대표적이다.

- **도시정책:** 우리는 통합적인 도시 및 국토정책과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적절한 투자를 통해, 도시와 정주공간에서 유·무형의 자연 및 문화 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새로운 도시의제」 제38조)

- **포용성 증진:** 우리는 도시 및 정주공간에서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 또한 사회통합, 문화간 대화와 이해, 관용, 상호존중, 양성평등, 혁신, 사업가정신, 포용, 정체성과 안전,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새로운 도시의제」 제40조)
- **창의산업:** 우리는 도시경제가 고부가가치 부문을 통해 보다 높은 생산성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지속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여기에는 연구, 문화 및 창의산업,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예술 및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증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새로운 도시의제」 제60조)
- **문화유산 활용:** 우리는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의 활용을 지원할 것이며, 참여 및 책임 활성화 측면에서 문화유산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한다. (「새로운 도시의제」 제125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UN 시스템 내에서 문화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두드러진 특징은 UN은 문화가 수행하는 능동적(active) 역할을 매우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가 오랫동안 경제나 정치 영역에 비교하여 잔여적인 범주로 취급되어 왔던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문화는 오랜 동안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이며, 과거지향적인 어떤 것으로 여겨졌다. 문화영역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긴 하지만 생산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나타난 문화는 이와 다르다. 문화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며, 빈곤을 철폐하고, 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핵심자산으로 이해된다. UN이 제안하는 문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동자(driver)이자 촉진자(enabler)이다 (UNESCO, 2012).

UN의 문화이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문화를 단순히 하나의 부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문영역으로서의 문화는 경제, 정치, 환경 등과 구분되는 인간활동이자 정책대상이다. 그러나 UN의 문화는 부문으로서의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다른 부문과 횡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문화는 “문화예술”이라는 전통적인 부문을 넘어서서 그것에 어떻게 경제, 교육, 도시 등의 영역과 연계되어 있는지가 논의된다. 이는 UCCN의 정신에서도 잘 드러난다. UCCN은 단순히 도시의 문화예술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영역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도시전체의 발전방향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UCCN은 여타의 도시문화정

책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문화 이해는 도시발전과의 관계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는 인류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삶의 질을 고양시키려는 많은 노력들이 도시적 조건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문화와 연계되어 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도심지역은 문화자산의 보고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은 도시에 정체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한다. 도시에 집적된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기념물과 같은 문화시설, 그리고 축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 “도시형”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영화, 방송, 게임, 디자인 등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오늘날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이다. 어쩌면 도시의 미래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의해 좌우될지도 모른다.

물론 아직도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빈곤인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날의 현실에서 문화에 대한 적극적 고려 없이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UN은 문화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자 동력으로 이해하고 있다.⁵

5. 문화가 어떻게 지속가능 도시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UNESCO(2016)을 참조할 수 있다.

3. 도시문화정책 지형변화와 창의도시

UCCN 사업은 우리 도시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이다. 그것은 UCCN이 기존의 문화정책과 차별화된 사업구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UCCN은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의 문화적 필요에 집중할 수 있다. UCCN은 단순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부문을 넘어서 도시전체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UCCN은 국제적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적 관심사항을 넘어서 시야를 국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UCCN 사업의 특징은 모두 우리 도시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이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우리 도시 문화정책의 지형변화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UCCN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국가주도적(state-led)이라는 점일 것이다.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국가, 즉 중앙정부는 자원을 배분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규범을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권위주의 정부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진보정부와 보수정부를 가리지 않는다(Lee, 2019). 문화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1970년대~80년대 권위주의 정부시절 문화정책의 핵심목표는 시민들을 국가적 목표에 동원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국가적 목표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인간, 그리고 정치적으로 순종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생산력을 극대화하면서 탈정치화된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문화정책은 이에 활용되었다.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정책 뿐만 아니라 언론출판, 스포츠, 교육정책 등은 모두 그러한 성격을 지녔다.

권위주의 정부의 문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 집중되었는데, 하나가 소위 ‘민족문화’의 진흥이고, 두 번째는 외래문화 유입에 대한 규제였다(Nissim, 2011). 민족문화를 진흥하고 외래문화를 규제하는 것은 당시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정치적으로 순진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민족문화 진흥을 위해 예술가들을 지원하였으며 박물관을 건설하였다. 한편으로 출판, 영화, 가요 등에 있어서 외국의 대중문화 유입을 규제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 전반을 규율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기획과 실행은 모두 국가의 몫이었으며 지역과 시민사회는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문화향수’,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진흥’ 등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박광무, 2013).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주체 역시 국가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모든 문화정책의 최종결정자의 위치에 있으며, 그 업무영역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문화예술위원회’ 등과 같은 자율적인 집행기구를 두고는 있지만 실제 국가기구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⁶ 문화정책에서 국가정책을 벗어난 시민사회 혹은 민간의 자율적인 결사체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왜소하다.

문화정책의 국가주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지역과 시민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동원을 위한 문화정책은 오늘날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문화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른 정책영역도 대동소이 하지만,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중앙관료가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지방의 관료들은 그 예산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경쟁한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산영상문화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등 문화도시조성사업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 예산집행사업 -의 이름(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거점문화도시 조성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지역의 주체성을 - 지역주민, 지역시민사회, 지역예술가들의 - 기반으로 추진되었는지 의문이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의 주요 사업이라 할 수 문화도시 선정 사업 역시 중앙정부의 공모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CO)는 2005년 소위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따라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실제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Lee, 2012).

한편, 최근 20년간 문화정책에서 국가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이 등장했다. 시장(market)이 그것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은 사회 각 영역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심화되는 과정을 동반했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문화를 하나의 상품이자 산업으로 보는 관점이 부상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영상,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은 오늘날 소위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라 불리운다. 최근에는 이러한 산업군을 육성하는 것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1999년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문화정책에서 시장의 부상은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진 국가에서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와 관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이는 특히 도시경제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산업화 시대 도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지만, 오늘날의 주요 대도시들은 제조업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고차서비스업,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이 도시경제의 핵심이 되었다. 미술관 하나만 잘 지어도 도시가 살아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문화정책의 주요 과제가 된다.

오늘날의 도시단위의 문화정책도 시장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지자체 차원의 문화정책이 활성화된 것은 우선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역 단위에서 지역정체성을 찾고,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하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도시문화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와 연계된 문화사업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많은 경우 이 사업들은 문화의 본래적 기능, 혹은 UN이 제시하는 지속가능 도시발전의 목표에 부응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경제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자체는 문화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Park, 2016). 이를 우리는 문화의 “도구화”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몇몇의 성공사례 - 부산의 감천마을과 같은 - 들은 더욱 이러한 문화의 도구화를 부추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도시문화정책에서는 문화보다 오히려 관광, 홍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용어들이 더 많이 회자된다.

우리의 도시문화정책은 오랜 동안 국가주도의 문화정책에서 이제 시장이 지배하는 문화정책으로 옮겨가는 형국이다. 국가 중심성이 크게 약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기업가적 국가(entrepreneurial state)가 되어 시장지배적 문화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중심적 문화정책,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의 입지는 여전히 좁다는 점이다. 오늘날 많은 지자체에서 문화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역중심, 시민중심적 문화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우리는 UCCN의 정신과 사업방향을 이상에 언급한 우리 도시의 문화정책 여건과 결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도시들은 오랜 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정책에 익숙해져 있었다. 한편 최근 시장지향적 드라이브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서 문화정책에 새로움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관행이 얼마나 지역문화의 이상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우리에게 문화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 지역의 정체성은 주민의 삶에 무슨 의미를 갖는가? 지역수준의 문화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UCCN은 그동안 우리가 진지하게 묻지 못했던, 그러나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4. 도시발전전략과 창의도시 :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UCCN 사업은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정책을 넘어서 도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곧 창의도시가 하나의 도시발전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창의도시가 내포하는 의미는 기존의 성장주의적 전략, 개발주의적 전략을 벗어나서 문화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살찌우는 전략 - UN의 표현으로는 지속가능 도시발전 - 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지하는 수동적인 성장전략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내재적인 힘을 기반으로 한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창의도시를 통해 도시정책의 지향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UCCN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이하에서는 UCCN의 정신과 우리 도시의 문화정책 여건에 비추어 UCCN 사업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 부문정책을 넘어선 종합정책으로

우선 UCCN 사업이 좁은 의미의 문화정책을 넘어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UCCN 사업에는 7개의 창의도시 분야가 있으며 이들이 중점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창의도시 사업은 엄격히 말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창의도시정책은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 도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서 전체 도시정책을 아우르는 사업이다. 즉 '공예'분야의 창의도시는 단순히 공예인들을 지원하는 도시가 아니라 공예라는 콘텐츠가 종합적으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예가 어떻게 도시 전체에 - 경제, 사회, 문

7. 특히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도시부문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싶다. 지자체 차원의 많은 문화정책들이 공간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도시계획(재생) 정책들에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유희 산업시설, 빈집 등 공간과 관련된 문화사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창의도시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와 도시가 통합적으로 연계된다면 이는 다른 부문과의 연계사업을 위해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화, 복지, 시민생활 등의 영역에 -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도시의 정신과 발전방향을 문화예술분야의 부문계획에 뿐만 아니라 도시전체의 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지자체가 행정계획으로 도시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또한 각 부문별로 부문별 계획도 존재한다. 법정계획이든 행정계획이든 도시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에 창의도시의 취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각 부문계획에 있어서도 즉 경제, 도시, 복지, 환경 등의 제 부분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창의도시 정신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으며, 어떠한 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⁷ 이를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UCCN 사업이 좁은 의미의 문화정책에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UCCN은 지자체장의 우선적인 관심 속에서, 도시발전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 시민을 향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UCCN이 시민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 이를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도시문화정책은 오랜 동안 시민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행정중심적이었고 그것도 중앙정부 정책에 크게 의존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시민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우선 UCCN 정책은 그 수혜자가 행정 그리고 좁은 문화예술계를 넘어서 시민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UCCN이 일종의 인증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업 자체가 인증을 목표로 설계되곤 한다. UCCN 인증은 아마도 지자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직접 관계가 있는 문화예술인이나 문화단체들도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지 않는다면 UCCN 사업의 효과는 거기서 그치게 된다. 보통 행정 측은 예산의 집행만으로 - 특히, 위탁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다 - 정책을 마무리하곤 하는데, 예산의 집행은 UCCN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될 수 없다. 행정은 예산집행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가를 최종적인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UCCN은 단지 문화분야의 하나의 인증사업에 불과할 뿐이다.

‘시민지향적’ 정책이 어려운 점은 많은 도시에서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참여할 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많은 도시에서 일반 시민들은 무관심하거나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적절히 대표되지도 못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행정의 의지만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은 지역의 문화예술인, 문화

8. 현재 지자체에서 창의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위탁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 시 산하 문화재단을 활용하는 방식, 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 위탁사업 방식은 민간의 창의성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이 역시 수평적 협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위탁사업이 단순히 행정의 전달체계의 통로가 되지 않으려면,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서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사결정기구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앞서 무엇보다도 수평적 협력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중요하다.

예술단체와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UCCN을 계기로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사업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위탁사업’이라는 형식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위탁사업은 민간전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행정의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통로가 되기 쉽다. 현실적으로 위탁사업을 형태를 띠더라도 행정과 민간전문가가 수평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⁸

■ 창의성은 네트워크로부터

창의성은 보통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즉 사물이든 혹은 행위이든 기존의 방식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인류문명은 창의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은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창의성이 7개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산업, 행정, 교육 등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에도 해당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창의성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발아하고 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산업분야도 그렇다. 예술가의 작업은 창의성의 하나의 표본을 보여준다. 많은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다. 어느 사회나 관찰되는 바와 같이 예술가들과 문화기능은 집적하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에서도 혁신은 집적, 즉 클러스터링(clustering)으로부터 나온다. 기업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비용을 절감한다. 이는 실리콘벨리와 같은 혁신기업들의 집적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창의성의 이러한 속성은 도시의 창의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UCCN 사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창의성이 행정의 역량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엄격히 말해 창의성은 행정역량 밖에 존재한다. 그것은 문화예술계에, 산업계에, 시민사회의 일상생활 속에 넓게 퍼져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소통을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작가들 간의 혹은 작가들과 시민들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것, 산업분야에서는 동종, 혹은 이종 산업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이다. 즉 UCCN에서의 창의성은 행정, 예술인, 혁신기업가, 시민사회 주체가 어떻게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 국제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UCCN 사업의 핵심 목표라는 점에서 이 정책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다. 우리 지자체는 그동안 선진국의 도시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 일부 지자체는 우리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과 협력은 주로 양자교류의 형태를 띠고 있지 다자간 사업이 아니다. 다자간 교류사업에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참여한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UCCN은 우리 도시가 다자간 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자간 협력사업은 단순히 우리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다. 국제사회의 규범을 이해하고 우리의 경험을 국제적인 시야에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도시의 행정은 문화부서와 국제협력 부서가 구분되어 있어, 문화담당자는 우리의 경험이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언어소통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UCCN 사업은 설계시부터 우리가 국제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60여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오늘날 선진공여국의 일원이 되었다. 모든 정책영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매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개별 정책들이 어떻게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해 왔는지, 그리하여 지속가능 도시발전에 기여해 왔는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험이 갖는 보편적 의미가 UCCN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국제협력에 대한 이러한 노력과 경험은 궁극적으로 우리 도시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광무, 2013, 『한국문화정책론』, 경기도: 김영사
- 박세훈 외, 2016, 『해비타트III와 한국도시정책에의 시사점』, 경기도: 국토연구원
- Lee, H.K., 2019, "The new patron state in South Korea: cultural policy,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5(1), pp. 48-62.
- Lee, H.K., 2012, "Progress without consensus: 'instituting' arts council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Summer 2012, <http://dx.doi.org/10.2139/ssrn.2555282>
- Nissim Otmazgin, 2011, "A tail that wags the dog? cultural industry and cultural policy in Japan and South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13(3), pp. 307-325.
- Park, S.H., 2016, "Can we implant an artist community? A reflection on government-led cultural districts in Korea," *Cities* 56, pp. 172-179.
- UNESCO, 2016, *Culture, Urban Future*, Paris: UNESCO
- UNESCO, 2019, *Culture 2030 Indicators*, Paris: UNESCO

심화편

3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거버넌스와 담당자 역량강화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거버넌스와 담당자 역량강화

한건수 강원대학교 교수

1. 서론

유네스코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면서 유네스코와 국제 사회의 의제 변화를 고려하여 창의도시와 네트워크의 사명과 목적을 발전시켜 왔다.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004년 문화다양성 의제와 관련되어 시작된 사업이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도시 차원에서 실천하고 서로 협력하는 도시 네트워크를 구상했다. 문화 중심의 도시발전을 실제 추진하는 도시들의 시범사례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각 도시의 문화 유산이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계승되어 문화다양성의 확산에도 기여하는 모범사례를 찾고자 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2015년 새천년개발계획(MDGs)의 종료 이후 새로운 지구적 발전 의제로 국제연합(UN)이 제시한 ‘포스트 2015(Post 2015)’ 의제의 구축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새로운 발전 의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구체화 된 이후에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는 주요 실천의 장으로 삼는 변화를 모색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주 목적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늘 중시되었던 것은 도시의 거버넌스이다. 도시발전의 비전 수립과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능동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창의도시 가입 신청서에 해당 도시의 시민사회가 창의도시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질문하는 문항이 포함된 것 자체가 창의도시가 추구하는 도시 거버넌스의 강조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창의도시의 거버넌스 만큼 늘 강조되어 온 주제는 창의역량 강화와 창의인재 유치와 관련된 논의이다.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창의인재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며, 창의인재의 유치와 육성이 매우 중요한 현실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특징과 창의인재 육성 및 유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의도시는 도시별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다양함과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창의인재의 유치와 육성은 도시별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창의도시 거버넌스 유형

유네스코는 창의도시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할 뿐 거버넌스 유형에 대해 세세한 지침을 발표하지는 않는다. 실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도시들도 창의 영역과 창의 도시별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도시 행정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데서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유형은 시민사회가 창의도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도시와 시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유형이다.

1) 시민사회 주도형 거버넌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창의도시 거버넌스는 창의도시 가입 준비와 단계에서부터 시 정부 보다는 시민사회가 주도한 특징이 있다. 시민사회 주도형 창의도시 는 창의도시 가입 결정과 추진을 시민사회에서 먼저 주도하여 시 정부와 시의회의 동의와 지원하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의 창의도시들은 시정부 보다는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하고 가입이후 창의도시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주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주로 창의영역 전문가나 예술가 혹은 문화관련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각 창의영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문화전문가, 학자,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했다. 따라서 가입을 주도한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 학습과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활동을 주도하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기존의 창의영역 관련 조직이나 문화 관련 조직을 활용하여 사무국을 운영하기도 하고, 창의도시 가입을 통해 신설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무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 경우 조직 내에 창의도시 사무국을 두고 직원의 업무 분장 혹은 업무 시간 배분을 통해 창의도시 사업을 관장한다. 반면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는 창의도시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이때 조직의 범

적 근거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영국의 창의도시 중에는 상법에 근거한 유한회사로 설립된 경우도 있다.

시민사회가 창의도시 사무국을 주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시 정부와 시의회에 프로젝트 기반의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활동 예산을 마련한다. 또한 해당 도시의 다양한 기업이나 재단으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거나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한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무국은 담당자와 활동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국제활동을 전담하고 협력사업을 발굴 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속을 위한 사업개발과 운영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창의도시 사무국은 자체 조직의 운영과 사업개발 및 진행을 위해 시 정부와 시의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따라서 창의도시 사무국은 시 정부 담당 부서와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무국의 전문성과 역량이 시 정부와 시의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창의도시 사무국은 또한 시민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창의도시 활동 홍보에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창의도시 사무국 활동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시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주도형 거버넌스

유럽의 창의도시 중 일부는 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에서 창의도시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직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기도 한다. 창의영역 분야별로 참여하는 공공기관도 다양하다. 공공도서관의 전문 사서가 업무 시간 분장을 통해 문학창의도시 사무국을 운영하는 도시도 있고,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창의도시 사무국을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창의도시 사무국은 공공기관 직원이 사무국 대표를 맡아 관장하면서 계약직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운영주체는 기존 공공기관이 맡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높이는 방식이다.

시민사회가 창의도시 사무국 전반을 운영하는 유형에 비해 시 정부의 지원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시민사회 주도의 창의도시 사무국에 비해 정책결정과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3) 시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

시 정부가 창의도시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는 유형으로 아시아 지역의 창의 도시

시들이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 결정이나 추진을 시 정부가 직접 주도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시 정부는 창의도시 가입 분야 선정, 도시발전 정책 비전 마련, 창의도시 사업 계획 개발, 창의산업 전략 등 창의도시 정책 전반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이상은 이러한 도시발전 비전과 계획의 수립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권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 정부가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주도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시 정부가 주도할 경우 대부분 단기간 혹은 시장의 임기 내에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마치려 하는 경향이 높아서 실제 시민사회의 참여를 권장하고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시 정부와 적절히 협력한다면 시 정부 주도의 창의도시 사업도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예산 확보나 정책 추진의 강도 등이 매우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 창의도시 중 시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한 경우에 시 정부 산하 부서에 창의도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과나 문화산업 혹은 해당 창의분야를 관장하는 부서가 창의도시 업무를 전담하기도 한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이 국제네트워크 활동이기 때문에 국제업무를 전담할 전문직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시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시 정부 직원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실제 창의도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창의도시 부서 책임자가 직접 관할하거나 주도하지 못하고 전문직 직원을 활용할 경우 의사결정구조나 네트워크 활동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둘째, 시민사회의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시민사회가 시 정부와 함께 적극적 참여나 사업 개발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 정부가 결정한 방향을 따라가는 형식이 될 우려가 있다. 셋째, 시민사회의 창의적 인재가 활동할 공간과 역할을 보장하지 못하고 창의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넷째, 시 정부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정치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창의도시 사업의 중단되거나 정책적 우선 순위가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창의도시 중에는 시장의 교체로 인해 창의도시 사업이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다.

시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의 장점은 첫째, 정책결정의 신속함과 추진력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도시발전 비전과 계획에 창의도시 이상을 접목하고 구현하는데 있어 정치적 시도력과 행정적 추진력이 결합하여 우수한 사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둘

째, 창의도시로서 창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로 판단된다.

2. 창의인재 유치와 육성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성공 여부는 창의인재의 유치와 육성에 달려있다. 창의도시 전문가들은 창의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2005)는 도시발전을 견인할 창의인재는 경제적 이유나 일자리의 매력으로만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의인재는 도시의 개방성과 생활양식의 취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창의인재를 유치하려는 도시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단순히 월급을 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창의인재 유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입장벽이 낮아야 하며 이주민을 포용하는 도시의 정서와 시민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2000)는 창의인재의 필수 역량으로 풍부한 사고력뿐만 아니라 개방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리더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의지뿐만 아니라 개방적 사고와 유연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가 창의인재를 혼합함으로써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하며, 내부와 외부의 지식인과 인재들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사무국 전문가들을 보면 이러한 역량외에 유네스코의 정신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함을 언급하고 싶다. 실제 도시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도 유네스코의 이상과 비전에 대해 친숙하지 않다면 창의도시의 정체성 구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일부 창의도시들이 창의도시 인재를 선발할 때 외국어 역량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어 역량은 기본적 역량일 뿐이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창의분야에 대한 전문성,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경계를 횡단하는(transversal) 사유와 활동 역량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시별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외부의 창의적 인재와 함께 일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지역의 인재들에게 역량 강화 동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창의인재의 육성과 유치에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재 유치와 육성이 창의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가치라 할 수 있다.

3. 결론

창의도시의 거버넌스 발전과 창의인재의 유치와 육성은 창의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에서 핵심적 요소이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준비하는 도시나 이미 가입한 회원도시들은 거버넌스의 발전과 창의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거버넌스의 유형 중 어느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은 도시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른 답을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량과 활동 면에서 도시별 자원이 다르고,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국가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도시별로 어떤 거버넌스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참여 강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시민사회의 합의와 노력이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창의도시들은 대부분 시 정부 주도형으로 창의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여를 높여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창의인재의 유치와 육성은 창의도시 미래의 핵심 전략이다. 장단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외부로부터 창의인재의 유치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창의도시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재정책을 추진하는가에 창의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참고문헌

- Florida, Richard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London: Routledge
- Landry, Charles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Earthscan

- ① 사명선언문
- ② 201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안내서
- ③ 2019 가입신청서
- ④ 2017 지정절차
- ⑤ 자주 묻는 질문
- ⑥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 구축”에 관한
전략적 운영체계
- ⑦ 유네스코 창의도시 프로그램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에 관한 지침
- ⑧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개최도시 선정 기준
- ⑨ 2015 제9차 연례회의 결과
- ⑩ 2016 제10차 연례회의 결과
- ⑪ 2016 제10차 오스터순드 선언
- ⑫ 2017 제11차 연례회의 결과
- ⑬ 2017 제11차 연례회의 시장단선언
- ⑭ 2018 제12차 연례회의 결과
- ⑮ 2018 제12차 연례회의 시장단선언
- ⑯ 2019 제13차 연례회의 결과
- ⑰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운영지침

① 사명선언문

사명

2004년에 출범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는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측면에서 창의성(Creativity)을 지속가능발전의 한 전략적 요소로 인지하고 있는 도시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시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창의성과 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며 문화적인 삶에 참여를 강화하고 도시 발전 계획과 문화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인지한다.

나아가 본 네트워크는 유엔(United Nations)의 정책 기조,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으로 이루어진 7가지 창의분야를 다룬다.

목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 창의성을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는 도시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 공공부문·민간부문·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창의성을 도시 발전의 필수 요소로 활용하고자 회원도시들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를 고무·향상시킨다.
- 문화 활동, 문화상품, 문화서비스의 창조, 생산, 분배, 확산을 강화하고;
-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지를 개발하고 문화 분야 창작자와 전문가를 위한 기회를 확장하며;
- 특히, 소외집단·취약집단과 개인을 위한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향유, 문화생활의 접근성 및 참여를 증진시키고;
- 문화와 창의성을 지역 발전 전략 및 계획 전반에 통합한다.

활동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도시 차원 및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 경험, 지식, 모범 사례 공유;
- 공공부문·민간부문·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 전문적이며 예술과 관련된 교류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 창의도시들의 경험에 대한 학습, 연구, 평가;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및 조치;
- 소통 및 인식제고 활동.

②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19 가입 공고

◎ 가입신청안내서

1. 일반 원칙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으로 문화와 창의성 발전에 노력해 온 전 세계 도시들 간에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고자 2004년에 창설되었다.

동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 세계 회원도시는 각기 다른 경제 수준과 인구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하나의 공통된 사명을 위해 협력한다: 공통 사명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2030 의제(United Nations 202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행의 일환으로, 회원도시가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회복탄력성을 지니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문화산업을 도시발전 계획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사명선언문에 명시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자원, 경험, 지식을 공유하고 도시 간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실천의 장으로써, 유네스코 창의도시들은 정책결정과 민간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행하는데 실제적인 기여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창의도시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최전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창의도시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유네스코 회원국가 및 준회원국가 내 모든 도시들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¹

유네스코의 의무와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사업계획(action plan)의 내용, 영향, 관련 기관의 지원, 동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비전 및 목표에 대한 잠재적 기여도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

유네스코 내부 전문 사전평가와 하기 평가위원들의 외부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창의도시 지정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다:

- (i)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7개 창의분야 및 그 외 문화·창의·도시개발 분야의 외부 전문가;
- (ii)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 7개 창의분야를 대표하는 회원도시(기 지정 창의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다 함은 도시가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동 네트워크 사명선언서 내 네트워크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과 사업계획의 내용적 수준, 적절성, 타당성이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1. 유네스코 회원국가 및 준회원국가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s://en.unesco.org/countries>

회원도시들은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도시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행을 위해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동 네트워크 가입 신청은(상기 (iii)에 명시한) 7개 창의분야 중 도시가 선택한 1개 창의분야에 대해 기술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가입 신청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그 외 6개 분야와의 기존/잠재적인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수준에서 다른 6개 창의분야에 대해 기술하는 것은 권장한다.

유네스코는 특정한 지리적 또는 주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동 네트워크 가입 공고를 제한할 권리를 보유하며, 최대로 지정할 수 있는 창의도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019년 가입 공고에 따르면 국가 마다 최대 2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될 수 있다. 이 때, 각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는 서로 달라야 한다. (만약 한 나라 안에서 두 개의 도시가 같은 창의분야를 선택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그 중 한 개의 도시만 선정될 수 있다.)

더불어, 동 네트워크의 지리적 균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 네트워크 내 과소대표 지역²,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가입 신청을 장려하는 바이다. 2017년 가입 공고에서 실시되었던 아프리카 지역의 가입 신청을 위한 특별협력체계(specific cooperation framework)가 올해에는 현재 동 네트워크 내 과소대표 지역인 아랍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회 연속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창의도시로 지정되지 못한 도시는 4년 간의 유예기간을 반드시 준수한 뒤 새로 가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³

후보도시들은 동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에 명시된 네트워크 목표를 이행하는데 반드시 노력해야 하며, 평가 과정에서 아래에 명시된 기준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한다:

1. 동 네트워크 가입 동기, 주요 개발 기회 및 당면 과제(가입신청서 Section 6, 8):

-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동 네트워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후보도시의 노력;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 및 활동 분야와 후보도시의 목표 및 우선순위 간의 부합성;
- 창의도시 지정이 후보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2. 가입 신청 준비 절차(가입신청서 Section 9):

- 가입신청서 내용에 대한 기획, 준비 및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도시의 전략과 사업 계획 이행을 위한 시 정부의 참여;
- 도시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의 연합;
- 가입신청서 기획 및 준비에 있어 지역 내 창의분야 관계자들(창작자, 전문가, 문화 관련 기업 등)의 참여.

3. 후보도시가 동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비교자산(가입신청서 Section 10):

- 가입 신청을 준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후보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도시재생에 있어 창의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 전략·사업·이니셔티브;

2. 유네스코는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언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유네스코 국가 목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s://en.unesco.org/countries>

3. 제9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에서, 회원 도시들은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수립·이행하고 새 회원 도시를 동 네트워크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고자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신청을 2년에 한 번 가입 공고하기로 결정함.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의 현재 경제적·사회적 맥락, 역사적 중요성, 역할;
- 동 네트워크 목표 성취를 위한 후보도시의 문화적·창의적 자산, 특히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의 잠재적 기여 여부;
- 일반 대중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국가 및/혹은 국제 박람회, 컨퍼런스, 전시, 기타 활동을 개최할 수 있는 후보도시의 전문성;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에 관한 창의성, 예술교육, 전문훈련, 역량강화, 연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의 질적 수준, 다양성, 영향;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 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포함하여,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동 창의분야 내 문화 활동, 문화상품, 문화서비스를 활용·생산·홍보·보급할 수 있는 문화기관과 기반시설의 현황 및/혹은 개발;
- 문화적 생활의 참여도, 특히 사회 빈곤계층 혹은 취약계층의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적절성, 영향;
-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에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주요 전문기관과 비정부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는 도시의 역량;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하여 후보도시가 기획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의 규모, 질적 수준, 다양성;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하여 지역 문화 산업의 창조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된 정책 및 조치의 질적 수준, 영향, 혁신적 특성;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그 외 동 네트워크의 다른 창의분야 간의 시너지 효과를 형성하는 분야 간 프로젝트의 지역적·국제적 개발 경험.

4. 동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항(가입신청서 Section 11):

-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가 보유한 주요 문화적·창의적 자산의 활용 및 증진;
-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의 동 네트워크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부합성, 타당성;
-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의 동 네트워크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이 제안하는 이니셔티브의 규모, 질적 수준, 다양성, 혁신적 접근법;
- 개발도상국가의 도시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이니셔티브의 포함 여부;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그 외 6가지 창의분야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후보도시의 역량;
- 예산확보 전략과 예산계획의 적절성;

- 공공부문·민간부문·시민사회 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여부;
- 동 네트워크와 후보도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폭넓은 대중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홍보 및 인식제고 계획의 질적 수준과 적절성.

회원도시 간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들은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4년마다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Membership Monitoring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전년도 가입 공고 및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유네스코 회원국가 및 준회원국가의 모든 도시들은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가입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 문서 중 일부로, 가입 신청 도시(후보도시)는 해당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서명한 공식 지지·승인서(letter of support)와 도시 시장이 서명한 공식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가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공식 지지·승인할 수 있는 후보도시의 수를 제한한다. 2019년 가입 공고에서는 각 국가 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최대 4개 도시의 가입 신청을 공식 지지·승인할 수 있다.
- 동 네트워크의 지리적 균형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가입 공고에 따라 동 네트워크 내 과소대표 지역인 아프리카 지역과 아랍 지역 도시들을 위한 특별협력 체계가 시행된다.

2. 가입 신청을 위한 지침

가입 신청 방법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후보도시의 사업계획 이행을 통해 동 네트워크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의 노력과 역량을 명확히 보여주는 가입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후보도시가 가입신청서(Application Form)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지침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가입 신청 준비 시 고려하여야 할 핵심 요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 **참여적 과정:** 반드시 시 정부가 가입 신청의 준비 및 실행을 주도하여야 한다. 또한 시 정부는 청년을 포함한 시민사회, 공공부문, 민간부문 내 관련 이해관계자와 파트너가 포함된 참여적 과정을 통해 가입 신청을 준비하여야 한다.

- **미래지향적 접근법:**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후보도시의 문화유산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창의자산들은 후보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관적이고 진보적인 사업계획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전략적 접근법과 실질적인 사업 이행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 **포용적인 지속가능발전:**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하여 문화와 창의성 개발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들은 동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을 하고 관련 활동을 기획할 때, 각 도시 차원에서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의 일환으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을 수립할 수 있는 포용적 접근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 **장기적인 노력:**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도시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이 동 네트워크의 목표, 유네스코의 가치 및 임무에 부합하는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을 수반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특히, 후보도시들은 필히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도시들은 반드시 4년 주기로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Membership Monitoring Report)를 제출하여 정기적으로 성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UCCN Annual Conferences)에 참석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사업계획, 역량, 자원 확보:** 가입 신청에는 후보도시가 계획하는 전략과 더불어 창의도시 지정 이후 4년간 시행할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하는 사업계획(action plan)을 기술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계획은 도시의 우선순위, 역량, 재정 및 인력 자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해당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의 결과와 영향은 상기 안내한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을 통해 평가된다.
- **교류와 협력:** 회원도시 간 교류는 국제적인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발전·강화시키고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초석 중 하나이다. 즉, 후보도시들이 지역적 차원,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적 차원, 회원도시 차원에서 시행하는 활동과 협력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수 있는 노력과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 신청 준비

가입 신청 준비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여야 하는가?

후보도시의 가입신청서 내용 기획을 담당할 시 정부 혹은 특정 부서, 센터 혹은 기관 내 관리팀(management /coordination team)을 구성하고, 유네스코와의 연락 담당자(focal point)를 지정하여야 한다. 동 관리팀은 가입신청서 초안 작성의 최종 책임이 있으며, 창의도시 지정 이후에는 시 정부 대표와 더불어 동 네트워크와 관련된 도시의 활동을 관리하게 된다.

가입 신청은 반드시 지역 담당 공공기관이 주도하여야 하지만 폭넓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지원, 도시 내 공공부문·민간부문·시민사회의 의견을 진솔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즉, 도시는 문화·사회문제·경제발전·도시기반시설·소통·계획 분야 내 관련 관계 당

국과 부처 뿐 아니라, 문화 및 창의 산업, 대학 및 학계, 청년단체, 비정부기관 및 단체 내 창작자와 전문가와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입 신청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 신청 준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했다면 가입 신청 준비 과정에서 관리팀과 연락 담당자(focal point)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문단(consultative group)을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동 자문단은 시 정부의 고위급 대표, 시민사회 대표, 문화 분야 활동가와 제작자, 창의 분야 주요 활동가, 교육 분야 대표, 기타 관련 전문단체 및 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활동가로 구성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준비 순서

창의도시 가입 신청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정형화된 절차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준비 과정의 주요 단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 정부(시장)가 창의도시 가입신청 준비를 결정한다.

②

관리팀을 구성하고 연락 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도시 내, 지역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가입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한다.

④

모든 분야의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한다.

⑤

관련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도시의 창의자산을 파악한다.

⑥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를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중기(4년) 전략과 사업계획 초안을 마련한다.

⑦

창의도시 지정 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관리부서(management unit)를 구성할 계획을 수립한다.

8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고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9

가입신청을 공표하는 시장의 공식 서한을 작성한다.

10

국내 전문단체의 공식 지지 서한을 확보한다.

11

해당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공식 지지·승인서를 확보한다.

12

기한까지 필수 제출 문서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상기 제시된 가입 준비 절차를 후보도시의 상황에 맞게 변경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계획한 기간 안에 가입 신청에 필요한 문서들의 초안을 마련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입 준비, 관리팀과 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 관리팀과 연락 담당자는 먼저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명선언문(UCCN Mission Statement), 가입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정절차(Designation Procedure)를 철저히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동 네트워크와 관련 활동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n.unesco.org/creative-cities/>
- 관련 이해관계자와 활동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가입 준비 과정에서 협력하고 책임감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는 도시의 문화자산, 경험, 전문성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도시의 전략과 사업계획의 주요 골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입신청서(Application Form) 작성

가입 신청은 반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공식 2019 가입신청서(2019 Application Form)를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 가입신청서 내 모든 항목을 기술할 경우에만 완전하고 유효한 가입 신청으로 간주된다. 미완성된 가입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도시의 관련 활동, 이니셔티브, 기반시설에 대하여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양한다. 가입신청서 내 각 항목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서술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때, 도시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잠재성,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산 및 창의자산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포함한다.

가입신청서 내 명시된 글자 수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제한된 글자 수 이상의 추가 내용을 덧붙일 수 없다. ‘글자 수 세기(Word Count)’ 기능을 활용하면 동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 내용은 반드시 일관되고 간결해야 한다. 또한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한다. 그 외 언어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는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팀/담당자가 영어 혹은 프랑스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인증된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모국어로 작성된 원문 내용에 비해 번역 품질이 저조할 경우 평가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제목은 반드시 “Application of [후보도시명]”으로 다음과 같은 붙임문서를 필히 포함하여 cnapplapplications@unesco.org에 이메일로 제출되어야 한다:

- i. 가입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문서들의 목록;
- ii.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웹 사이트에 게시된 워드(Word)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식 2019 가입신청서(2019 Application Form)의 모든 항목을 기재한 완성본;
- iii. 시 정부의 가입 신청 확인 및 지지가 담긴 가입 신청 도시 시장의 공식 의향서 (letter of intention) 1부;
- iv. 후보도시가 위치한 국가 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가입 신청 공식 지지·승인서 (letter of endorsement) 1부;
- v.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주요 국가 전문 단체의 공식 지지서 (letter of support)⁴ 2부;
- vi.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후보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3점(JPEG 형식, 사진 1점당 최대 3MB);
- vii. 가입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 등록 및 활용 권리 양도서(Cession of Rights and Register of Photos)’

4. 예를 들어, 창의분야 중 문학분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국립작가협회의 지지서(letter of endorsement)가 이에 해당된다.

상기 언급한 공식 서한(의향서 및 지지서)의 별도 양식이나 형식에 관한 필수 사항은 없으나, 공식 서한은 간결하게 작성하고(2페이지 이내) 서명인이 가입을 지지하는 주요 이유를 명료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상기 붙임문서들을 포함한 이메일 총 용량은 반드시 20MB를 넘겨서는 안 된다.

상기 언급한 붙임문서들 외 다른 문서들은 접수되지 않으며 평가에도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보도시와 관련되거나 선택한 창의분야에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가입신청서에 관련된 URL 주소를 최대 3개까지 기재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붙임문서 외에 그 어떠한 추가 문서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길 바란다.

가입신청서는 상기 언급한 붙임문서와 함께 반드시 하나의 이메일로 송부되어야 하

며, 반드시 유네스코 사무국(UNESCO Secretariat)으로 6월 30일 자정(11:59PM, 중앙유럽표준시)까 지 송부되어야 한다. 미완성된 가입 신청, 상기 마감일 이후 제출된 가입 신청, 지정된 가입신청서 양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가입신청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가하지 않는다.

유네스코는 예기치 못한 경우나 기술적 문제(블리머서 용량으로 인한 오류 등) 등으로 인해 늦게 제출된 가입 신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입 신청 도시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가입 신청이 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제출 기한을 엄수하여야 한다. 기한 이후 제출된 가입신청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유의 사항

가입신청서 제출 기한은 2019년 6월 30일 자정 (11:59 PM, 중앙유럽표준시)

2019년 가입 공고 일정	
4월 3일	공고 발표
6월 30일	제출 마감 의무 사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식 2019 가입신청서로 ccnapplcations@unesco.org에 2019년 6월 30일 자정(중앙유럽표준시)까지 제출된 가입 신청에 한 해 평가 절차를 진행한다. 미완성된 가입 신청이나 다른 양식에 기재한 가입신청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7월 1일 ~ 7월 31일	전문 사전평가 유네스코 사무국은 내부 전문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가입신청의 적격성(가입신청서의 완성 여부, 지침에 따른 붙임 공식 서한 등)을 우선 심사한다.
8월 1일 ~ 9월 30일	외부 평가 유네스코가 임명한 외부 전문가들과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 내(기 지정) 회원도시가 외부 평가를 실시한다.
10월 1일 ~ 10월 31일	평가 절차 완료
11월 (세부 일정 추후 공지)	지정 결과 공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지정 결과를 공표한다.

3. 자주 묻는 질문들

어떤 도시들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유네스코의 국제 프로그램으로, 유네스코 회원국가 및 준회원국가 내 모든 도시들은 동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⁵

가입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웹 사이트(<http://en.unesco.org/creative-cities/>)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 기간이 공고된다. 신청을 준비하는 도시들은 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지정된 가입신청서(Application Form)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양식이 아닌 임의 양식

5. 유네스코 회원국가 및 준회원국가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s://en.unesco.org/countries>

으로 제출한 가입신청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신청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

2019년 제출 기한은 2019년 6월 30일 자정(중앙유럽표준시)이다. 이후에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웹 사이트 공지란 (<http://en.unesco.org/creative-cities/content/call-applications>)에 제출 기한을 고지한다. 미완성된 가입 신청, 지정된 기한 이후에 제출된 가입 신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신청·가입신청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하는가?

(가입신청서와 붙임문서를 포함하여) 가입 신청은 반드시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한다.

가입 신청 시 부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문서는 무엇인가?

신청서 내 명시되어 있는 모든 문서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서류는 제출하더라도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가입 신청은 이메일(ccnapplications@unesco.org)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제목을 “2019 Application of [후보도시명]”으로 적어야 한다.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되 이메일의 총 용량은 20MB를 초과할 수 없다. 용량을 초과한 이메일은 수신이 불가능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유네스코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출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ccnapplications@unesco.org으로 연락을 하길 바란다.

국가당 몇 개의 도시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지지·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지원하는 도시는 자국 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로부터 가입 신청 지지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동 국가위원회로부터 공식 지지·승인서(letter of endorsement)를 받아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당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지지할 수 있는 후보도시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2019년 기준 국가위원회는 최대 4개의 가입 신청에 대해 지지·승인을 할 수 있다.

국가당 몇 개의 도시가 창의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가?

2019년 가입 공고의 경우, 국가당 서로 다른 창의분야를 선택한 최대 2개 도시가 창의 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

가입 신청 평가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가?

지정 결과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웹 사이트와 기타 유네스코 홍보소통 채널을 통해 2019년 11월에 공표된다(정확한 일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웹 사이트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정되지 못한 도시는 공개된 창의도시 지정 도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신청의 신중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일정동안 후보도시의 평가 결과에 대한 문의는 자제를 요청한다.

가입 신청은 누가 평가하나?

유네스코는 평가 절차 전반을 주관하며 전문 사전평가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와 기 지정 회원도시의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위원들의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가입 신청 평가 기간 동안 후보도시들은 어떠한 영향력 행사나 로비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개 창의분야 내 외부 전문가와 기 지정 회원도시의 자문 및 외부 평가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가입 신청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유네스코 사무국은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술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여유를 두고 가입 신청을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각 후보도시들의 신청 진행 과정을 검토하거나 도시 별로 특정한 방향이나 지침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가입 신청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ccnapplications@unesco.org로 연락하길 바란다.

가입 신청 시 창의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는가?

가입 신청 시 반드시 1개 창의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서는 선택한 1개 창의분야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동 네트워크의 창의분야인 공예 및 민속 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의 7개 창의분야 중, 후보도시는 단 1개 창의분야만을 선택할 수 있다.

한 가지 이상의 창의분야에 대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가?

가입신청서에는 반드시 하나의 창의분야만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1개 창의분야가 도시가 지닌 다른 6개 창의분야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한 단 하나의 창의분야에 중점을 두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다양한 창의분야를 활용한 혁신적인 분야 간 접근법을 서술하는 정도는 권장한다.

후보도시의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가입 신청 할 수 있는가?

가입 신청 과정에서 도시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후보도시의 전략 및 사업계획에 있어 주변 지역의 기여에 관한 내용을 가입신청서에 기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입 신청 전반에 관한 최우선적인 책임과 의무는 반드시 후보도시에게 있으며, 후보도시가 가입신청서 내 기재할 전략과 사업계획을 기획 및 기술하여야 한다.

창의도시 지정에 있어 도시의 규모가 중요한 요소인가?

2019년 지정 절차에 의거하여 현재까지는 동 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 신청에 있어 도시 내 거주민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가입 신청 시 첨부하고자 하는 부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

가입 신청은 오직 이메일로 지정된 가입신청서(Application Form)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그 외 어떠한 출력물과 자료도 접수할 수 없다. 다만 가입신청서에 최대 3개의 웹 사이트 링크를 기재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시 이미지, 차트, 다이어그램을 첨부할 수 있는가?

가입신청서에 이미지, 차트, 다이어그램을 삽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보도시가 창의 도시로 지정된다면 다른 기 지정 회원도시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앞서 말한 부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시 기재할 예산 계획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가?

가입신청서에 기재하는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해진 최소 혹은 최대 예산 금액은 없다. 평가위원들은 전략 및 사업계획의 질적 수준, 활동 계획과 예산 계획 간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므로, 예산 계획은 도시의 규모, 도시가 보유한 자원, 도시의 목표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19 모집 공고

◎ 가입신청서

본 가입신청서 내 명시되어 있는 글자 제한 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한된 글자 수 이상을 기재할 수 없다. 작성 과정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글자 수 세기 기능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본 가입신청서 붙임문서인 사진 등록 및 활용 권리 양도서(Cession of Rights and Register of Photos)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시명:

2. 국가명:

3. 연락처

3.1. 시장

- 직함(Mr/Ms):
 - 성: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3.2. 시장 대리인

시장 대리인은 시장(시 정부)과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국 간 연락을 담당하며 도시의 주무 담당관(Main executive contact)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3.3 참조).

- 직함(Mr/Ms):
- 성:
- 이름:
- 소속 기관 및 역할:
- 기관 유형: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기타 주요 정보:

3.3. 주무 담당관 연락처

주무 담당관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관련된 도시의 모든 소통 및 조정 역

할을 하는 연락 담당자(focal point)이다. 주무 담당관은 창의도시 네트워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조직 소속이어야 하며, 도시가 창의도시로 지정될 경우 시장 혹은 시 당국으로부터 창의도시 담당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10.4 참조).

- 직함(Mr/Ms):
- 성:
- 이름:
- 소속 기관 및 역할:
- 기관 유형: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기타 주요 정보:

3.4. 기타 연락처

주무 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의 연락처

- 직함(Mr/Ms):
- 성:
- 이름:
- 소속 기관 및 역할:
- 기관 유형: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기타 주요 정보:

4. 창의분야

하단의 메뉴에서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 중 한 가지 창의분야를 선택하여야 한다.

- 공예와 민속예술
- 디자인
- 영화
- 미식
- 문학
- 미디어아트
- 음악

5. 도시의 기본사항 소개

도시의 주요 지리적 특성, 인구 구성, 문화적 특징, 경제적 특성을 서술; 도시의 운영 제도(거버넌스), 주요 문화시설 및 기반시설, 국제적 교류·경험 등을 기재한다. (1,500자 이내)

6. 도시의 창의성과 관련된 주요 발전 기회와 창의성을 활용한 당면과제

모든 도시는 특별하며 도시별 맥락과 우선순위에 따른 목적을 추구한다. 문화와 창의성을 중심으로, 특히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후보도시의 기회와 당면과제를 서술한다: 더불어; 후보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의 잠재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한다. (1,200자 이내)

7. 글로벌 발전 전략 및 정책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같은 국제 발전 의제를 이행할 수 있는 후보도시의 주요 글로벌 발전 전략과 정책을 기술한다. (1,000자 이내)

8. 창의도시 지정과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미칠 영향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 동기를 서술한다.

창의도시 지정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적 영향, 특히 지정 후 4년간의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 (1,200자 이내)

9. 가입신청 준비 과정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즉 창작자, 전문가, 실무자와 더불어 공공분야, 민간분야, 학술분야, 시민사회는 도시가 제출할 가입신청서의 기획 및 준비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위에 기재된 각각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가입 신청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논의에 참여하였는지 서술한다.

그리고 창의도시 지정과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상기 각각의 이해관계자 그룹에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서술한다. (1,000자 이내)

10.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입신청 도시의 비교자산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의 주요 문화자산, 특히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에 관련된 문화자산에 대해 서술한다: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필수 동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며, 상기 문화자산을 단순 나열식으로 기재하기보다 도시의 문화자산과 창의자산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포함시켜 간결하게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하위 문항 당 1,000자 이내)

10.1 도시의 역사와 발전에 있어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의 역할과 기반

- 10.2** 문화 분야, 특히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의 현재 경제적 중요성과 성장 현황: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고용창출에 대한 해당 창의분야의 기여에 관한 데이터, 통계, 기타 지표, 문화 관련 기업의 수 등
-
- 10.3**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에 참여하거나 동 창의분야 내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지역사회나 단체
-
- 10.4**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 내 전문가 및 실무자(창작자, 생산자, 마케터, 홍보 담당자 등)를 위해 도시가 지난 5년간 개최한 주요 박람회, 컨퍼런스, 컨벤션, 회의, 기타 국가 및 국제적 행사
-
- 10.5**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국민, 국제적 대중을 위해 도시가 지난 5년간 개최한 주요 축제, 컨벤션, 기타 대규모 행사
-
- 10.6**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청소년 예술 교육, 문화, 창의성 증진을 위한 주요 교육 체계, 코스, 프로그램, 현존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기관(정규 교육, 비정규 교육 포함)
-
- 10.7**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평생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훈련 센터 및 기관, 기타 대학(수준의) 교육 기관
-
- 10.8**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연구센터, 특수 기관 및 프로그램
-
- 10.9** 전문적 수준에서(예: 전문가를 위한 센터, 문화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 문화상품 및 문화 서비스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공회의소 등)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활동, 상품, 서비스를 창작, 생산, 분배할 수 있는 기반시설
-
- 10.10** 일반 대중이나 사회 특별 계층(청소년, 여성, 취약 계층 등)이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실습, 홍보, 분배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 시설 및 문화적 공간
-
- 10.11**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문화적 생활의 참여, 특히 소외계층이나 사회 취약 계층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가 지난 3년간 개발한 주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최대 3개 기술)
-
- 10.12**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하여, 도시·민간분야·창작자·시민사회·학술기관·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가 간 협력 관계를 수립·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가 지난 3년간 개발한 주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최대 3개 기술)
-

10.13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도시 내 주요 전문기관, 비정부기관, 시민사회 기관의 역할과 영향

10.14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 내 창작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창작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 지난 5년간 실시한 주요 이니셔티브, 정책, 지침, 프로그램, 조치

10.15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 내 지역 문화 산업을 지원 및 성장시키기 위해 도시가 지난 5년간 실시한 주요 이니셔티브, 정책, 지침, 프로그램, 조치

10.16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다른 국가의 도시와 함께 개발한 주요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나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

10.17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 외) 동 네트워크의 6개 창의분야 중 최소 1개 창의분야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가 지난 3년간 실행한 주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10.18 동 네트워크의 7개 창의분야 중 최소 2개 창의분야를 활용하여 도시가 지난 3년간 개발한 주요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혹은 파트너십(교차사업 및 분야간 사업)

10.19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 외 동 네트워크의 6가지 창의분야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가 지난 3년간 주관한 행사(박람회, 컨퍼런스, 컨벤션 등)를 개최했던 주요 시설과 기반시설

10.20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를 활용하여 지난 5년간 창출한 경제적 수입액과 해당 창의분야와 관련된 예산 집행액

11.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 기여 방안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는 적절한 중기(4년) 사업계획에 대해 기술한다: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할 수 있는 동력으로 창의성을 활용하는 방안 중점을 둔다.

도시의 이니셔티브는 반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와 활동분야에 부합해야 한다. 본 항목을 기재하기 전, 해당 사명선언문을 먼저 숙지하길 바란다. 도시의 사업계획과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2030 의제에 맞춰, 현실적이고 일관되며 타당하여야 한다. 해당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용을 이론적 수준에서 단순히 나열하기 보다는 의미와 맥락에 따라 서술할 것을 권장한다. 창의도시 지정 시, 후보도시에는 본 항목에 기재한 사업계획을 이

행하여야 하며 4년마다 그 결과가 담긴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Membership Monitoring Report)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2019년 모집 공고 시 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첫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를 2023년에 제출하게 된다).

11.1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을 증진시킴으로써 동 네트워크 목표 달성에 도시가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이니셔티브, 조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최대 3개 기술)

3개 중 2개 이니셔티브는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1개 이니셔티브는 그 외 동 네트워크의 6개 창의분야와 연계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이니셔티브의 규모, 목표, 외부 협력, 이해관계자(파트너, 참가자, 수혜자)와 더불어 이니셔티브의 질적 수준·다양성·혁신적 접근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상 결과 및 영향에 대해 기술한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 전문기관, 문화 관련 기관을 참여시키고자 도시가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서술하는 것도 장려된다. (3,200자 이내)

11.2 동 네트워크 목표를 실천함에 있어 국제적 차원의 협력, 특히 동 네트워크 내 다른 회원도시와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최대 3개 서술)

특히 이니셔티브의 규모, 목표, 외부 협력, 이해관계자(파트너, 참가자, 수혜자)와 더불어 이니셔티브의 질적 수준·다양성·혁신적 접근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상 결과 및 영향에 대해 기술한다. 개발도상국가 도시나 동 네트워크 내 구성 비율이 낮은 대륙/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에 대해 서술하는 것도 장려된다. 동 네트워크 내 다수의 창의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 분야 간 이니셔티브에 대해 서술할 수도 있다. (3,200자 이내)

11.3 상기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

상기 서술한 4년간 사업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대략적인 연간 예산 계획과 더불어, 지역적 이니셔티브와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각각 배당된 예산 비율도 함께 서술할 것을 권장한다. 재정적 자원과 기타 자원(인적 자원, 시설 자원 등)을 포함하여 도시가 동 예산과 관련하여 지원할 자원에 대해 기술한다. 지역·국가개발은행/기관과 같은 국가·국제기관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나 시 정부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기술한다.

동 예산계획에 대한 평가는 예산 규모가 아닌 예산의 타당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성취가능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500자 이내)

11.4 상기 사업계획의 실행과 관리를 담당할 조직구조

상기 사업계획을 계획·실행하고 동 네트워크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의 활

등을 담당할 담당자/조직의 자원, 도시의 조직 및 행정 구조에 대해 서술한다. 해당 조직 내 인력은 창의도시 지정 시 도시의 연락 담당자로 지정될 인력으로 서술할 것을 권장한다. 상기 사업계획과 관련된 잠재적인 파트너 기관들의 명칭·관련 정보, 주요 전문가·비정부기구·학술기관의 연락처와 더불어, 상기 조직 내부구조와 업무 분장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기술한다. (1,500자 이내)

11.5 홍보소통 및 인식제고 활동 계획

상기 사업계획의 예상 결과 및 영향과 동 네트워크에 관한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소통 및 인식제고 활동 계획에 대해 기술한다. (1,000자 이내)

12.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Membership Monitoring Report) 제출

창의도시 지정 시, 본 도시는 유네스코의 요청에 따라 창의도시 지정과 관련된 활동들의 효과적인 이행과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를 4년마다 반드시 제출한다. 현재 모집 공고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도시의 첫 보고서는 2023년에 제출한다.

13.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의 참석

창의도시로 지정될 경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반드시 최소 1명의 도시 대표자(가능한 한 시장과 함께)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에 수반하는 모든 여비 및 체재비를 도시가 부담한다. 시장을 제외한 1명 이상의 도시 대표자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 상기 언급한 도시 연락 담당자가 포함되는 것을 권장한다.

14.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국에 정보 제공

창의도시 지정 시, 본 도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연락처 변경 등(3.1, 3.2, 3.3, 3.4 참고) 회원 도시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15. 홍보소통 자료

창의도시 지정 시 활용할 도시의 홍보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 하기 기재한 정보는 유네스코 웹 사이트와 기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홍보소통 자료에 활용되며, 도시가 제출할 홍보소통 자료의 품질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도시에 있다. 동 자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창의도시 웹 사이트 내 도시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도시별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5.1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하여 도시가 보유한 문화자산과 창의산업에 대해 간결히 작성할 것. 작성 시, 도시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만 홍보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해당 문화분야 및 창의분야와 관련된 데이터, 통계, 기타 지표를 기재하는 것은 매우 권장한다. (1,300자 이내)

15.2 상기 작성한 도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동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시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개조식 서술, 700자 이내)

15.3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나 동 가입신청서 내용과 관련된 웹 사이트의 URL 주소(최대 3개 기재)

15.4 기타 주요 국제·대륙간 도시 네트워크·플랫폼이나 유네스코의 기타 도시 네트워크(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국제연합, 물과 환경을 위한 메가시티 연합)의 가입 여부 및 목록을 기재

제출자

성명

시장

날짜

서명¹

1. 동 가입신청서에는 도시 시장의 디지털 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디지털 서명이 불가능 할 시, 동 가입신청서 내 시장의 개인 정보를 기재한 2 페이지와 본 마지막 페이지를 각각 복사한 후, 두 복사본에 수기 서명하여 제출한다.

사진 등록 및 활용 권리 양도서

상기 가입신청서에 서명한 본인, (성명 기재), 은 아래에 기재한 사진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어떠한 언어로도, 디지털을 포함한 어떠한 매체로도 활용·출판·재생산·분배·전시·홍보·대중 공개할 수 있는 비독점 권리(원 소유자의 저작권은 보유하면서 저작권 일부를 양도)를 유네스코에 부여한다. 상기 본인은 시간적 제한과 지리적 제한 없이 유네스코에 동 비독점 권리를 부여하며 이는 변경할 수 없다.

명칭 (예: 파일명)	자료에 관한 간단한 설명 (영어 혹은 프랑스로 40 단어 이내)	날짜 (dd/mm/yyyy 형식으로 작성)	저작권 (‘©____, 년도’ 형식으로 작성)	사진작가 (저작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기재)

1. 상기 본인은 또한 제3자가 위 사진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온전히 비영리적인 교육적 목적이나 대중을 위한 정보 공개 목적에서 활용하도록 승인할 권리를 유네스코에 부여한다.
2. 상기 부여한 모든 권리는 위 사진자료가 활용될 시 각각의 저작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사진자료와 함께 공개할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3. 상기 본인은 동 양도서 단락 1, 2에 의거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사진자료를 활용할 것을 본인의 모든 지식과 신념에 따라 보장한다:
 - (a) 상기 사진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이나 사용 승인에 관한 어떠한 위반이나 침해를 하지 않으며;
 - (b) 상기 사진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가 묘사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도시의 특성 및 자산과 관련된 관행에 대하여 어떠한 위반이나 침해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외설적, 명예 훼손적 내용도 포함하지 않는다.

제출자

성명 _____ 날짜 dd/mm/yyyy

주소 _____ 서명 _____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17 가입 공고

1. 유네스코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성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도시들을 지원한다. 반드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어야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창의도시 지정 권한을 가지며, 유네스코 내부 평가와 하기 평가위원의 외부 협의가 지정 평가에 반영된다:
 - (i) 동 네트워크의 7가지 창의분야와 문화와 창의성을 통한 도시 발전 분야에서 유네스코가 임명한 외부 전문가, 비정부 기구, 독자적 기관;
 - (ii)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 7가지 창의분야 중 한 분야의 창의도시로 지정된 회원도시.
3. 유네스코의 상기 평가에 따라, 동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에 명시된 네트워크 목표 이행을 위해 도시가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의 질적 수준, 적절성, 타당성이 인정받은 경우 창의도시로 지정된다.
4. 회원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이행하는데 있어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가입 신청은 공식 가입신청서(UNESCO 2017 Application Form)를 활용하여 ccnapplications@unesco.org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 제출 문서만 접수되어 평가에 반영된다.
6. 가입신청서는 반드시 동 네트워크의 7가지 창의분야(공예 및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음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 중 도시가 선택한 1가지 창의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입 신청 도시가 선택한 1가지 창의분야와 그 외 6가지 창의분야 간의 현재 혹은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선에서 그 외 6가지 창의분야에 대해 가입신청서에 기술하는 것은 권장한다.
7. 유네스코는 특정 지리적 또는 주제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동 네트워크 가입 공고를 제한할 권리를 보유하며, 최대로 지정할 수 있는 창의도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017년 가입 공고에서는, 국가당 최소 서로 다른 2개 창의분야를 선택한 최대 3개

1. 유네스코는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언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유네스코 국가 목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unesco.org/new/en/unesco/worldwide/regions-and-countries>

2. 제9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일본 가나자와)에서, 회원 도시들은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수립·이행하고 새 회원 도시를 동 네트워크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고자 가입 신청을 2년에 한 번 공고하기로 결정함.

의 가입 신청(2019년 공고에서는 4개로 변경)에 한해 평가 절차에 따른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동 네트워크의 지리적 균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네트워크 내 과소대표 지역¹, 특히 개발도상국가 도시의 가입 신청을 장려한다. 2017년 가입 공고에서는 현재 지역적 대표성이 특히 낮은 아프리카 지역 후보도시를 위한 특별협력체계(specific cooperation framework)가 실시된다. 특별협력체계는 추후 진행될 가입 공고에서 아랍,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언 지역 등 그 외 과소대표 지역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8. 2회 연속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창의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도시는 새 가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 전 4년의 유예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²

9. 후보도시는 가입 신청 시 동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에 명시된 사명, 목표, 활동분야에 대한 내용과 다음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은 후보도시가 가입 신청 시 선택한 창의분야에 관한 평가에서 심사된다:

(1) 동 네트워크 가입 신청 동기, 도시의 주요 발전 기회 및 당면 과제:

-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동 네트워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후보도시의 노력;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 및 활동분야와 후보도시의 목표 및 우선 순위 간의 적합성;
- 창의도시 지정이 후보도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2) 가입 신청 준비 절차:

- 가입신청서 기획 및 준비 과정에서의 시 정부의 참여, 창의도시로 지정될 도시가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시 정부의 참여(계획);
- 도시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의 협력;
- 가입신청서 기획 및 준비에 있어 도시가 선정한 창의분야의 지역 내 관계자들 (창작자, 전문가, 문화 관련 기업 등)의 참여.

(3) 후보도시가 동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비교자산:

- 가입 신청 준비 시점을 기준으로, 후보도시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도시재생에 있어 창의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전략·사업·이니셔티브의 유무;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의 현재 경제적·사회적 맥락, 역사적 중요성, 역할;
- 동 네트워크 목표 성취를 위한 후보도시의 문화적·창의적 자산, 특히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의 잠재적 기여;
- 일반 대중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국가·국제 박람회, 컨퍼런스, 전시,

기타 활동을 개최할 수 있는 후보도시의 전문성;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에 관한 창의성, 예술교육, 전문훈련, 역량강화, 연구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후보도시 체계의 질적 수준, 다양성, 영향;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에서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문화 활동, 문화상품, 문화서비스를 활용·생산·홍보·보급할 수 있는 문화기관과 기반시설의 현황 및 개발 여부;
- 문화적 생활의 참여도, 특히 사회 빈곤계층 혹은 취약계층의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적절성, 영향;
-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에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주요 전문기관과 비정부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는 후보도시의 역량;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하여 후보도시가 기획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의 규모, 질적 수준, 다양성;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관련하여 지역 문화 산업의 창조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된 정책 및 조치의 질적 수준, 영향, 혁신적 특성;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그 외 동 네트워크 6가지 창의분야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분야 간 프로젝트의 지역적·국제적 개발 경험.

(4) 동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가 기여할 수 있는 사항:

-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후보도시가 보유한 주요 문화적·창의적 자산의 활용 및 증진 방안;
-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의 동 네트워크 목표 달성과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 간의 관련성, 적합성, 타당성, 적절성;
-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의 동 네트워크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이 제안하는 이니셔티브의 규모, 질적 수준, 다양성, 혁신적 접근법;
- 개발도상국가 도시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이니셔티브의 포함 여부;
- 후보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와 그 외 동 네트워크 6가지 창의분야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후보도시의 역량;
- 예산 확보 전략과 예산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을 관리하고 실행함에 있어 공공부문·민간부문·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여부;
- 동 네트워크와 후보도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폭넓은 대중의 주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소통 및 인식제고 계획의 질적 수준과 적절성.

10. 2017년 가입 공고 및 지정 절차 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가입 공고
2월 15일	2017년 가입 공고 착수
6월 16일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가입 신청 제출 마감
2단계:	평가
9월 22일	외부 및 내부 협의 및 심사 완료
3단계:	결과 공표
10월 31일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지정 도시 목록 게시

11.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부터 창의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는 유네스코가 제작한 각 지정도시 로고를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12. (유네스코 이외 단체/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정도시별 유네스코 창의도시 로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유네스코 로고
- (2) 도시명, 지정된 창의분야를 포함하여 지정도시와 관련된 특정 시각적 요소
- (3)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지정년도)” 문구

로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3. 각 지정도시는 상기 설명된 로고의 디지털 파일을 전달받게 되며, 동 로고 사용에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은 각 지정도시에 있다.

14. (각 지정도시에서 창의도시 로고를 제작할 시) 유네스코 로고는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유네스코 명칭, 약어, 로고, 인터넷 도메인명 사용에 관한 규정(Directives Concerning the use of the Name, Acronym, Logo and Internet Domain Names of UNESCO)”을 반드시 준수하며 활용하여야 한다.

15. 동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에 명시된 목표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관련 요청에 따라 시 정부 및 시 정부가 지정한 정부기관 부처, 공공기관은 상기 지정도시별 로고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명시한 바와 같

이, 유네스코로부터 지정도시별 로고의 활용을 승인받은 행사 및 프로젝트 개최 기관은 제3자에게 동 로고 사용을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승인할 수 없다.

16. 행사 및 프로젝트 개최 기관이 지정도시별 로고를 포함하여 제작한 홍보물은 다음과 같이 주최기관의 독립성과 유네스코의 면책사항을 명시하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여야 한다: “본 [홍보물 명칭] 내 사실 및 의견 내용과 표현에 관한 책임은 [개최 기관명]에게 있으며 유네스코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지정도시별 로고는 절대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정도시별 로고를 사용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는 상업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18. 동 네트워크의 목표 성취를 위한 도시의 노력과 기여, 그리고 회원도시 간 정보 및 모범사례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도시는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4년마다 창의도시 관련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정기 평가를 받게 된다.

5 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의 의미는?

전 세계 도시는 유네스코로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문화와 창의성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정책,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데 노력한다. 이 FAQ 문서는 도시, 관련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시 정부, 전문기관, 언론, 시민 등)를 위한 창의도시 네트워크 소개 자료로, 다음과 같이 도시가 동 네트워크 회원 자격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시, 도시는 창의성을 위한 지역 정책을 촉진·혁신시키고 국제적인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동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진정한 부가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

- 국제적 경험과 리더십 강화: 창의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의 혁신적 정책·전략·활동의 가시성 확보;
- 지역적·국제적 관심 증진: 경제적 투자 유치, 관련 이해관계자·창의적인 숙련된 전문가 혹은 관광객 확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재정적 지원 확보;
- 회원도시 간 교류: 공동 주최 행사 및 프로젝트를 통해 분야 간 발전 증진, 지식 및 노하우 공유, 창의적 파트너십 구축;
- 창의성을 위한 동력 형성: 동력으로서 도시 창의분야 강조, 관련 이해관계자의 활동 독려, 지역당국·공공 및 민간 전문 기관·학술기관·창의분야 지역사회 간 대화 촉진;
- 지역 창의분야 및 지역사회 발전 증진: 정책 및 경제 환경 발전, 창의적인 전문가 및 지역 창의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 및 시장 진출.

#2 도시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새로운 도시 의제*의 맥락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창의성과 혁신의 힘을 알리는 동 네트워크의 핵심 사명을 활발히 대표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도시의 혁신적 활동을 홍보하고 창의성과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 더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건설에 있어 창의성의 기여를 보여주는 모범사례 개발·모음·공유; 창의도시 웹사이트를 통해 교류 증진(유네스코 사무국 제출 문서 다운로드)
- 창의도시 네트워크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에 참여하여 도시의 창의분야(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의 주요 동향 모니터링 및 기회 모색, 전략적 접근법 구축, 다른 창의분야 내 하위 네트워크와의 협력 및 시너지 효과 증진;

- 2030 의제* 및 새로운 도시의제*의 주요 목적을 반영한 지역 발전 전략 및 정책 구축, 문화·창의성·혁신 분야 내 연구개발 증진을 통한 국제적 수요 충족
- 국제 프로그램을 포함한 역량강화 기회 확장을 통한 창의 지역사회 증진, 다른 창의 도시 내 예술 지역사회와의 교류;
- 동 네트워크 내 과소대표 지역(특히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과의 교류, 연대감, 지식 공유를 위한 유네스코 프로그램 체계인 남반구 도시와의 창의 협력 사업 참여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란?

2015년 국제사회의 인간,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으로 채택된 2030 의제는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롭고 친환경적인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이다.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차원의 정책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지침인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2030 의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이 최초로 인정받았다. 특히 목표 11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도 사회적 포용, 직업 창출, 도시의 회복탄력성, 환경 보호를 다루고 있다.

창의도시는 도시 차원의 2030 이행을 위한 주요 파트너이다.

- 2030 의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2030 의제

새로운 도시 의제란?

2016년 주거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비타트 III 컨퍼런스(Habitat III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승인한 새로운 도시 의제 역시 문화와 창의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비전이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문화 기반의 인간 중심 도시 전략에 관한 문화: 도시의 미래(Culture: Urban Future) 글로벌 리포트를 발간하여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의 사례를 소개한다.

새로운 도시 의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라:

- 새로운 도시 의제
- 유네스코 글로벌 리포트 관련: 문화: 도시의 미래

관련 링크

-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명선언문
- 창의도시 네트워크 전략적 운영체계

#3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의무는 무엇인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은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 도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장기적인 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회원제 기반 기구에서도 회원의 의무를 명시하듯,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명선언문과 전략적 운영체계와의 직접적 연계 활동 실행, 동 네트워크의 공동의 비전과 목표달성;
- 가입신청서에 기재했던 사업계획 이행을 4년마다 보고하여 주요 성과를 밝히고 향

후 전략적 중기 이니셔티브 제안. 첫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Membership Monitoring Report, MMR)는 2021년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조: 자료 링크

-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 회원도시 시장과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동 네트워크의 주요 전략적 모임인 연례회의에서 도시 경험 공유,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다음 연례회의는 2018년 6월 12일~15일 폴란드 크라쿠프와 카토비세에서 개최, 새로 지정된 회원도시들을 위한 특별 세션 마련;
-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위한 재정적 지원 고려. 회원도시의 재정적 상황과 역량에 따라 창의도시 네트워크 재정적 지원 체계(UCCN Financial Contribution Mechanism) 참여 고려;
-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 활동에 활발히 참석. 하위 네트워크 연례모임에 참석하거나 각 창의분야와 유네스코 사무국간 조율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 지원 고려;
- 정기적인 원활한 소통. 유네스코 사무국과 정보 및 지역·국제적 이니셔티브 공유.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유네스코 사무국(UNESCO Secretariat)은 국제적 차원에서 동 네트워크의 전반적 운영을 관리하며 주력 사업, 전략, 프로그램 형식의 이니셔티브를 제안 및 주도한다. 동 사무국은 또한 지침 및 역량강화 자료를 공유하고 예산 모금을 통해 회원도시를 지원하며, 특히 국제적 차원의 홍보소통 및 지원을 통해 동 네트워크를 널리 알린다. 사무국은 창의도시 지정절차를 조정하고 연례회의와 필요에 따른 기타 회의를 주관한다.

7개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s)는 동 네트워크의 7개 창의분야를 말하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장을 제공한다. 7개 하위 네트워크는 또한 동 네트워크의 발전과 주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회들을 모색한다.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는 유네스코와 7개 하위 네트워크 간의 소통을 담당하며 회원도시가 지정한 각 하위 네트워크의 대표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또한 사업 실행, 네트워크 회원제, 홍보소통, 평가, 예산 확보에 관한 문제들을 사무국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 실행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타 기관

- 유네스코의 지역 및 국가 사무소는 관련 파트너와의 소통과 자료 공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유네스코 창의도시 친선대사인 이탈리아 시인 겸 작가 마리아 프란체스카 메를로니(Maria Francesca Merloni)는 다양한 대중을 대상으로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사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해당 국가의 유네스코 대표부 및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도시의 사업에 관한 소통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창의도시 활동(훈련, 지식 공유,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 구축”에 관한 전략적 운영체계

유네스코와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가 공유하는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 구축”에 관한 전략적 운영체계는 문화와 창의성이 도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글로벌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운영체계에 관한 이 안내문서는 2016년 오스터순드 연례회의에서 회원도시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다. 2017년 4월 3일부터 4일, 양일간 프랑스 앙겔레뱅에서 개최된 전문가회의에서 동 안내문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프랑스 앙겔레뱅 연례회의에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안내문서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2004년 출범한 이래 네트워크 사무국과 회원도시들이 이행하여 온 일련의 이니셔티브들과 동 네트워크 내 다양한 공동의 성취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공동의 비전에 관한 전략적 운영체계는 특히, 현재까지 개최되어 온 창의도시 연례회의의 결과, 네트워크의 폭넓은 전문가 자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잠재성 최대화(Maximizing the potential of the UCCN)” 연구 프로젝트, 제2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베이징 정상회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성의 가치화와 평가(Valuing and evaluating creativity for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학술 컨퍼런스, 회원도시 모니터링, 네트워크 관련 데이터 및 모범사례 수집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 전략적 운영체계는 또한 유네스코의 문화 분야 협약,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이하 ‘2030 의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이행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전략적 비전에 발맞추어, 동 네트워크의 새로운 국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동 전략적 운영체계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2017~2021년(4년) 동안 수립하고 운영할 거버넌스 체계, 네트워크의 성장, 네트워크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적절한 예산 지원에 따라 연구, 홍보소통, 역량강화 등 동 안내문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활동에 관한 공동의 비전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오늘: 네트워크의 활발한 확장

1.1.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유네스코의 전략적 프로그램

2004년 유네스코 프로그램으로 출범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는 평화의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는 유네스코의 임무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정부 간 기구인 유네스코는 회원국가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사업(프로그램)과 예산을 승인하는 2개 주요 의사결정 체계인 이사회(Executive Board)와 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 논의된다.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은 회원국가, 외부 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문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원칙·기준·지침을 통해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화 분야 협약 및 권고와 같은 규범적 장치에 의거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역사적으로 유네스코의 모든 문화 분야 프로그램과 전략의 중요한 목표였다. 유네스코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있어 문화산업과 창의산업의 핵심 역

할을 인지함에 따라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창설하였으며, 동 네트워크는 유네스코가 문화 분야 협약, 특히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2030 의제, 새로운 도시 의제를 이행하면서 유네스코의 하나의 비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 차원에서 실천하는 유네스코의 임무와 비전을 보여주고 도시 차원에서 2030 의제의 목표와 새로운 도시 의제의 목표를 통합하고자 한다. 더불어, 동 네트워크의 역할 및 영향은 다양한 분야 내 공공분야, 민간분야, 관련 기관, 시민사회의 협력에 따라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다.

1.2. 문화 기반 도시 정책을 위한 혁신의 원천으로서 성장하는 네트워크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를 지닌 네트워크로 창설된 이래, 지역 발전 정책을 위한 문화산업과 창의산업의 힘을 증명해왔다. 동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회원도시들은 창의성 중심의 도시 개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도시 발전에 대한 문화의 영향을 증진시켜왔다. 회원도시 간 교류와 파트너십은 이러한 도시 차원의 문화와 발전에 대한 비전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유네스코의 주요 도시 프로그램인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030 의제와 문화의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지원해 왔다.

현재(2017년 기준) 116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더욱 많은 도시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네트워크 활동과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관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매회 가입 신청 도시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동 네트워크 내 아프리카와 아랍 지역 도시들의 대표성이 여전히 떨어지지만, 도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네트워크의 지리적 균형성을 향상시켜왔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특징을 가진 소규모 도시부터 광역권 대도시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다양성은 도시 차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들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회원도시들은 창의도시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 발전 전략과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초 원칙들에 충실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내 협력 활동에 대한 회원도시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국가 회원도시들은 더욱 활발한 활동과 국가 차원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국가별 창의도시 네트워크(national sub-network)를 창설하기도 한다. 도시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나 파트너 기관들이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더욱 많은 파트너십을 제안해 오고 있다.

1.3. 사명선언문과 거버넌스 체계 개정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지난 몇 년간 거버넌스 체계를 개정해오고 있다. 동 네트워크 사무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네스코는 연구, 인식제고, 홍보소통, 지정 절차 관리, 회원도시 모니터링, 연례회의 개최, 연례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모색해오고 있다. 지난 2014년 청두 연례회의에서는 유네스코와 회원도시 간 소통을 위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를 출범하기도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회원도시들이 2년마다 새로이 선정한 7가지 창의분야 대표도시로 구성된다. 2015년 가나자와 연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는 각 창의분야 내 활동(특히 각 창의

분야별 회원도시 회의)을 조율하고 회원도시 활동 및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 평가에 참여하며 창의분야 내 하위분야(sub-fields) 활동에 관해 도시와 사무국 간 소통을 조율한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은 2014년 개정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핵심 임무, 목표, 활동분야를 명시하고 있는 사명선언문은 창의성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회원도시들의 지역적·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명선언문은 동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분야로 지식 공유, 시범사업, 전문적이며 예술과 관련된 교류, 연구, 평가 및 측정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와 회원도시들은 창의성을 표현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지역 공동의 구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 발전 의제: 창의도시 네트워크와의 부합성

2030 의제와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전략을 재구성하고 응용할 수 있는 유망한 (국제적) 환경을 구축하였다.

2.1. 국제 발전 의제의 핵심인 문화

문화는 2030 의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2015년 9월 193개국에서 비준한 2030 의제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 사회를 바꿀 17개 목표”는 2030년까지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방향성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2030 의제 채택이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기점을 계기로, 유네스코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2030 의제와 문화 및 창의성의 통합에 대해 주창해왔다. 그 결과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11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탄력성을 지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문화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특히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2030 의제 이행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시 의제에서도 도시발전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유엔 컨퍼런스(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일명 Habitat III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관련된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1을 이행하는데 있어 활동의 중심 매커니즘인 새로운 도시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에 문화와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 문화: 도시의 미래(Culture: Urban Future)라는 제목의 문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유네스코 글로벌 보고서(UNESCO Global Report on Culture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에서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들의 사례를 다루기도 하였다. 유네스코는 또한 새로운 도시 의제 이행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4년마다 해당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2. 2030 의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혁신의 원천인 지역당국

새로운 도시 의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혁신적인 도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1. 유로시티: 1986년 설립된 유럽 최대 대도시 네트워크로 도시 차원에서 유럽 정책을 실행하고 사회적 포용, 도시 생태계, 환경 오염 등의 도시 문제를 협력적으로 논의하는 연합체(역자주)

2.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4년 설립된 전 세계 도시 및 지방정부 국제 연합체(역자주)

3. 인터레그 유럽: 유럽연합의 회원국 간 지역정책 협력 프로그램으로, 유럽지역발전 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으로 운영됨(역자주)

4.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
2005년 설립된 세계
온실가스 80%를 배출하는 전
세계 대도시 연합(역자주)

5.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도시 리더십 연구소: 전 세계
학자, 공공단체, 국제기구,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
혁신적인 도시 발전 방안
에 대해 연구(역자주)

당국의 핵심적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교통, 에너지 효율, 사회적 포용, 교육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사회적·지역적 불평등, 도시 지역에서 벌어지는 폭력 문제, 환경 문제, 도시 확산 현상(urban sprawl) 등 도시들의 주요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차원의 혁신의 힘을 국제적 차원의 정책 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지역당국, 그리고 지역당국의 협력망에 포함된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은 2030 의제와 새로운 도시 의제 실행을 위한 전략과 사업을 재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된 글로벌 전략과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당국 및 관련 파트너들은 다양한 정책 분야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예: Eurocities¹), 성평등(UCLG²), 청년고용(Eurocities), 지속가능관광(Interreg Europe³), 사회적 포용(Urban Transformations), 기후변화 감축(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⁴), 회복탄력성과 재난위기 관리(UCL City Leadership Laboratory⁵)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의제 21(Agenda 21) 체제를 통해 문화 기반 도시 정책을 계획·실행해오고 있기도 하다. 즉, 2030 의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 네트워크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3.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 (a):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전략 목표

3.1. 2030 의제를 위한 회원도시의 혁신적인 힘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장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 중 하나는 네트워크의 혁신적인 사업 이행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이러한 핵심 임무에 따라 실질적인 문화 기반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도시 발전 전략과 문화를 통합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동은 회원도시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네스코 사업의 주요 의제, 2030 의제 및 새로운 도시 의제의 맥락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임무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성에 주목한다. 2030 의제와 새로운 도시 의제 맥락에서 네트워크는 문화 기반의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즉, 동 네트워크는 회원도시들로 하여금 2030 의제와 새로운 도시 의제를 실천하면서 직면해 온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회원도시들의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적인 장을 제공한다. 지역당국의 협력망, 국제기구, 문화기관들을 포함한 더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창의도시와의 협력에 주목하는 바, 이러한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새로운 전략적 시각은 동 네트워크의 영향력과 국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2.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바람직한 성장 모색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전 세계 도시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 가입 신청 시 상당수의 회원도시들이 동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은 동 네트워크의 가시성과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의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네트워크의 성장은 또한

동 네트워크의 향후 지리적 우선순위인 남반구 지역(Global South) 도시들의 대표성을 증가시켜 지리적 균형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네트워크의 확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도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의 성장 속도는 네트워크 사무국과 회원도시의 재정적·운영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무국과 회원도시의 가용 자원과 운영 역량을 고려한 네트워크의 확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2019년에는 국가별 최대 2개 도시만 가입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3.3.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지리적 대표성 증진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도시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동 네트워크 내 지리적 균형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반구 지역 도시들의 네트워크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동 네트워크의 역량과 포용력으로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성의 힘을 증명하면서도, 다양한 지역 간 균일한 구성비를 확보하는 것은 동 네트워크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전략적 목표 중 하나이다. 남반구 지역 도시의 참여는 회원도시들이 지역 발전과 관련된 창의성의 새로운 차원을 탐구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4.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설 이래 중국 베이징, 중국 선전,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미국 산타페를 포함한 회원도시들과 외부 파트너 기관들의 10,000USD 이상의 자발적 기여금을 통한 유네스코 특별계좌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안정적인 재정 확보 체계가 필요하다. 재정적 지속성은 동 네트워크의 잠재적 혁신을 강화하고 더욱 많은 우수 사례를 실천하며 회원도시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질 좋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중요 전략이다. 재정적 지속성은 또한 다른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회원도시 및 회원도시 사업의 가시성을 높이며 동 네트워크가 전략적으로 국제적·대륙별·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4.1. 다양한 협력 활동 제안

유네스코와 회원도시들은 상기 언급한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 활동을 실행하고자 한다:

- **회원도시 사례 모음:** 회원도시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이 시행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례와 출판 자료를 모아 유네스코 웹 사이트에 공유한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원도시들의 주요 성과 및 전략을 통합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회원도시들의 혁신적 사례를 다루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 내 홍보소통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사업 자료들을 개발하는 것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외부 교류를 위한 주요 요소이다. 회원도시들의 우수사례는

다른 회원도시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들의 창의분야 발전에 영감을 줄 것이다.

- **지침, 전략, 운영체계 개발:** 도시 발전에 대한 창의성의 영향을 증명·측정하기 위한 문화 기반 도시정책의 지침, 전략,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유네스코의 기준 개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도시 정책 “실험실” 기능을 하는 회원도시의 잠재성을 발전시킨다. 회원도시들은 지역 차원의 2030 의제 실행에 관한 지침, 지역 발전 계획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와 실질적인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 **시범사업 실행:** 도시 발전에 대한 창의성의 영향을 증명하고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새로운 도시 의제를 실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이행한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지역 차원의 2030 의제 이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협력 도시들로 하여금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적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회원도시 간 협력 체계 역시 지속가능발전 의제·새로운 도시 의제와 관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일부 회원도시들은 타 회원도시들의 우수사례를 시범 적용해 볼 수도 있다.
- **훈련 과정 및 활동 기획:** 대학 및 기타 훈련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회원도시 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회원도시, 특히 남반구 지역 도시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과정이나 활동을 기획 및 실행한다. 기 지정된 회원도시가 참여하거나 가입을 고려하는 도시가 지정 전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기획될 수 있다.

4.2. 홍보소통 활동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위한 홍보소통 범위를 더욱 확장할 수 있다:

- **홍보 및 정보 자료 출판:** 분기별로 발간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보지 (UCCN Courier)”나 특정 주제의 “간행물(Papers)”을 포함한 홍보 및 정보 자료를 출판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회원도시들의 사례연구 및 모범사례를 알려 회원도시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각 회원도시의 네트워크 및 자원(전문가, 대학, 문화 센터)을 개발하며 동 네트워크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관련 활동을 위한 교류를 촉진시킨다.
-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의 국제적 홍보:** 동 네트워크의 활동분야와 관련된 국제적 행사에 회원도시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회원도시들의 참여도와 정보 공유를 증진시킨다.
- **활동 중심의 상호적 웹 사이트 구축:** 종합적인 지식 관리 플랫폼을 포함한 활동 중심의 상호적인 웹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도시의 경험을 확장하고 관련 데이터 공유를 촉진시킨다.

이와 같은 협력 활동과 홍보소통 방안들을 개발하는 것은 동 네트워크의 재정 확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5.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 (c): 창의도시 네트워크 운영 방안

5.1. 현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체계 개선

지난 몇 년간 유네스코와 회원도시들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창의도시 지정 및 가입 신청 평가 절차가 더욱 표준화·개선되었다.

유네스코가 관리하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국은 동 네트워크를 위한 유네스코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유네스코의 국제적 명성과 영향을 활용하여 동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회원도시들은 이러한 사무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지하고 지지해왔다. 회원도시들은 유네스코가 모니터링 체계 개선, 동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연구 활동, 비전과 전략적 지침, 주제적 이니셔티브, 협력 프로젝트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회원도시들의 국제적 관점을 기르고 유엔 및 유엔 기구 체제와 활동에 회원도시들을 참여시켜 회원도시들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14년에 창설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는 네트워크 사무국과 회원도시 간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조율을 담당해왔다. 운영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회원도시에 관한 데이터 수집부터 시범사업 실행, 회원도시 간 협력 및 역량강화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일부 회원도시가 제안한 순환적 운영 체계(rotating coordination mechanism)와 같이 창의도시 네트워크 내 하위 그룹/소규모 중심의 운영·조정 체계를 실시하여 더욱 평등하고 포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7가지 창의분야는 각 회원도시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며 회원도시가 실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7가지 창의분야는 또한 동 네트워크의 정체성이자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 동 네트워크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8번째 창의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동 네트워크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현재 7가지 창의분야가 다루지 못하는 창의성의 새로운 표현을 나타내는 분야를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직하다. 이에 따라 7가지 창의분야를 넘나드는 회원도시들의 협력, 특히 창의분야 간 협력과 대륙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시 의제와 진정한 국제 네트워크로서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창의분야 간 통합적, 지리적 접근성을 촉진시킬 것을 장려한다.

정기적인 네트워크 가입 모집 공고는 2015년 연례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회원도시들의 원활한 참여와 동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연례 모집 공고를 실시할 경우 사무국에 과도한 업무량이 발생하고 기타 중요 사업들을 이행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2년 주기의 모집 공고는 사무국의 행정 역량을 고려한 운영 방식이다. 2년 주기 공고는 또한 동 네트워크의 프로젝트, 파트너십, 협력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여 동 네트워크의 혁신적인 잠재성을 발굴하는데 기여한다.

연례회의(Annual Meetings)와 연례회의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동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연례회의를 통해 회원도시 간, 사무국과 회원도시 간, 기 회원도시와 새로운 회원도시 간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가입 신청서 평가 및 지정 절차(evaluation and selection process)는 지난 몇 년간 일련

의 기준을 통하여 간소화되어 왔다. 유네스코는 가입신청서 평가와 회원도시 지정 절차를 관리하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 비정부기구, 독자적 기관, 기 지정 회원도시의 내부·외부 심사도 이루어진다. 외부 전문가와 운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네스코 이사회(Executive Board)·유네스코 총회(General Conference)·유네스코 회원국 활동을 관장하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특권으로 지정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유네스코는 유엔 전문기구로서 반드시 모든 국가의 참여와 다양한 지역의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창의성에 관한 동 네트워크의 통합적 비전에 따라 모든 7가지 창의분야에 적용 가능한 통합적인 가입신청서 평가 과정과 지정 기준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5.2. 새로운 예산확보 방안 마련

동 네트워크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 지원 방안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는 가입 신청, 프로젝트, 연례회의 개최, 회원도시 모니터링·보고, 모범사례 수집, 지침 및 역량강화 자료 개발과 같은 동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 네트워크의 잠재성, 특히 새로운 전략적 체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재정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추가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유네스코 외부 자금을 통해 마련하여야 하는 바, 동 네트워크를 위한 더욱 많은 회원도시들의 재정적 지원과 유네스코 특별계좌에 해당하는 회원도시의 자발적 기여금을 장려하는 바이다. 이러한 새로운 재정적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 자발적 기여금 형태의 회원도시별 연간 일시불 명목금액 2,000 USD의 지원비가 제시된 바 있으며, 명목금액은 각 회원도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회원도시들은 또한 각 도시 내 지역적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동 네트워크의 국제적인 분야 간 활동과 관련된 도시의 사업계획을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기 도시 당 2,000 USD의 자발적 기여금만으로는 동 네트워크 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시된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금을 장려하는 바이다.

5.3. 파트너십 체계의 공동 수립

더욱 조직적인 협력 체계를 수립을 위하여, 유네스코 사무국은 가입 신청 도시의 신청 준비를 지원하고 지정 이후에는 사업계획 이행에 관해 협력할 수 있는 회원도시-가입신청 도시 간 파트너십을 장려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협력 체계는 최초로 2017년 모집 공고에서 과소대표 지역 중 하나인 아프리카 지역 도시를 위해 실행된 바 있다. 올해 가입 신청 도시와 회원도시 간 협력에 많은 회원도시들이 참여했으며 향후 협력에도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첫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회원도시-가입 신청 도시 간 협력 체계를 동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체계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공고히 하고 다양한 대륙 도시 간 협력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협력 체계는 또한 가입 신청 도시가 점진적으로 비전·전략·사업계획을 발전시키고 이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년 혹은 3년의)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7 유네스코 창의도시 프로그램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에 관한 지침 (2019년 10월판)

본 문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프로그램 회원도시들이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 (Membership Monitoring Reports)를 준비 및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안내하는 지침서이다. 회원도시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지정 이후 4년마다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사명선언문을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회원도시의 꾸준한 노력 증명;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동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의 더 나은 이행을 위해 기획한 4년 사업계획을 공개하며 회원도시의 지속적 참여;
- 유네스코, 다른 회원도시, 국제사회와 함께 창의도시 프로그램 안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할 수 있는 정보·지식·전문성의 구축, 분석, 교류의 문서화 및 증진;
-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중요성 및 영향 서술 및 평가;
- 새로운 당면과제 및 기회 발견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와 관점 구축과 더불어 창의도시의 개념 및 경험에 관한 연구·사례연구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창의성의 잠재성 발굴.

1. 배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을 신청하기에 앞서, 각 도시는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개발, 창의성 및 창조경제 증진, 문화적 삶에 참여 강화, 도시발전계획과 문화의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각 도시는 회원도시로 가입 신청할 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 공공정책 및 지역 활동에 관한 경험, 지식, 모범사례 공유;
- 시범사업 및 공공부문·민간부문·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 독려 및 참여;
- 전문적이며 예술과 관련된 교류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기여;
- 창의도시 경험에 관한 학습, 연구, 평가 개발;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과 조치 촉진;
- 홍보소통 및 인식제고 활동 참여.

회원도시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창의도시 지정과 관련된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 및 영향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유네스코와 다른 회원도시 간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2. 목적

회원도시 모니터링 활동(Membership Monitoring Exercise)은 관련 정보를 구축, 분석, 공유하고 창의도시의 지역적·국제적 영향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모니터링 활동은 창의도시 프로그램 회원도시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동력인 문화와 창의성을 강화하는 데 각 회원도시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원도시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평가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동 문서는 창의도시, 운영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유네스코를 위한 모니터링 지침(Monitoring Guidelines)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회원도시 모니터링 지침의 주요 2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i. 회원도시들에게 창의도시로 지정된 후 활동 보고 방식에 관한 명확한 지침 제공
- ii. 유네스코가 회원도시 활동 평가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지침 제공. 동 활동 평가 과정은 사무국(Secretariat)이 모니터링 동향, 새로운 당면과제 및 기회에 대해 회원도시들이 구축한 지식 베이스를 모으는 정보센터(clearing-house) 역할을 함. 이는 또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정책 결정을 더욱 잘 알리고 창의도시 지정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고자 함

회원도시 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구축, 분석, 배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구체적인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보여줄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문화와 창의성의 영향의 새로운 이슈들을 알림과 동시에 향후 증거기반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조치,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도시 모니터링 활동은 창의도시 연례회의에서 회원도시들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수행 활동과 창의분야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보완한다. 더불어 모니터링 활동은 창의도시 네트워크 웹 사이트에 공개되어있는 사명선언문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원도시들의 지역정책, 이니셔티브, 도시간 파트너십과 행사에 관해 도시들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한다.

2019년 9월 기준, 68개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되었으며 모두 창의도시 네트워크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3.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과정

회원도시들은 창의도시로 지정된 년도로부터 4년마다 11월 30일까지 유네스코에게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는 웹사이트에 게시 가능한 형태로 creativitycities@unesco.org에 제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동 보고서를 2019년 12월 31일(2019년에 한해 적용되는 제출기한 연장)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두 번째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그 이후에도 매 4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 제출년도에 따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웹 사이트에 게시된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클러스터 운영위원 도시(cluster coordinators)를 통해 각 창의분야별 회원도시들에게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를 1월에 전달한다. 클러스터 운영위원 도시는 반드시 해당 클러스터 내에서 내부 평가를 진행하고 각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에 관한 짧은 평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평가는 반드시 1,200 글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단계별 국제적 평가(a. 매우 만족, b. 만족, c. 불만족)를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동 클러스터 평가는 창의도시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을 위한 회원도시의 향후 활동 이행의 영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동 클러스터 평가 보고서는 반드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간단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클러스터는 2월 말까지 동 평가를 진행하고 유네스코에 평가 결과를 제출한다. 유네스코는 회원도시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짧은 보고서를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이후 작성한다.

4. 회원도시 모니터링 지침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사명선언문과 창의도시 지정 절차의 정신 및 목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 지침을 제시한다.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적절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보고서 당 15 페이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동 보고서는 관련 통계 데이터, 사례연구, 리서치나 홍보소통 자료와 더불어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표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 내 자료들은 적절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자료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회원도시는 창의도시 프로그램 내에서 주최한 지역적·국제적 축제, 행사, 교류 프로그램, 파트너십, 전시, 연구, 측정, 정책, 기타 이니셔티브를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요약

2. 도시 기본정보

2.1. 도시명

2.2. 국 가

2.3. 창의분야

2.4. 지정년도

2.5.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일자

2.6.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기관

2.7. 이전 보고서 제출 목록 및 일자

2.8. 담당자 연락처 (하기 사항 포함):

- 창의도시 지정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

- 상기 업무 담당자가 도시 시정부 직속이 아닐 경우, 시정부 내 창의도시 관련 연락 담당자 연락처 포함.

3.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도시의 기여

- 3.1. 지난 4년간 참석한 창의도시 연례회의 횟수(참고: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은 필수임)
- 3.2. 창의도시 연례회의 개최 경험 혹은 향후 개최 예정 여부
- 3.3.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1개 혹은 그 이상 창의분야와 관련된 작업회의, 운영회의 개최 경험(창의분야 내 하위 네트워크 회의 포함)
- 3.4.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다수 회원도시가 참석한 창의도시의 특정 이슈 관련 국제 컨퍼런스나 회의 개최 경험
- 3.5.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관리, 홍보소통, 가시성 증진을 포함하여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유네스코에 제공한 재정적 지원이나 비재정적(현물 혹은 서비스) 지원(해당 일자, 지원 유형, 실제금액 혹은 추정금액, 주요 목적 등 포함)
- 3.6. 클러스터 코디네이터나 부(deputy)코디네이터 활동 여부 및 기간
- 3.7. 창의도시 가입신청서 평가 참여 여부(가입 공고별 평가한 가입신청서 개수 기입),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 평가 참여 여부(각 평가별 심사한 보고서 개수 기입)

4. 창의도시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도시 차원에서 실시한 주요 이니셔티브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17개 목표 이행을 포함하여 지난 4년간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주요 이니셔티브, 파트너십, 조치, 정책에 관해 요약 기술할 것. 작성 시, 특히 다음과 같은 창의도시 지정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

- 특히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적 접근법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 및 활동의 필수 요소로서 문화와 창의성 활용 여부;
- 특히 문화 상품 및 문화 서비스의 창조, 생산, 분배, 향유를 통한 창의경제 강화 여부;
- 특히 소외·취약 계층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생활에의 접근성 향상, 청소년 참여 증진, 성평등;
-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지 개발, 문화 분야 내 창작자와 전문가를 위한 기회 확대;
- 지역 발전 전략, 정책, 계획에 문화와 창의성 통합 여부;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있어 문화와 창의성의 영향 강화, 창의도시 프로그램 인식 제고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분야의 연구, 분석, 확산 활동의 지원 여부.

본 항목을 서술할 때에는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목적 이행과 관련하여 지난 4년간 착수한 주요 이니셔티브만 작성하도록 한다. 동 모니터링 보고서는 가능한 회원도시 이니셔티브의 결과와 영향에 중점을 맞추어야 하는 바, 결과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혁신, 발전, 교육에 중점을 두어 회원도시가 실행한 이니셔티브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짧은 비디오 형식의 시청각 자료로 함께 제출하기를 요청한다.

회원도시의 발전에 있어 지역 문화 및 창의 산업의 기여에 관한 최신 데이터와 통계 (GDP에의 기여, 고용, 문화적 참여, 문화에 대한 공적 지출 등), (혹은) 창의도시 지정의 지역적 영향, 도시 창의성 지표(indexes/indicators)를 부록에 기재하길 요청한다. 특히, 창의도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공유와 동료간(회원도시간) 학습을 위해 상기 데이터, 통계, 지표 등에 관한 연구를 독려한다.

5.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한 주요 도시간·국제협력 이니셔티브

동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에 명시된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목표와 2030 지속가능발전의 제 이행을 위해 1개 혹은 그 이상의 창의도시와 협력하여 지난 4년간 실시한 주요 이니셔티브, 파트너십, 프로젝트, 교류 프로그램, 조치, 연구에 관해 요약 기술할 것.

상기 언급한 결과기반 접근법에 따라,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목적 이행을 위해 지난 4년간 착수한 주요 이니셔티브만 서술하길 바란다. 동 모니터링 보고서는 가능한 한 창의도시 간에 실시한 도시간·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의 결과 및 영향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

6. 향후 4년 중기 사업계획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목적 이행을 위한 창의도시 지정 체제 아래 다음 보고 사이클에 맞게 도시가 향후 4년간 추진할 중기 사업계획에 관해 기술할 것. 더불어, 이전에 제출했던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의 모니터링 및 문서화 과정에 대해서도 서술할 것.

상기 향후 4년간 중기계획에서 제안한 이니셔티브는 반드시 동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목표 및 활동범위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게 현실적이고 일관되어야 한다.

6.1.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도시 차원에서의 목표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최대 3개 작성하고 그 기대효과와 영향에 대해 서술할 것.

상기 3개 이니셔티브 계획 중 2개는 도시의 창의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나머지 1개 이니셔티브 계획은 도시의 창의분야 외 동 네트워크 6개 창의분야 중 적어도 1개 분야와 연계되어야 한다. 동 이니셔티브 계획 작성 시 특히 이니셔티브의 목표, 실행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수혜자, 예상 결과 및 영향에 관해서도 기술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 전문협회, 문화 관련 기관을 참여시키고자 도시가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매우 독려하는 바이다.

6.2. 국제적 차원에서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특히 동 네트워크 회원도시들과 함께 수행할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최대 3개 기술할 것.

본 이니셔티브 계획 작성 시 특히 이니셔티브의 목표, 실행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수혜자, 예상 결과 및 영향에 관해서도 기술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 도시가 참여하거나 창의도시 네트워크 내 과소대표 지역 및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동 네트워크 홍보 관련 이니셔티브를 매우 권장한다. 동 네트워크의 여러 창의분야를 연계시키는 이니셔티브에 관해서도 작성할 수 있다.

6.3. 상기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 연간예산

상기 4년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연간예산 예산안과 지역 이니셔티브, 국제 이니셔티브에 각각 할당된 예산 비율을 작성한다. 재정적 자원과 기타 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을 포함하여, 동 사업계획 실행을 위해 도시가 기여하고 동원할 모든 자원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동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 및 국제 기금 기관에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예산 여부에 관해서도 서술한다.

6.4. 홍보소통 및 인식제고 계획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목표와 작성한 사업계획의 영향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소통 및 인식제고 계획에 관해 서술한다.

1. 서론

동 지침은 2021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의 개최도시(Host City)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선정절차에 있어 유네스코, 회원도시, 개최(후보)도시의 역할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의 주요 목표:

- 동 네트워크 목표를 지역적, 국제적 차원으로 전 대륙에 걸쳐 이행하기 위해 창의도시 간 대화와 정보 공유의 장 제공;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체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 증대를 위한 공동의 우선순위, 협력 이니셔티브, 파트너십의 협력적 참여 증진;
- 동 네트워크의 후년도 전략 및 활동 논의;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체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와 창의성의 기여 강조.

창의도시 연례회의는 동 네트워크 회원도시의 대표자(단)만 참여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전반적인 관리와 회원도시들의 지원 아래, 연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정된 연례회의 개최도시에 있다. 개최도시는 반드시 하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연례회의 개최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회원도시 대표단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반드시 본인 부담하여야 한다.

2. 선정 절차

창의도시 연례회의 개최도시는 연례회의 개최 2년 전에 선발된다. 개최도시 지정이 완료된 연례회의를 AC1라 하고, 새로 선정된 개최도시가 2년 뒤에 조직하는 연례회의를 AC2라 한다.

- 유네스코는 AC1 개최일로부터 약 3달 전에 AC2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입찰(Call for Bids)을 공고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도시는 계획하고자 하는 연례회의의 특징, 기본 세부정보와 더불어 개최 동기를 기술한 입찰 제안서(bidding proposal)를 준비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은 연례회의 날짜에 따라 입찰 공고 후 2달 간 진행 후 종료한다.
- 입찰 제안서는 15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러스트레이션, 통계 데이터, 사례연구, 연구 및 기타 자료 등 입찰 제안서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정보는 부록으로 포함할 수 있다. 입찰 제안서와 부록을 포함한 전체 분량은 30 페이지 이내여야 하며 다른 회원도시들의 입찰 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iii) 유네스코 사무국은 제출된 입찰 제안서가 개최도시 선정 기준(Selection Criteria)에 부합하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 사전심사(pre-screening)를 실시할 것이다. 이에 창의도시 회원도시로서의 노력, 시장의 공식 의향서(letter of intention) 포함 여부, 해당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지지·승인서(endorsement letter)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자세한 사항은 3.1.1, 3.1.2를 참고하시오).
- (iv) 3건 이상의 입찰 제안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될 경우, 유네스코는 상기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7개 클러스터 운영위원 도시(cluster coordinators)로 구성된 운영위원회(Coordination Group)의 권고에 따라 3건의 입찰 제안서를 사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도시 중 클러스터 운영위원 도시가 있다면, 이 도시는 자동으로 사전 선정 위원회에서 제외된다. 이 제외된 클러스터 운영위원 도시의 창의분야는 반드시 운영위원 역할을 할 임시 클러스터 운영위원 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 (v) AC1 개최 이전에 입찰 제안서 혹은 사전선정을 통해 선별된 3개 입찰 제안서는 모든 회원도시들에게 공유된다.
- (vi) 만약 단 1개의 입찰 제안서만 유네스코에 제출되었고 동 입찰 제안서가 상기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AC2 개최도시는 AC1에서 동의를 얻어 지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AC2 개최도시는 회원도시들이 참여하는 다음과 같은 선정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 AC1에서 사전 선정된 개최 후보도시들은 짧은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AC1 이후 한 달 이내 유네스코는 단순 과반 투표 및 비밀 온라인 투표 진행;
 - 개최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지정 이후 개최되는 연례회의에서 AC2에 대한 공식 발표 진행.

유네스코와 개최도시는 AC2 개최도시 지정에 따라, 해당 연례회의 임시 일자를 함께 결정한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AC2 임시 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최종 일자를 변경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변경 요청은 연례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유네스코 고위급 대표 및 파트너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다른 유네스코의 주요 행사 일정과 겹치는 등 예상치 못했지만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유네스코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유네스코와 개최도시는 연례회의 개최에 관한 공식 문서에 서명하게 된다.

2017년에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를 포함한 모든 회원도시는 동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유의사항: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개최 후보도시(candidate city)는 상기 연례회의 개최도시 선정절차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최도시 선정절차 중에는 어떠한 영향력 행사나 로비 활동도 허용되지 않으며, 선정 지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현물·서비스·모금 활동·물질적 대가·비

물질적 대가 교환도 금지된다.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도시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도시는 즉시 실격된다.

개최 후보도시는 2019년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공고에 따른 회원도시 증가를 고려하여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2019년 새로운 창의도시 지정은 11월 진행 예정이다.

3. 선정 기준

개최도시 선정 입찰은 동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선정기준(Selection Criterion)에 맞는 도시의 역량과 노력을 명확히 증명하여야 한다. 개최 후보도시는 필수적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엄격히 실행하여야 한다. 각 입찰제안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 동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선정기준 외 다른 기준도 적용될 수 있다.

유네스코와 회원도시는 다음에 명시된 선정기준에 따라 개최도시 선정 평가 과정을 진행한다:

3.1. 도시의 노력

3.1.1 국가 차원·시 차원의 기여(필수기준)

- 시 정부 내 최상위 직급/체제 차원의 기여에 대한 증명
- 입찰제안서 붙임 문서로 시장의 공식 의향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
- 입찰제안서 파일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지지·승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

3.1.2 회원도시로서의 노력

필수 기준

- 입찰제안서 제출 최소 1년 전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 지정
- 입찰제안서 제출 2년 전 최소 1회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석

충족 권장 기준

입찰제안서 평가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고려될 수 있음:

- 지난 2년 동안 다른 창의도시들이 참석한 함께 최소 1개 대규모 국제 파트너십 프로젝트 실행,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명선언문에 따라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주요 지역 프로젝트 3건 실행
- 입찰제안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 최소 2회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석
-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회원 필수사항 및 지침에 따라 4년마다 제출하는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Membership Monitoring Report) 제출

3.2 로지스틱스 제공

3.2.1 일반 기준(총족 권장 기준)

지리적 균형성:

1. 유네스코는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언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unesco.org/new/en/unesco/worldwide/regions-and-countries>

- 연례회의 개최도시는 가능한 한 서로 다른 대륙에 위치한 회원도시로 교대로 선정된다.¹
- 연례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었던 국가나 지난 3년간 연례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었던 지역(유네스코 지역 구분 참조)의 입찰제안서 제출을 독려한다.
-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7가지 창의분야 대표
- 지난 3년 간 연례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었던 창의분야의 입찰제안서를 독려한다.
- 도시의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노력
- 도시의 접근성

3.2.2 장비 및 인력(필수 기준)

입찰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의 노력과 역량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장소 및 시설

- 연례회의 본회의(plenary sessions)는 유네스코 대표 참석을 승인 받은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 각 회원도시별 최소 2인의 대표, 기술자·통역사와 같은 지원 인력이 모두 참석하는 바,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회의 진행을 위한 장비가 완비된 주회의장(개최 후보도시는 네트워크 가입 공고에 따라 증가할 회원도시의 수를 감안하여야 한다)
- 연례회의 세션 중 7개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 회의와 기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7개 정도의 소·중규모 회의실
- 운영위원회(Coordination Group) 작업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회의실
- 유네스코 사무국(UNESCO Secretariat)과 개최도시 실무부서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영어나 프랑스어로 작업 가능한 컴퓨터,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 인터넷, 사무용품 등을 포함한 장비들이 한 공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 언론 취재를 위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연례회의 주회의장 주변의 인터뷰 및 취재가 가능한 프레스 룸 등의 언론 매체를 위한 공간
- 연례회의장 전체에 반드시 와이파이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함

기술 지원 서비스

- 적어도 본회의, 시장단 포럼(Maytor's Forum) 세션에서 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헤드셋이 완비된 영어, 프랑스어, 개최도시 국가 언어 동시통역 제공
- 연례회의 프로그램, 행사를 동시 상영하고 기타 홍보용 시각 자료 상영 등이 가능한 주회의장 내 적절한 수의 스크린 설치

- 유네스코 및 회원도시의 승인을 받은 출판물 배포를 위한 전용 “출판자료 코너” 설치
- 무대와 청중 자리에 충분한 수의 고정 마이크 및 무선 마이크 배치
- 참가자 등록, 헬프 데스크, (개인별) 이름표, 표지판 등 행사 관련 기본 서비스
- 사무용품: 노트, 펜, 모든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기타 사무용품

인력

지역 인력(개최도시 지역 내 인력)

- 개최도시는 연례회의의 준비 및 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최도시 지정 이후(개최할 연례회의의 최소 9개월 이전) 최대한 빨리 영어 혹은 프랑스어가 가능한 연락 담당자를 최소 1명 포함한 전담 부서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전담 부서 업무는 유네스코와 함께 연례회의 의제 초안 작성, 전문문서나 작업문서 준비, 유네스코 및 회원도시와 연락 및 정보 공유, 로지스틱스 관리, 연례회의 기간 내 홍보소통 이벤트 개최, 지역·국가·국제 언론 매체에 배포할 기사 및 미디어 준비 등이 있다.
- 영어를 구사하는 안내원을 최소 6명,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안내원 최소 2명, 총 8명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두어 참가자 등록, 참가자 이름표 준비, 참가자 목록 관리 업무를 부여한다. 안내 부서는 연례회의 기간 동안 참가자 안내 및 지원 업무를 맡는다.
-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 인력 최소 2명,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최소 1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두어 연례회의 기간 동안 유네스코 사무국을 지원하도록 한다.
- 연례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회의 준비를 위해 장비 설치, 관리, 해체를 지원할 기술 인력을 배치한다.

국제적 인력(유네스코 본부 소속)

- 특별 예산으로 임금 지급과 필요한 자원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지원하여 최소 1명의 유네스코 단기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단기인력은 연례회의 준비기간인 총 12개월 동안 유네스코와 개최도시 간 연락을 담당한다. 개최도시 지정 후, 유네스코와 개최도시 간 동 단기인력 채용을 위한 특별 예산에 관한 계약(terms of the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동 단기인력의 채용 절차와 업무 내용은 유네스코의 규정, 지침, 절차에 따라 결정 및 실행된다.

3.2.3 숙소 및 교통(필수 기준)

입찰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할 개최도시의 노력과 역량을 증명하여야 한다:

- 케이터링: 연례회의 기간 (참석을 승인받은) 모든 참가자들의 중식, 커피 브레이크, 석식
- 연례회의 기간 (참석을 승인받은) 모든 참가자들의 현지 교통
- 숙박
- 개최도시는 유네스코 대표(약 6명의 직원)를 위한 숙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회원도시 대표단은 숙박비용, 개최도시까지의 항공비용을 반드시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개최도시는 연례회의의 장소 근처 적절한 호텔을 선정하여 (참석을 승인받은) 모든 참가자들이 할인가와 우선 예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비자: 개최도시는 연례회의의 (참석을 승인받은) 모든 참가자들이 비자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개인별 지원을 받거나 특정 기술적 문제들을 가능한 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최도시 국가와 협조하여야 한다.

3.2.4 문서 및 정보(필수 기준)

입찰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개최도시의 노력과 역량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 온라인 등록, 회의 의제 및 보도 자료를 포함하여 회의에 관련된 모든 필요 정보 및 전문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영어 및 프랑스어로 된 연례회의의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문서 준비 및 출력

- 유네스코와 개최도시가 준비한 연례회의와 관련된 전문문서 및 작업문서는 반드시 회의 기간 이전에는 전자문서로 회의 기간 중에는 출력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요청에 따라 회의 기간 중 추가로 출력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회의록 및 기록

- 개최도시 측 전문 인력이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작성한 연례회의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네스코로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반드시 유네스코의 기타 실무 언어로 번역될 수 있어야 한다.
- 상기 회의록과 더불어, 연례회의와 관련된 주요 지역, 국가, 국제적 언론 기사를 포함한 보도 자료 모음집(press review folder)을 유네스코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례회의의 목적 달성 여부, 문제점, 시사점을 분석한 연례회의의 준비, 실행, 후속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연례회의 이후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정보, 문서, 자료: 개최도시는 연례회의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 자료와 더불어 최종 참가자 목록을 반드시 유네스코로 제출하여야 한다.

3.2.5 안전(필수 기준)

입찰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개최도시의 노력과 역량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 안전 규칙과 유네스코 규율에 따라 연례회의 전체 기간 동안 모든 건물, 장소, 직접 주변 지역의 안전 제공, 유엔 기구들과 공동 개최한 특별 이벤트나 회의를 위한 안전 지침 제공
- 개최도시를 대표하는 안전 관련 연락 담당자(security focal point)를 지정하여 안전 담당 부서와 유네스코 사무국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 유네스코의 요청에 따라 개최도시와 유네스코는 안전에 관한 특별 공식 문서 체결 가능

3.2.6 유네스코 사무국의 사전 현장 실사(필수 기준)

입찰 제안서는 반드시 개최도시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할 것임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 3인의 유네스코 대표들이 연례회의 준비과정을 현장 실사 하는 기간 동안 대표들에게 케이터링, 현지 교통 및 항공, 숙박, 관련 제반 비용을 포함한 필요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제공
- 현장 실사, 작업반 및 관련 지역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들과의 회의 등을 포함하여 유네스코 대표의 현장 실사를 동행할 수 있는 개최도시 작업반(working group) 내 최소 1명의 전담 인원을, 이상적으로는 해당 팀장 혹은 도시의 연락 담당자로 지정

3.3 내용적 필수 요소

3.3.1 연례회의 프로그램 제안(필수 기준)

입찰 제안서는 연례회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개최도시의 노력과 역량을 명료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 도시 발전을 위한 창의도시 네트워크 의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개최도시의 발전 우선순위 및 전략에 중요하고 적절한 하나 혹은 두 개의 연례회의 테마 제안
- 연례회의에 관한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와 일반 대중의 흥미를 끌고, 연례회의의 주목도와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형식 및 작업 방식과 같은 혁신적 제안 제공
- 제안한 연례회의 프로그램을 동 네트워크의 주제적 우선순위, 특히 동 네트워크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와 같은 전문적 혹은 학술적 회의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이러한 회의는 반드시 유네스코와의 협력 하에 연례회의 부대행사로 고안, 개발, 조직되어야 하며 연례회의의 진정한 부가가치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한 연례회의 프로그램을 동 네트워크의 비전과 활동범위, 제안한 연례회의 프로그램 테마에 맞는 주요 지역 혹은 국제 행사(축제, 박람회, 컨퍼런스, 전시 등)에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 제안한 연례회의 프로그램을 문화 분야 전문가, 학자 및 전문가, 예술가, 창작가 및/혹은 사업자를 타깃으로 하는 추가 행사 및 동 네트워크 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추가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 지역 창의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들과의 교류와 같이, 개최도시의 창의성 중심의 개발 전략 방안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 및/혹은 현장 학습과의 연계 가능성 제시
- 연례회의의 테마에 맞는 동 네트워크의 모범사례와 이니셔티브를 공개 발표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 제시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는 유네스코 행사인 바, 입찰 제안서가 채택되어 개최도시로 지정될 경우, 도시가 제안한 연례회의 최종 프로그램은 유네스코의 승인을 받고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3.3.2 홍보소통 계획 제안(필수 기준)

입찰 제안서는 또한 연례회의의 홍보소통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개최도시의 노력과 역량을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 일반 대중과 다양한 직책의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포함하여 연례회의의 준비, 실행, 종료 전반의 기간 동안의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홍보소통 계획
- 사전 행사개최 안내장, 초대장, 보도자료, 웹 사이트를 포함하여 연례회의와 관련된 주요 홍보 문서 및 도구를 유네스코의 승인을 받고 함께 제작
- 유네스코 및 창의도시 로고와 명칭을 활용을 포함하여 홍보소통을 시행함에 있어 유네스코의 규칙, 지침, 절차를 준수
-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의 홍보소통 도구 및 채널을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연례회의의 가시성과 교류 활동에 노력하고 영어, 프랑스어, 개최도시 모국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엔의 기타 공식 언어를 활용한 주요 홍보 자료를 제작
- 사전에 유네스코와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홍보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문 홍보 에이전시 활용 가능성을 기술

4. 개최도시 선정과정 일정

- I) 3월 22일: 입찰 공고 개시
- II) 5월 21일: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 III) 5월 22일~6월 10일: 전문 사전평가 실시, 사전선정 실시(3개 이상 입찰제안서 접수 시)
- IV) 6월 15일(추후 최종 날짜 공지 예정): 2019 연례회의(이탈리아 파브리아노)에서 (사전 선정된) 개최 후보도시들의 발표 진행
- V) 7월 중순~9월 중순: 유네스코 주최 온라인 투표 실시
- VI) 9월 말: 2021년 개최도시 지정

9 제9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결과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회원도시들은 2015년 일본 가나자와 연례회의에 회동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국(UCCN Secretariat)은 반드시 모든 창의도시들과의 소통,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및 대표 프로젝트 제안, 신규 회원도시 지정 절차 관리, 동 네트워크의 가시성 향상, 회의 개최를 중심으로 필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7개 창의분야에서 각각 하나씩 임명되는 운영위원 도시들과 다음 연례회의 개최도시의 대표가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를 구성한다. 각 창의분야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 회원도시들이 의장 도시를 임명하며, 반드시 부의장 도시(deputy coordinator)도 지정하여 필요에 따라 의장 도시의 임무를 대리 수행하게 한다. 운영위원회는 가능한 한 반드시 모든 대륙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각 하위 네트워크의 운영위원 도시 지정 시 모든 대륙의 지리적 대표성을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하위 네트워크 운영위원 도시들은 각 하위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의 회원도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회원도시들의 2년차 임기 말에 개최되는 연례회의에서 새로운 운영위원 도시들이 선출된다. 다음 운영위원회 선출은 2016년 오스터순드 연례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3. 운영위원회의 다음 년도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2015년 창의도시 가입 공고의 지정 절차와 유네스코 사무국의 관련 문서에 기반한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하여 동 네트워크 가입 후보도시들의 가입 신청서 평가 감독.
 - b) 2017년 연례회의 개최도시 선정 참여, 이번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개최도시 선정 기준에 따른 2018년 선정 과정 착수.
 - c) 회원도시들이 2016년 2월에 제출할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Membership Monitoring reports) 평가 참여, 2016년 연례회의에서 회원도시 모니터링 활동(Membership Monitoring Exercise) 결과 보고 발표.
 - d) 스웨덴 오스터순드에서 개최될 2016년 연례회의 조직 및 준비 참여.
4. 가용 예산이 충분할 경우, 유네스코 70주년을 기념하여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 2015년 11월 12일~14일) 문화 위원회(Culture Commission) 회의 기간 동안 유네스코 본부에서 본 네트워크의 활동을 소개하는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및 전

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하위 네트워크 대표 도시들은 각 창의분야의 활동 및 성취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5. 회원도시들은 또한 올해 진행되는 다수의 대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유네스코 70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은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유네스코 사무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6. 회원도시들은 관련 사례 연구, 데이터, 프로젝트 분석,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에 관한 사업 혹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유네스코에 제공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문화와 지속가능 도시 발전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Global Report on Culture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7.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네트워크의 목표와 목적을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원도시들은 혁신적 조치, 파트너십, 7개 창의분야 내·7개 창의분야 간 프로젝트를 동 네트워크 차원에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8. 회원도시들은 유네스코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본 네트워크의 목표와 관련된 회원도시들의 행사 및 활동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현대적, 창의적, 대응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동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9. 회원도시들은 학술 연구와 데이터 축적을 포함하여 지역적 차원에서의 창의도시 지정 효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도시들의 상호 이해와 관련된 분야 간 쟁점들, 특히 다음 연례회의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10. 회원도시들은 동 네트워크 내 신규 회원도시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인 파트너십의 구축 및 실행을 위해 네트워크 가입 공고를 2년 마다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11. 회원도시들은 유네스코의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동 네트워크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네트워크 활동의 강화 및 확장을 위하여 유네스코 및 민간 분야 간 파트너십 개발을 포함한 유네스코의 직접적 기여를 인지한다.
12. 회원도시들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체계를 제안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요청하는 바이다.

⑩ 제10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결과

스웨덴 오스터순드,
엠틀란드 헤리에달렌
2016년 9월 16일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회원도시들은 2016년 스웨덴 오스터순드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 회동하여, 동 네트워크의 향후 발전과 지속가능한 창의도시 건설을 위한 유네스코와 회원도시 그리고 회원도시 간 파트너십의 강화에 대해 논의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국(UCCN Secretariat)은 반드시 모든 회원도시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혹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UCCN Steering Group, SG)를 통해 사업 이니셔티브, 대표 프로젝트, 신규 회원도시 지정 절차를 포함한 동 네트워크의 국제적 운영, 회원도시 모니터링 체계, 연례회의의 조직, 연례회의의 개최도시 선정, 연구 이니셔티브 실행, 동 네트워크의 가시성 증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창의성의 인식제고에 관한 적절한 방안들을 제안한다.
2.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내년 활동의 주요 분야로 다음 사항들을 실행한다:
 - 문화 및 창의 분야 예술가들과 전문가들의 이동성 향상;
 - 회원도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실행;
 -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공고 착수 및 시행;
 - 신규 회원도시의 통합 및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연대 강화;
 - 모범 사례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한 동 네트워크의 전략 및 연구 주제 수립;
 - 본 네트워크의 사명선언문 이행을 위한 남반구 지역 역량 및 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
 - 창의성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위한 회원도시 간 분야 간 교류 및 협동 개발.
3. 2014년 제8차 중국 청두(成都) 연례회의에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2년의 임기를 가진다.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은 제9차 일본 가나자와 연례회의의 결과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주요 역할을 지닌다:
 - i) 사무국과 각 창의분야 회원도시 간 소통 촉진;
 - ii) 각 창의분야 내 공동 활동 조정, 각 창의분야가 6개월 마다 사무국에 제출하는 활동 계획을 포함한 정보 및 결과 수집 및 전달;
 - iii) 매년 최소 1개 창의분야 회의 공동 개최;
 - iv)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 평가 과정 참여;
 - v) 연례회의 개최도시 지정을 위한 후보도시 평가 및 사전 선정 참여;

- vi) 2017년 연례회의의 평가 보고서 발표 및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 활동(Membership Monitoring Report Exercise) 평가 과정 참여;
- vii) 동 네트워크의 7개 창의분야 간 협력 촉진 및 지원.

4. 이번 연례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도시들의 첫 개정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새롭게 선정된 운영위원회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 공예와 민속예술: 파브리아노(의장 도시), 이천(부의장 도시)
- 디자인: 선전(의장 도시), 디트로이트(부의장 도시)
- 영화: 골웨이(의장 도시), 더블린(부의장 도시)
- 문학: 크라쿠프(의장 도시), 영갱레뱅(부의장 도시)
- 미디어아트: 다카르(의장 도시), 만하임(부의장 도시)
- 음식: 오스터순드(의장 도시), 엔세나다(부의장 도시)

제2차 운영위원 구성도시 개정 선출은 2018년 연례회의에서 실시된다.

5. 회원도시들은 2017년 연례회의에 제출될 동 네트워크의 향후 전략 개발을 요청하는 바이다. 동 전략은 유네스코 프로그램 및 예산(Programme and Budget),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잠재성 최대화(Maximizing the potential of the UCCN)” 연구 프로젝트, 동 네트워크 내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과 관련된 유네스코 전략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6. 유네스코 사무국(Secretariat), 운영위원회, 2015년 12월 이전 가입한 창의도시들의 협력 하에, 2017년 연례회의 개최도시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프랑스 영갱레뱅이 선정되었다. 사무국은 2018년 연례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2016년 10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다.

7. 유네스코 사무국은 연례회의 개최도시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것을 공식 건의하였고 회원도시들은 이 계획을 승인하였다. 제9차 연례회의에서 합의된 개최도시 선정 기준(Host City Selection Criteria)은 유네스코가 개최 혹은 협력하는 다른 회의들과 관련된 보안 규정 및 절차들과의 통합을 위해 검토될 예정이다.

8. 회원도시가 제출하는 문서 중, 운영위원회·회원도시들의 협력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이 진행하는 연례회의 개최도시 선정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8년 개최도시 선정부터는 연례회의 개최도시 입찰 제안서를 반드시 유네스코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창의도시 가입 신청서(Application for Designation)나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Membership Monitoring Report)와 같은 다른 문

서들을 두 언어 모두로 제출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나,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본 네트워크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매우 권장하는 사항이다.

9. 올해는 제9차 일본 가나자와 연례회의에서 공식화 된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 체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해였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동 네트워크에 가입했던 회원도시들의 8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회원도시 중 에딘버러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예외적으로 제외되었다. 유네스코 사무국과 운영위원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동 보고서 평가 과정 이후, 이번 연례회의에서 국제적인 평가가 실시되었다. 아래 명시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지정된 회원도시들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사무국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글라스고(영국) - 음악 창의도시
- 아이오와(미국) - 문학 창의도시
- 고베(일본) - 디자인 창의도시
- 리옹(프랑스) -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 멜버른(호주) - 문학 창의도시
- 나고야(일본) - 디자인 창의도시
- 선전(중국) - 디자인 창의도시
- 브래드퍼드(영국) - 영화 창의도시
- 헨트(벨기에) - 음악 창의도시
- 가나자와(일본) -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10. 본 네트워크의 결정 사항과 각 창의분야 회원도시들의 활동, 이니셔티브, 조치, 정책공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각 창의분야는 매년 최소 1회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장한다. 하위 네트워크 회의는 7개 창의분야에 대한 주제적 논의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경험 및 모범사례의 분야 간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하위 네트워크의 의제, 주요 주제 발표, 참가자 목록, 주요 결과를 포함한 관련 정보들은 동 네트워크 내 공유를 위해 사무국에 적시에 제공하도록 한다.

11. 각 창의분야는 운영위원 도시를 통해 6개월 마다 회원도시들의 주요 향후 프로젝트·이니셔티브와 더불어 본 네트워크 사명선언문 이행에 관한 활동 계획을 사전에 수립 및 제출하여야 한다. 동 활동 계획은 3월과 9월에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간 합의를 통해 활동 계획 지정 양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12.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들은 네트워크의 활동 뿐 아니라 문화와 창의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국제적 의제, 특히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및 해비타트 III 총회(Habitat III Conference)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이행에 참여 및 기여할 것을 독려한다.

13. 회원도시들은 비정규 예산 프로그램인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위한 자발적인 재정적 및 비재정적 기여를 통해 동 네트워크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독려한다. 사무국은 2017년 연례회의에서 재정 마련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14. 회원도시들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소통 및 가시성 향상을 위한 유네스코 사무국의 노력을 인정하며, 사무국으로 하여금 디지털 플랫폼과 기타 소통 채널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독려하는 바이다.

스웨덴 오스터순드
2016년
9월 14일~16일

2016년 9월 14일~16일 스웨덴 오스터순드 제10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연례회의 참가자인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의 필수적·변혁적 동력의 역할을 하는 문화와 창의성의 중요성을 지지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창의성과 문화 산업 중심의 지역 발전 계획과 활발한 국제 협력이 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포용적 체계를 제공하는 지속가능 도시발전의 전략적 요소인 창의성의 역할을 인지한다.

제10차 연례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문화 및 창의분야 발전, 도시-지방 연계의 잠재성 최대화(Fostering the culture and creative sectors as driv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maximizing the potential of urban-rural connections)를 테마로, 116개 창의도시 대표단은 2015년 12월 10일~12일 중국 항저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f Culture for Sustainable Cities)에서 채택된 “항저우 결과 보고서(Hangzhou Outcomes)”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제3차 해비타트, 주거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유엔 회의(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bitat III) (2016년 10월 17일~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에 따라, 회원도시들은 오스터순드 연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시 및 지역 발전에서의 문화의 통합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 의제의 지침을 따르고자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1. **인간 중심 도시:** 문화를 통해 도시의 정주성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지원하며 도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도시의 인간화
2. **지속가능한 도시 경제:** 문화적 자산과 도시의 인간적 잠재성을 향상시켜 빈곤을 완화하며 경제적 변화 관리
3. **인간 척도, 세밀하고 혼합적인 도시 활용:** 도시발전, 재생, 적응적(adaptive) 재사용에서의 문화 및 창의성 증진
4. **포용적인 다문화 도시:**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파트너십의 협동력을 증진시켜 문화적 다양성 인지
5. **평화롭고 관용적인 도시:** 평화 및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고 도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및 유산의 다양성 증진
6.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녹색 도시:** 환경 문제에 관한 혁신적인 문화 기반의 해결 방안이 유산과 전통 지식 통합

7. **포용적인 공공 공간:**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질적으로 바람직하게 설계된 공공 공간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산과 문화적·창의적 활동 활용
8. **지방-도시 간 연계성 향상:** 소규모 거주 지역 및 경관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존중하고 소규모 거주 지역과 도시 간 관계성 강화
9. **도시 거버넌스 향상:** 참여 체계 및 역량강화를 확대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 및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우리는 또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시민사회의 모든 부문과의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의제(Agenda 2030) 이행을 위해 이니셔티브, 정책, 프로젝트에 문화를 통합하고자 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

⑫ 제11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프랑스 앙갱레뱅
2017년 7월 2일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들은 앙갱레뱅에서 개최된 2017년 연례회의에서 회동하였으며, 개최도시의 관대한 호의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 회원도시들은 논의 및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하였다: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유네스코 사무국(Secretariat)과 회원도시들이 함께 나아가기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한 본 네트워크의 새로운 전략적 운영체계(Strategic Framework)를 채택하였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와의 긴밀한 협력과 제10차 스웨덴 오스터순드 연례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동 전략적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향후 몇 년간, 동 네트워크의 주요 주력 사항은 다음을 포함할 예정이다:
 - 문화 기반 정책을 위한 연구 및 지식 관리 체계 수립;
 - 회원도시 및 가입 신청 도시, 특히 남반구 지역 도시들을 지원하여 모든 회원도시들의 국제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 창출 파트너십 체계 개발;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관련된 회원도시들의 혁신적 힘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 동 네트워크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및 역량강화 자료 개발.
2.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회원도시들은 동 네트워크 가입 공고 시 최대 지정도시 수를 감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전 가입 공고에서의 3개 도시 지정과 달리, 2019년 가입 공고부터는 한 국가 당 서로 다른 창의분야에 신청하는 최대 2개 가입 신청서가 평가 절차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3. 한편,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지리적 균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동 네트워크의 과소 대표 지역에서 제출하는 가입신청서, 특히 개발도상국가 도시의 가입 신청서 제출을 독려한다. 올해 시행한 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협력 체계(Cooperation Framework)에 기반 하여, 가입 신청 도시와 회원도시를 파트너로 연결해주는 협력 체계(Cooperation Framework)가 향후 가입 공고에서 다른 과소 대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4.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신규 지정도시를 위한 역량강화 및 사전준비 체계를 도입 및 개발할 뿐만 아니라, 향후 후보도시들의 더욱 원활한 가입 신청 준비와 지정 시 효과적인 동 네트워크에의 통합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5. 회원도시들이 도시 차원에서 개발한 문서·경험·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본 네트워크의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을 보여주는 모범사례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공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한다. 유네스코의 방법론 및 체계, 전문가 및 회원도시 내 연구 및 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국이 주도하는 공동 이니셔티브가 착수되어야 한다. 활용 가능한 가치 있는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 동 네트워크의 전문가 그룹을 확장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6. 제8차 중국 청두(成都) 연례회의에서 구성된 창의도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UCCN Steering Group, SG)의 역할 및 조직은 제9차 일본 가나자와 연례회의 및 제10차 스웨덴 오스터순드 연례회의에서 더욱 정교해졌다. 제10차 연례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원도시의 첫 갱신이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갱신은 제12차 폴란드 크라쿠프 및 카토비세 연례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원도시들은 2년 임기에 최대 1회 연임 가능하며, 부의장 도시들(Deputy Coordinators)은 첫 2년 임기를 마친 이후 의장(Coordinators) 역할을 위임 받을 수 있게 하는 순환체계가 제안되었다. 본 네트워크는 이 순환체계에 대한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연례회의에서 관련된 새로운 체계가 수립될 수도 있다.
7. 공동 창조 파트너십은 지방 정부, 시민 사회,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의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며 상호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생산하고자 한다. 회원도시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문화 및 창의분야의 증진과 경제적 성장 및 사회적 발전의 촉진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내년(2018년) 회원도시들은 참여적 정책결정 및 사업 실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8. 회원도시들은 다양한 문화 및 창의 영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도시들이 모든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도시 환경을 기획, 창조, 구축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기술 및 공공 공간의 필수적 역할을 완전히 인지하고 활발히 지지한다.
9. 회원도시들은 본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더욱 집중적이고 간소화 된 방식으로 연례회의의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향후 연례회의에서 각 도시에서는 연락 담당자(Focal Point)와 1인의 고위급 정치적/행정적 대표인을 포함한 3인의 도시 대표단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10. 회원도시들은 제9차 일본 가나자와 연례회의에서 공식화 된 첫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 활동(Membership Monitoring Report exercise) 이후 2차 보고 활동이 시행되었음을 인지한다. 2008년, 2009년에 가입한 10개 회원도시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평가 과정 이후, 이번 연례회의에서 종합 요약본이 작성되었다.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 지침(Membership Monitoring Guidelines)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0

년에서 2013년 사이에 지정된 22개 회원도시들은 반드시 2017년 11월 30일까지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4년마다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10차 스웨덴 오스터순드 연례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각 창의분야는 해당 운영위원 도시(Coordinator)를 통해 회원도시들의 동 네트워크 사명선언문 이행을 위한 향후 주요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의 활동 계획을 매 6개월 마다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동 활동 계획 양식을 만들었으며 회원도시들은 해당 운영위원 도시를 통해 활동 계획을 제출하였고, 1차 6개월 계획은 지난 4월 공개되었다. 이러한 최초 시행 경험을 기반으로, 동 네트워크는 보고의 일관성과 창의분야 간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몇 년간 본 활동 계획 제출 과정을 개선하고자 한다.
12. 이번 연례회의에서 진행된 창의도시 시장단 선언의 요구 사항을 상기하며, 회원도시들은 동 네트워크 사업이 (유네스코의) 비정규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동 네트워크의 회원 수 및 활동 범위의 성장에 따른 유네스코 사무국의 업무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기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이는 또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및 증진을 위한 동 네트워크의 국제적인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13. 동 네트워크에 대한 회원도시들의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도시들이 연락 담당자(Focal Point)와 함께 공식적인 정치적/행정적 대표인을 지정할 것을 매우 독려한다. 이는 지역 발전 정책, 전략 및 계획에 문화와 창의성을 더욱 통합하고 유네스코와 회원도시 간 소통 및 협동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4. 회원도시들은 합의에 따라 2019년 창의도시 연례회의 개최도시로 이탈리아 파브리아노가 지정됨을 축하하며 폴란드 크라쿠프와 카토비세에서 개최될 다음 연례회의를 기대하는 바이다.

시장단선언

프랑스

영객레뱅

2017년

6월 30일~7월 2일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시장단은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프랑스 영객레뱅에서 개최된 제11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회동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적·변혁적 동력인 문화와 창의성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회원도시들이 문화와 도시 발전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에 참여하고 이 국제적인 자리에서 회원도시들의 경험과 혁신적 해결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유네스코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 시기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을 상기하며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문화와 창의성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탄력성이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에 전략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공공 공간을 기획하고, 도시 재생을 촉진시키며, 사회적 포용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지적이며 문화적인 발전 기획에 있어 문화의 잠재성을 더욱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사명선언문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며,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및 새로운 도시 의제 이행 촉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니셔티브, 정책, 프로젝트에 문화와 창의성을 더욱 통합하고자 한다.

도시 발전 정책에 있어 도시와 지방 정부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며, 우리는 문화 기반의 도시 발전 정책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혁신적 사례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실험실” 역할을 하는 동 네트워크 회원도시들의 전략적 잠재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는 친애하는 회원도시들이 지역 차원에서 동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및 핵심 원칙의 이행과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동 네트워크 및 유네스코를 위한 실질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며, 나아가 전반적인 정치적 의제에 문화를 통합할 것을 독려하는 바이다.

우리는 동 네트워크의 공동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전략적 운영체계(Strategic Framework)를 온전히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회원도시들의 혁신적 힘을 국제적으로 알리며 동 네트워크의 바람직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동 네트워크의 지리적 대표성을 증진하고 동 네트워크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 운영체계의 전략 목표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분야 간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회원도시 간의 협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동 네트워크 내 지리적 균형의 향상을 바란다.

본 네트워크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우리는 네트워크의 활동 및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적 기여를 해온 유네스코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또한 회원도시들의 상황에 따른 재정적 기여를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동 네트워크의 전략적 운영체계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회원도시들의 기여 방안을 체계화할 수 있는 간략하고 효과적인 연간 기여 체계의 개발 및 운영을 환영한다.

14 제12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결과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회원도시들은, 폴란드 크라쿠프와 카토비세에서 개최된 2018년 연례회의에서 회동하였다. 개최도시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며, 회원도시들이 유네스코의 사명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사명선언문 및 목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특히 목표 11을 실행하는데 동참하며, 문화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력을 추구하고,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 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천을 위한 도시 연구소와 같은 국제적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문화적 교차로와 창의성의 국제적 중심으로서, 본 네트워크는 지난 연례회의에서 회원도시 승인을 받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전략적 운영체계(UCCN Strategic Framework)를 통해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동 네트워크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다.
2. 회원도시들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분야 및 창의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재 시기를 환영하며, 디지털 지능, 인공지능, 지속가능·참여적 관광, 신생 메가시티(megacities), 도시-지방 네트워크, 양질의 교육, 그리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주요 동향과 우선순위를 인지하고 있다. 회원도시들은 이러한 분야들에서 다른 회원도시들과 함께, 특히 국제 협력 및 분야 간 협력을 통해 회원도시들의 자원을 투자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수집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3. 회원도시들은 유네스코 및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치관과 비전 이행에 노력하며,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알린다. 도시들은 도시 정체성의 일부인 그들의 비전에 문화를 통합하고 이러한 가치관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참여한다. 도시들은 또한 창의분야의 변혁적 잠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참여한다.
4. 회원도시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내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 회의의 상호보완적 가치와 클러스터(cluster) 회원도시 간 조율 및 협동을 촉진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 또한 하위 네트워크 회의는 새로운 회원도시들을 본 네트워크로 통합되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사무국(Secretariat)은 각 클러스터가 매 연례회의가 개최되는 2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적어도 1회 혹은 2회의 공식적인 하위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고 동 회의의 개요, 조직, 결과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유네스코 사무국으로 전달할 것을 독려하는 바이다.

5.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제8차 연례회의에서 구성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SG)는 유네스코 사무국과 회원도시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도시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및 하위 네트워크 차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가능한 한 모든 대륙의 회원도시로 구성되어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동등한 대표성과 지속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하여, 이전 연례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원도시들은 2년 임기에 최대 1회 연임 가능하며, 부의장 도시들(Deputy Coordinators)은 첫 2년 임기를 마친 이후 의장(Coordinators) 역할을 위임 받을 것을 권장하는 순환체계를 제안하였다. 회원도시들은 이번 연례회의에서 진행된 논의에 따라 동 순환체계를 승인하였으며 두 번째 운영위원회 갱신 이후 즉시 발효되었다.

6. 회원도시들은 이번 연례회의에서 두 번째 운영위원회 갱신이 이루어짐을 인지하며, 그 결과로 새롭게 임명된 운영위원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 공예와 민속예술: 이천(의장 도시), 퍼듀카(부의장 도시)
- 디자인: 디트로이트(의장 도시), 코르트레이크(부의장 도시)
- 영화: 시드니(의장 도시), 산토스(부의장 도시)
- 음식: 파르마(의장 도시), 엔세나다(부의장 도시)
- 문학: 노팅엄(의장 도시), 류블랴나(부의장 도시)
- 미디어아트: 잉글레뱅(의장 도시), 광주(부의장 도시)
- 음악: 만하임(의장 도시), 카토비세(부의장 도시)

다음 연례회의 개최도시로서, 파브리야노 또한 다음 연례회의 종료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원도시로 활동하게 된다. 의장 및 부의장 도시의 다음 갱신은 2020년 연례회의에서 진행된다.

7. 회원도시들은 첫 세 건의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 활동(Membership Monitoring and Reporting Exercises) 이후 2004년~2013년 사이 동 네트워크에 가입한 회원도시들까지 총 41개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Membership Monitoring Reports, MMRs)가 제출되었음을 인지한다. 현재 제출된 보고서들은 모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웹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다음 모니터링 보고 활동에서는 28개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가 다음 11월 말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모니터링 보고의 규모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국은 회원도시들과의 논의 및 컨설팅을 통해 동 네트워크의 모

니터링 및 보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8.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연례회의에서 회원도시들이 채택한 창의도시 지정 절차의 주요 변화가 있다. 각 국가별로 지정이 가능한 도시를 2개로 제한하기로 한 합의사항은(지정도시들은 반드시 서로 다른 2개 창의분야로 지정되어야 함) 2019년 가입 공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 이번 연례회의에 참석한 시장들은 작년 프랑스 영갱레뱅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시장선언문(UCCN Mayor's Declaration)을 검토하였다. 이번 시장선언문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위한 지속적인 도시들의 노력을 약속하고 도시 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굳건한 다짐을 명시하고 있다.
10. 작년 시행된 자발적 기여 체제(voluntary contribution mechanism)에 따라 알하사, 청두, 데니아, 더니든, 가지안테프, 이천, 산타페 7개 회원도시가 동 네트워크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였다. 유네스코를 대신하여 유네스코 사무국은 동 도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른 도시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독려한다.
11. 상기 내용에 이어, 회원도시들은 동 네트워크가 비정규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extra-budgetary programme)임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기여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동 문서의 16항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 체계가 국제적 거버넌스 형태의 일환으로 기획될 예정이다.
12. 현재 계획된 바와 같이 다음 연례회의는 2019년 6월 5일~10일 이탈리아 파브리아 노에서 '이상적인 도시(The Ideal City)'라는 테마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사전 선정된 3개 후보도시의 발표 후, 유네스코 사무국은 2018년 연례회의 종료 후 2020년 연례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3. 회원도시들과 유네스코 사무국은 스카이프나 다른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회원도시 간, 클러스터 간, 유네스코 사무국 및 운영위원 도시 간의 더욱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14.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활동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 및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사무국은 LAB.203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필수적 역할 측정에 대한 유네스코의 국제적 활동에의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기여와 같은 일련의 이니셔티브들을 진행하였다. 다수의 회원도시들이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며 그들의 지역적·국제적 활동, 실천, 사례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15. 유네스코 사무국은 유네스코가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문화 관련 기구임을 활용하는 한편 유네스코가 보유한 소통 채널 및 네트워크를 통해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국제적 주목도가 증진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네스코 사무국은 본 네트워크의 모범사례 및 실천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회원도시들이 관련된 유네스코의 국제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회원도시들은 이러한 사무국의 노력을 인정하는 바, 유네스코의 활동 및 행사 관련 요청에 활발히 대응하고 기여할 것이다. 다음 7월 뉴욕에서 개최될 고위급 정치 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이 그러한 기회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16. 유네스코의 비전은 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회원도시들이 공유하는 지침인 바, 유네스코는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개발을 위한 논의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유네스코 사무국은 가까운 장래에 해당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동 네트워크의) 구조, 사업 이행,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회원도시들의 관여 및 참여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 본다.

15 제12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시장단선언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시장단은 2018년 6월 12일~15일 폴란드 크라쿠프·카토비세에서 개최된 제12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에 회동하여,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와 창의성의 전략적 역할을 확신한다.

폴란드

크라쿠프 & 카토비세

2018년

6월 12일~15일

우리는 문화와 도시 발전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에 참여하고 이 국제적인 자리에서 회원도시들의 경험과 혁신적 해결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유네스코에 감사사를 표한다.

우리는 2017년 동 네트워크에 가입한 새로운 64개 회원도시과 더불어, 이에 따른 동 네트워크의 지식의 확장과 지리적 균형의 증진을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이행 촉진을 위해 동 네트워크의 사명선언문과 전략적 운영체계(Strategic Framework)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며, 나아가 지역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니셔티브, 정책, 프로젝트에 문화와 창의성을 통합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다양성, 성 평등, 청소년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노력이 포함된다.

우리는 또한 모범사례 공유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분야 간 활동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회원도시 간 협력과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우리는 동 네트워크의 활동 및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적 기여를 해온 유네스코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유네스코가 동 네트워크의 향후 발전을 예측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동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해 온 논의를 지지한다.

16 제13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결과

2019년 6월 14일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회원도시들은 제 13차 연례회의를 위해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에서 회동하였다.

연례회의의 개최도시인 파브리아노의 관대함과 환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유네스코의 의무와 국제협력 증진의 원칙을 이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바이다.

제13차 연례회의는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협력과 혁신을 위한 유네스코라는 국제적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고려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1. 유엔의 글로벌 의제 2030(UN Global Agenda 2030)에 명시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와 창의성 개발을 위한 본 네트워크의 사명을 강조하며;
2. 다양성과 발전을 위한 본 네트워크의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3. 전 세계 도시의 문화 다양성과 발전 경로의 다양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본 네트워크의 초석인 회원도시 간 지리적 대표성을 상기하며;
4. 지속가능발전목표 11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촉진을 위한 리더십, 문화·창의성·협력·혁신의 증진을 위한 본 네트워크의 노력을 지속하며;
5. 창의성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대한 영향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험·지식·모범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창조경제와 지역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시화에 수반되는 당면과제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간 사회적 유대감과 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본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며;
6. 2030 의제(2030 Agenda) 정신에 따라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의 영향과 성과를 증명하고 측정하기 위한 동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성의 장기 전략 개발을 권고하며;
7.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본 네트워크의 연관성과 영향을 공고히 만드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통합적 소통 계획을 강화하고 유네스코국가위원회·유네스코 석좌(UNESCO Chairs) 및 유네스코 기관(UNESCO Institute)의 지원을 통해 본 네트워크가 여러 도시와 창의분야 클러스터들을 넘나드는 교차 관점에서 본 네트워크의 교류 및 파트너십 전략을 확장할 것을 더욱 권고하며;
8. 연구와 실무를 통합하여 정책 기획과 계획을 제시하는 본 네트워크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자원의 파악과 발전의 측정을 통해 연구 및 실무의 통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9. 2년 임기에 1회 연임 가능한 현재의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회원 구성 방안을 지지하며, 본 네트워크의 전략 실행을 위해 각 클러스터(clusters)를 이끄는 조정위원 도시(Coordinators)의 의무를 재확인하며;
10. 본 네트워크의 국제성을 증명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연례회의인 제14차 브라질 산토스 연례회의를 환영하는 바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창의성과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사업(이하 창의도시사업"이라 한다)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 ① 창의도시 사업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내 창의도시 사업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유네스코창의도시 간 긴밀한 협력 및 국내 유네스코창의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창의도시 사업 국내 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이하 "한국네트워크"라 한다)의 설치·운영
2. 한국 네트워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
3. 한국 네트워크 회의 및 워크숍 개최
4. 국내·외 창의도시 정책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5.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6. 그밖에 제2조의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활동

제2장 한국네트워크

제4조(네트워크의 구성)

- ① 한국네트워크는 정회원도시와 예비회원도시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도시"란 유네스코 본부의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이하 "국제네트워크"라 한다)에 가입한 국내 도시로서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가입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도시를 말한다.
- ③ "예비회원도시"란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도시로서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예비회원도시 가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도시를 말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도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국제 네트워크 회원도시 자격을 상실한 때
 2. 탈퇴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후 30일이 경과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국내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때

제5조(회원의 활동 등)

- ① 회원은 한국네트워크의 워크숍 등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창의도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창의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 개발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소속 공무원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위원회에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관련 협력 및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⑤ 회원은 한국 네트워크의 활동에 적극 참여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자문위원회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국제네트워크 가입추천도시 심사 및 한국네트워크 가입도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자문위원은 국제네트워크 주제 분야(공예·민속예술, 디자인, 문학, 미디어아트, 미식, 영화, 음악) 전문가 또는 도시계획, 건축, 인적자원 관리, 행정, 국제관계 등 관련 분야 국내 전문가·전문기구 대표들 중에서 위원회 사무총장이 위촉한다.
-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자문위원의 활동)

자문위원은 한국네트워크 가입도시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창의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강의 또는 발표
2. 예비회원도시의 네트워크 가입준비를 위한 자문 및 신청서 작성 지원
3. 추천도시 선정 절차 종료 후 선정된 도시의 영문신청서 작성 지원
4. 정회원도시의 창의도시사업과 관련한 자문위원단, 협의체, 운영위원회 등의 활동

제8조(자문위원의 해촉)

위원회 사무총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요청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자문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5. 직무수행이 매우 불성실한 때

제9조(수당·경비의 지급)

자문위원에게는 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국제네트워크 가입추천

제10조(국제네트워크 가입신청·추천 절차)

- ① 한국네트워크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해온 예비회원도시는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희망하는 예비회원도시는 매 짝수 연도 5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국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국문 가입신청서 및 도시별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네트워크 가입추천 심사를 거쳐 추천도시를 선정하여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유네스코에 추천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
- ④ 위원회 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추천도시를 확정하여 해당 도시에 영문 가입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지원 및 유네스코에 제출할 가입추천 서한을 제공한다.

제11조(가입추천 심사)

- ① 국제네트워크 가입추천 심사는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가 실시한다.
- ② 가입추천 심사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득점순으로 추천도시(최대 4개)를 선정한다. 단, 적격도시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자문위원은 추천도시 선정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예비회원도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여한 경우
 2. 예비회원도시의 국문가입신청서 작성 용역에 참여한 경우
 3. 국제네트워크 가입추천 심사 전 예비회원도시의 창의도시준비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4. 기타 예비회원도시의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전문용역을 수행한 경우

⑤ 가입추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 대상 도시의 장 및 관련부서 담당자들의 "유네스코의 비전"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의 전략 목표에 대한 이해 정도
2. 가입신청서 준비과정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협력 정도
3.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 대한 이해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4. 문화적 자산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활용계획 수립 여부
5.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을 매개로 한 포용적인 지속가능도시 발전 전략 수립 여부
6. 계획들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지속가능성 여부(도시의 중장기적 의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생태계 구축 여부, 인적역량, 예산계획 등)
7. 국제교류 · 협력 계획 및 이행역량
8. 기타 한국네트워크 활동 참여 여부

제12조(비밀유지·청탁금지)

국제네트워크 가입추천에 관여하였거나 관여가 예정된 자문위원 및 위원회 직원은 신청도시를 포함한 누구에게서도 일체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며, 가입추천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회원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동의서

_____ 가입연도 _____ 에 유네스코 본부의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에
_____ 분야명 _____ 분야로 가입 승인 받은 _____ 도시명 _____ 은(는) ‘한국 유네스코창의
도시네트워크’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
협력, 문화다양성 증진, 지속가능발전 도모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시장명

(직인)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예비회원 가입 신청서

도시명	
가입희망분야(택1)	<input type="checkbox"/> 문학 <input type="checkbox"/> 영화 <input type="checkbox"/> 음악 <input type="checkbox"/> 공예/민속예술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미디어아트 <input type="checkbox"/> 음식
선택 분야와 신청도시 발전과의 연계 가능성	
향후 네트워크 활동 계획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협력, 문화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한국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예비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명 (직인)

